

건축사

7

KAA JOURNAL 1970



대한건축사협회지

뛰어난 断熱效果!!

h한일 화이버그라스

● 先進各國에서 화이버그라스는 断熱材의 대명사로 되어있습니다.

화이버그라스는 발명특허에 빛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섬유입니다.

「뛰어난 保温, 保冷材」 「가볍고 시공이 간단한」 「타지않는 건축자재」로서 국내 최대의 납품실적을 자랑하는 **한일 화이버-그라스**—————

어느 断熱材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국제수준을 능가한 한일 화이버그라스는 그 「우수한 품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최대의 만족을 드릴것입니다.



인슈레이션 매트

특성

- | | |
|---------------|--------------|
| ① 단열성이 우수하다. | ① 건축물에 |
| ② 吸音, 防音 | ② 공장건물에 |
| ③ 불에타지 않는다. | ③ 선박에 |
| ④ 가볍고 탄력성이크다. | ④ 자동차, 철도차량에 |
| ⑤ 시공이 간단하다. | ⑤ 전기냉장고에 |

용도



파이프 카바-

설비용 pipe 의 保温, 保冷用으로 단열 효과가 우수하고 시공이 간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어느 保温材보다도 熱伝導率이 적어서 연료의 절약, 원가의 절감으로 매우 경제적이다.

h한일유리섬유공업주식회사
HANIL FIBER GLASS INDUSTRY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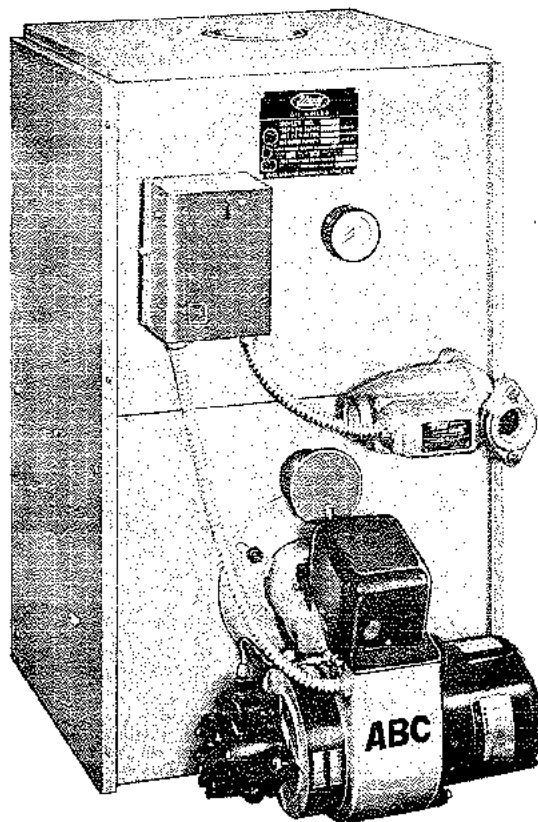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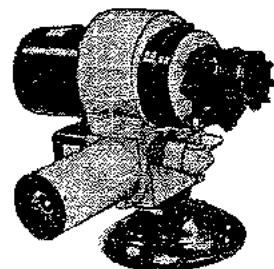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 2가269-11, 중앙사서함952호

Tel : 53-5479, 53-2555, 23-4088, 23-4089

* 써보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文化住宅 · 빌딩 · 工場의
熱管理는 어떠신지요 ?

美 國 ABC 오일 바-나 《完製輸入品》



● ABC바-나의 特徵 ●

- ① 完全自動임으로 便利하다.
- ② 完全燃燒로 燃料費를 節約
- ③ 五重安全裝置로 事故全無
- ④ 短時間에 設置 · 婦女子도 取扱할 수 있음.
- ⑤ 責任設置 · 애프터 · 서비스保障

● 用 途 ●

- ① 暖房用 溫水보일러
- ② 各種스팀 · 보일러
- ③ 호텔 · 빌딩 · 沐浴湯用 보일러
- ④ 工業用보일러 · 工業爐 · 乾燥爐用

其他 取扱種目

Utica 유티카 · 보일러

暖房과 溫水를 1 台로 同時에
完全 解決한 美國 輸入完製品

- 各種自動펌프 ● 各種暖房器具
- 로타리 바-나 ● 各種自動裝置

美國의 有名한 오일바-나와 暖房器具
韓國總代理店

三成設備工業株式會社

서울 · 中區乙支路 2 街163의 5 (동양빌딩 601 號)

TEL. (23) 9696 · 9697 · 9698



* 상세한 카탈록 및 문헌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購入問議는 弊社 및 代理店에서

* 最新型組立式建築 (美国MODULAR会社製)

I. WONDER式



◎ Wonder 式의 特徵

1. 無鉄骨建物이며 견고하다.
2. 價格이 저렴하다.
(完工費評当3萬圓 内外)
3. 移動이 가능하다.
4. 施工時間이 짧다.
5. 内部에 기둥같은 장애물이 없다.
6. 여러가지 形態로 美觀하게 꾸밀 수 있다.
7. 넓이는 300ft, 높이는 15m 까지 길이는 無制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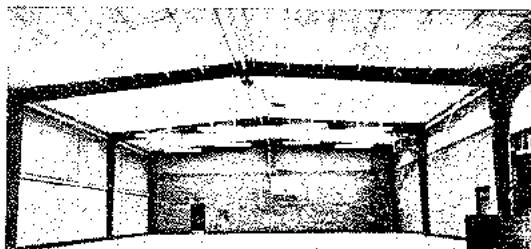
用 途

- * 大形
工場, 倉庫, 体育館,
教会, 비행기격납고
- * 中形
軍막사, 畜舍, 양곡
창고 學校校舍,
- * 小形
觀光사업용「방가로」
簡易주택 等



No posts, supports or trusses in this gymnasium erected for Mac Murray College at Jacksonville, Illinois. 100' x 106-foot "Truss-Skin" ro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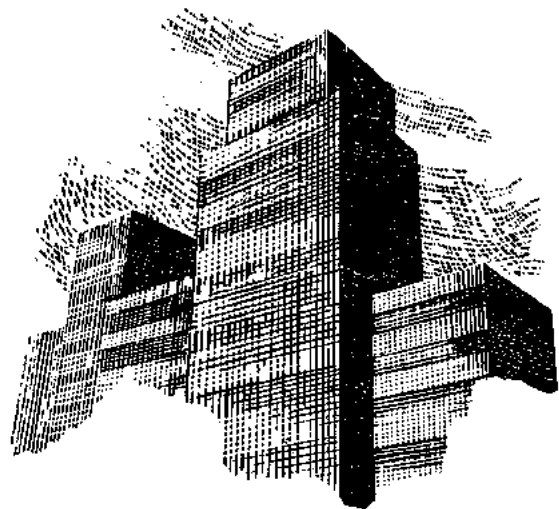
2. METALBOARD式



韓國總代理店 豐成交易株式会社

서울 鍾路区 都染洞 115 (三六빌딩407号) I.P.O BOX 2945

TEL. ⑦4 8987



現代建築 內裝의 3大 課題—
방음·방습·보온을 완전 해결한

三榮 하-드보-드

무늬보-드

立体的이어 아름답고 濕氣와 소음을 防止하며
쥐가 棲息치 못하는 가장 새로운 建築 內裝材.

프린트 보-드

하-드보-드 表面에 優雅하게 塗裝된 國內最初
의 新製品으로 우수한 高級內裝材.

吸音板

木材 纖維로 製造된 國內唯一의 断熱吸音 材로서
防音이 完全하며 절대휘거나 뒤들리지 않는 天井
用 內裝材.



三榮 하-드보-드工業株式會社

■ 서울사무소 : ☎ 26-3201~5 ■ 서울總販 ☎ 52-3006~7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3街296



표시허가 제374호
5C-650방열기
표시허가 제420호
관이음쇠



기술의 상징
KANGWON BRAND

강원 라지에타
콘 벡 타
관이음쇠

- 5C-650 RADIATOR
5C-500 RADIATOR
- WALL RADIATOR W-7B
($5\text{kg}/\text{cm}^2$ 水压試驗合格品)
- CONVECTOR
- PIPE FITTINGS
($10\text{kg}/\text{cm}^2$ 水压試驗合格品)

暖房·配管用生産品種



國內 最大規模의 量産体制로서
여러분께 奉仕하고 있습니다.

【兼營業種】

江原製作所·江原炭磁·三票煉炭
三 票 石 油·三票骨材·三江運輸

江原産業株式会社

本社 서울特別市鍾路区新門路二街6 營業部(直) 73-5514
TEL. 75-2381~5

KAA JOURNAL

건축사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S

1970

7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23 호
구입년월일	19 .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논단	6	강 명구
특집 주택	8	편찬위원회
러비 하우스	10	프랭크 · 로이드 · 와이트
낙수장	12	"
게츠빌클러 하우스	16	"
샤보이 하우스	18	르 · 끌레제
자울의 집	22	"
투젠드하트 하우스	24	미스 · 환 · 델 · 로에
환스워드 하우스	28	"
마이레아	32	알바 · 아알도
까레의 집	35	"
브로이델 하우스	37	마르셀 · 브로이델
글라스 하우스	39	필립 · 존슨
70년대의 작가 ⑦	42	편찬위원회
이오 · 밍 · 베이		
베프로 · 폴리탄 타워	43	이오 · 밍 · 베이
에버슨갤러리	48	
NCAR	54	
거장들의 이야기	58	편찬위원회
FLW		
유기적 건축의 언어	61	프랭크 · 로이드 · 와이트
협회기사	65	
회원동점		

편찬위원 한창진, 이정덕, 최창규, 라상진, 한정섭, 이해성, 유경철, 박고석, 정인국, 강명구, 김석철

올바른 建築을 爲한 建築士法の 改定을!



와우 아파-트 事件을 계기로 國會 建設委員會와 與黨 간사인 柳 光鉉議員 外 23名이 提案한 建築士法中 改正案은 主로 22條 삭제 문제였으나, 이 22條야말로 建築士協會의 存廢가 달려있는 法中の 가장 중요한 法이어서 우리 士協은 물론 學會, 家協會, 會長과도 連席 상의한 후 三協會 會長이 모두 이 22條가 建築 全般的인 進路에 必要한 重大法임에 비추어, 삭제가 아니라 더 한층 補強함으로서, 建築士의 向上과 國民에 신뢰받을 수 있는 大義名分을 認識코 22條뿐 아니라 其他 1, 2級 建築士 問題까지도 아울러 建議키로 合意되었던 일이 대한 건축학회 H. 理事 개인意지가 不法的으로 共和黨 政策委員會에 22條 삭제 同意書를 提出케하여 또 다시 建築界에 不協和音을 일으키어, 수치를 자아내는 難境을 견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建築法の 15坪 以內 住宅의 標準設計圖 問題도 住宅의 政策上的 問題에 白紙인 H 理事의 20坪까지의 標準設計圖 고집으로 우리 建築士 大部分의 業務量인 15坪 정도의 住宅設計를 빼앗기게 하는가하면 自身이 한번도 設計事務所 운영을 못한 사람이 우리들 建築士의 가장 重大한 法마저 말살하려 하니 建築界 여러분과 같이 분개해 마지 않는다.

먼저 柳 光鉉의원의 提案이유를 들으면 우리나라에서는 建築設計를 할 수 있으며 위탁 設計를 할 수 있는 자는 建築士에 한하고 있으며 建築士의 자격은 건축물의 大小에 따라 1級 2級으로 區分하여 엄격한 國家고시에 합격된 者이므로 建築士의 자격을 소유한 者는 누구나 그 級數에 해당되는 建築物의 設計를 할 수 있고, 建築許可는 行政官署에서 그 設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設計圖書を 建築士協會에 등록할 필요성이 없고 邑, 郡, 面에서 建築을 하려면 建築士協會 支部 또는 分所가 있는 地方에까지 가서 登錄을 해야 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時間과 경제적 낭비가 크다하여 이 制度를 廢止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國會에서는 圖書登錄制의 실시 방법이 協會에서의 단지 會費 徵수를 위한 도움이 될 뿐 設計圖書의 正確을 검토한다든지 안전도를 확인함으로서 國民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가 없는 法이 아닌가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支部에 따라서는 벌써부터도 設計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支部

도 있으나 全的으로 실시치 못한 忒리짐을 느끼던 點으로서 참으로 좋은 點을 지적해 준 것을 감사 드려야 하겠다. 그러나 서울 특별시는 除外하고 부산직할시만 하더라도 市 建築課長이 建築士가 아니며 其外 市, 郡, 面에서는 行政書記가 許可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없다. 建築科를 卒業하고 設計하나 못해보고 建築士시험도 못본 建築科出身이 있는 官署는 또 좀 나은편이다. 이러한 점을 보강키 위하여 構造上의 安全度를 協會가 검토함으로써 事故를 미연에 방지하고 都市計劃法, 建築法, 建築士法上의 여러가지 違法여부도 확인함으로써만 現時點의 行政當局에 적정 能力이 가능하며 無登錄 設計士들의 營業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고시에 합격한 建築士들의 技術向上과 권익옹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不實無資格 사이비 建築士의 방지와 더불어 不實建築物이 없는 建築의 質的向上도 이러므로서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22條는 삭제되는 것 보다 改善 보강되어야 한다는 점을 強力히 主唱한다.

또 하나 重要한 일은 建築法에 監理業務가 늘므로서 부족한 建築士들의 막중한 업무량을 해결치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人口 1億인 이웃 日本의 建築士의 數는 約 7萬名이 되므로 人口比로 보면 우리나라는 2萬3千名の 建築士는 保有되어야 日本과 같은 建設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 建築士協會 會員數는 全國 11個 支部와 36個 分所 全員の 數가 日本의 23分の1도 못되는 950여명 밖에 안되며 그 950餘名도 1級, 2級으로 쪼개어 2級の 業務量은 極小範圍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형편에 監理까지 法上으로 實施되고 보니, 우선 2級 建築士의 業務量을 3배로 늘리고 2級에서 1級 시험을 대폭 完善하여 과목 합격제를 되살려 주는 建築士法 改正이 없이는 도저히 建設道상에 있는 우리나라 現時點에서의 올바른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기대키 어렵다는 點 아울러 改正 건의하는 바이다. 올바르게 아름다운 韓國建築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고 建築에서도 국가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建物을 지을 수 있고 建築士들이 나날이 向上될 수 있는 建築士法 改正이야말로 友邦에 앞선 立法 發展이라는 點도 國會建設委員, 國會議員들과 같이 바람직한 一翼이 되지 않을까 한다.

會長 姜 明求



특집 주택 1

현대건축의 고전들

집의 文法

후랭크 · 로이드 · 화이트

가치가 있는 모든 집은 그 자신의 문법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의미하는 〈文法〉이란 단어는 사물이 결합되어질 때 들어오는 여러가지 요소간의 형태적 관계다.

집의 문법이란 집이 그 모든 부분을 뚜렷하게 분절화하여 표현하는 형식이다.

이 분절들은 그 집의 언어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여러 재료와 자료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 집의 문법을 대부분 결정한다. 문법은 공사비에 의해서 제한(혹은확장)되나 그것은 작은 범위의 한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전체와 관련되어 각기 그것에 당당한 분절을 가지며 또한 모든 것이 일체가 되고 잘 종합될 때 벽, 천정, 가구 등은 생명을 가진다.

만일 집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비록 그 부분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집의 문법은 〈말하라〉 〈말성하다〉 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다. 그것은 유기적인 질서, 집의 모든 부분간의 새로운 차원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만일 문법적인 집에 인간이 산다면 새로운 자유의 의식이 그에게 새로운 생활의 의식을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밋대로 지어진 집 속에서의 평범한 생활과 참으로 다른 유가치한 생활이 될 것이다.

집의 문법은 자연스러운 완성—즉 집터, 환경, 거주자의 상황에 있어서 전인적인 완성을 목표한다. 거기서 우리는 유리로서 돌은 돌로서 나무는 나무로서 쓰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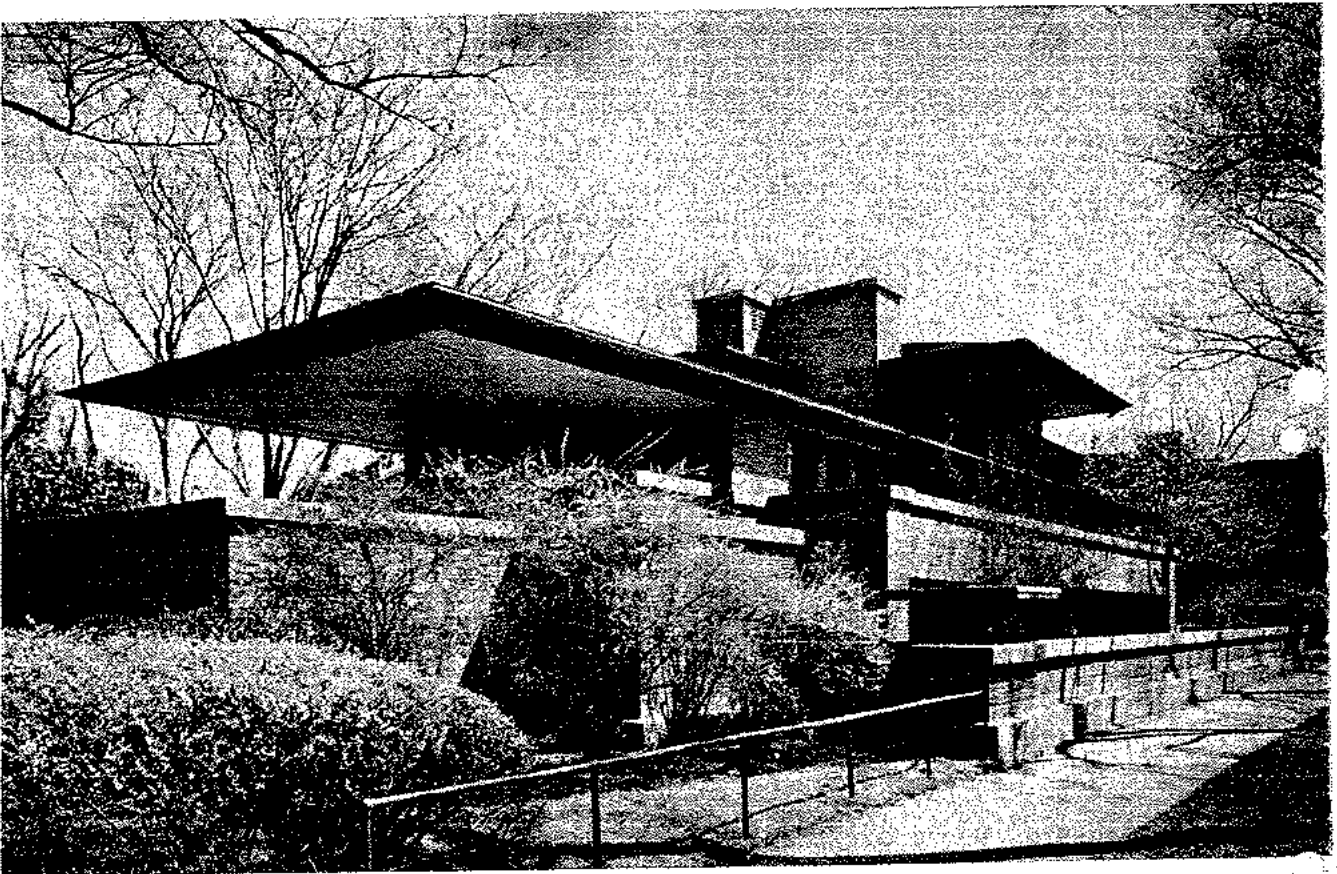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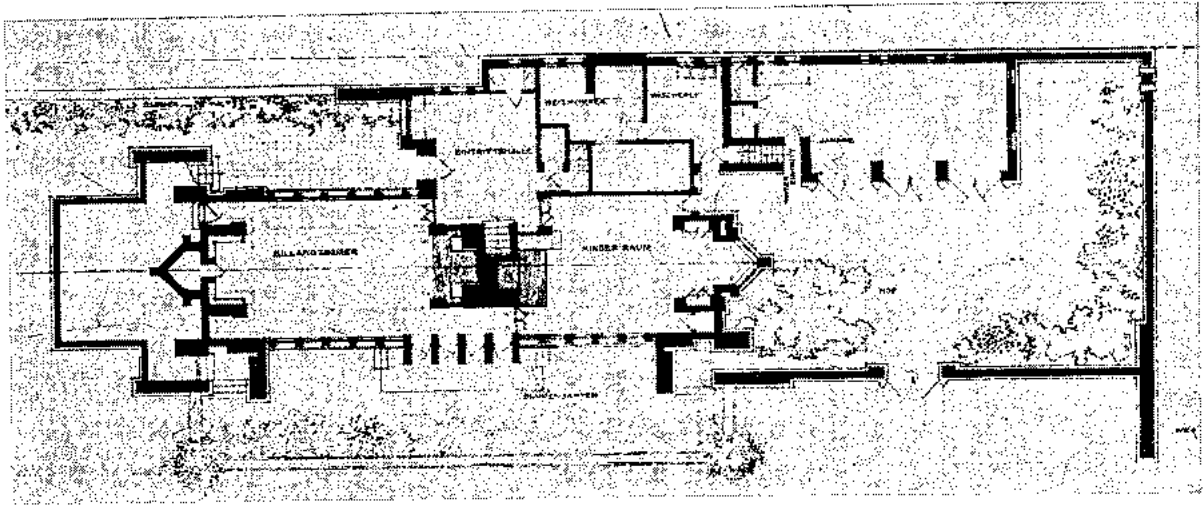
참다운 집의 문법은 환경의 모든 요소가 그 집의 내용이 되어 거기에 충만한 것을 말한다. 식물이 그 심어진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집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모든 것이 밀폐된 상자의 연속속에 집어 넣어져 있고 무엇이나 같은 모양의 상자 속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을 떨치고 일어서기 위해서 집의 문법은 필요하다.

러비하우스 ROBIE HOUSE

시카고, 일리노이즈 1909

프랭크 로이드 와이트



Robie House, Chicago, Illinois, 1909.

와이트의 초기의(첫 황금기) 집들은 미국의 토지와 이 토지에서의 생활을 창조적인 형태로 일으킨 현대건축의 가장 큰 유산의 하나다. 대평원의 집이라고 널리 불리우는 그 집들은 미국적인 공간성의 구현이다.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다시 내부를 거쳐 다시 외부로 연속적으로 흐르는 대자연의 마치 섬리같은 진취성), 그형태의 연속성과 무한성과 유동성은 미국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와이트는 유동적이며 무한한 자연을 이와 대조적인 항구성과 안전성 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착시켰고 그리하여 다시 영원한 해방을 구현한 것이다. 그가 만든 주택들에 보이는 연속적인 공간들은 항상 하나의 통일된 충분히 제약을 거친 구조계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공간을 형성한다.

러비하우스는 이러한 추구의 한 대표적인 예다. 육중한 굴뚝의 중력과 경쾌히 날개를 펼 캐너피의 대조적인 요소의 중합, 무한한 환경과 낮고 어둡고 다시 밝고 마술적인 공간들의 결합을 통해서 와이트는 서로 대립하는 요소를 결합하여 흐트러지는 인간들을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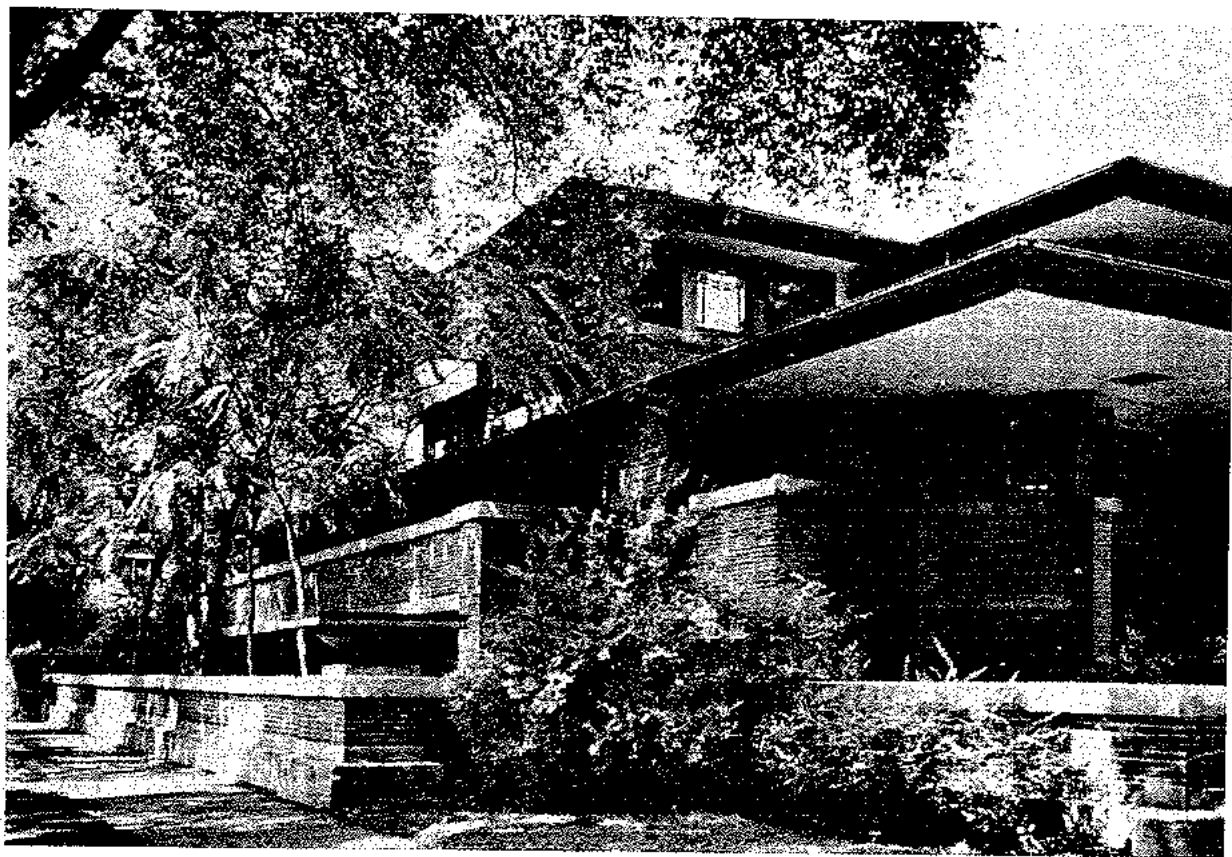
된 항구성 속에 정착하고자 한 것이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둘레가 차단되어 있어도 부단히 밖으로 유출하는 공간의 「위대한 평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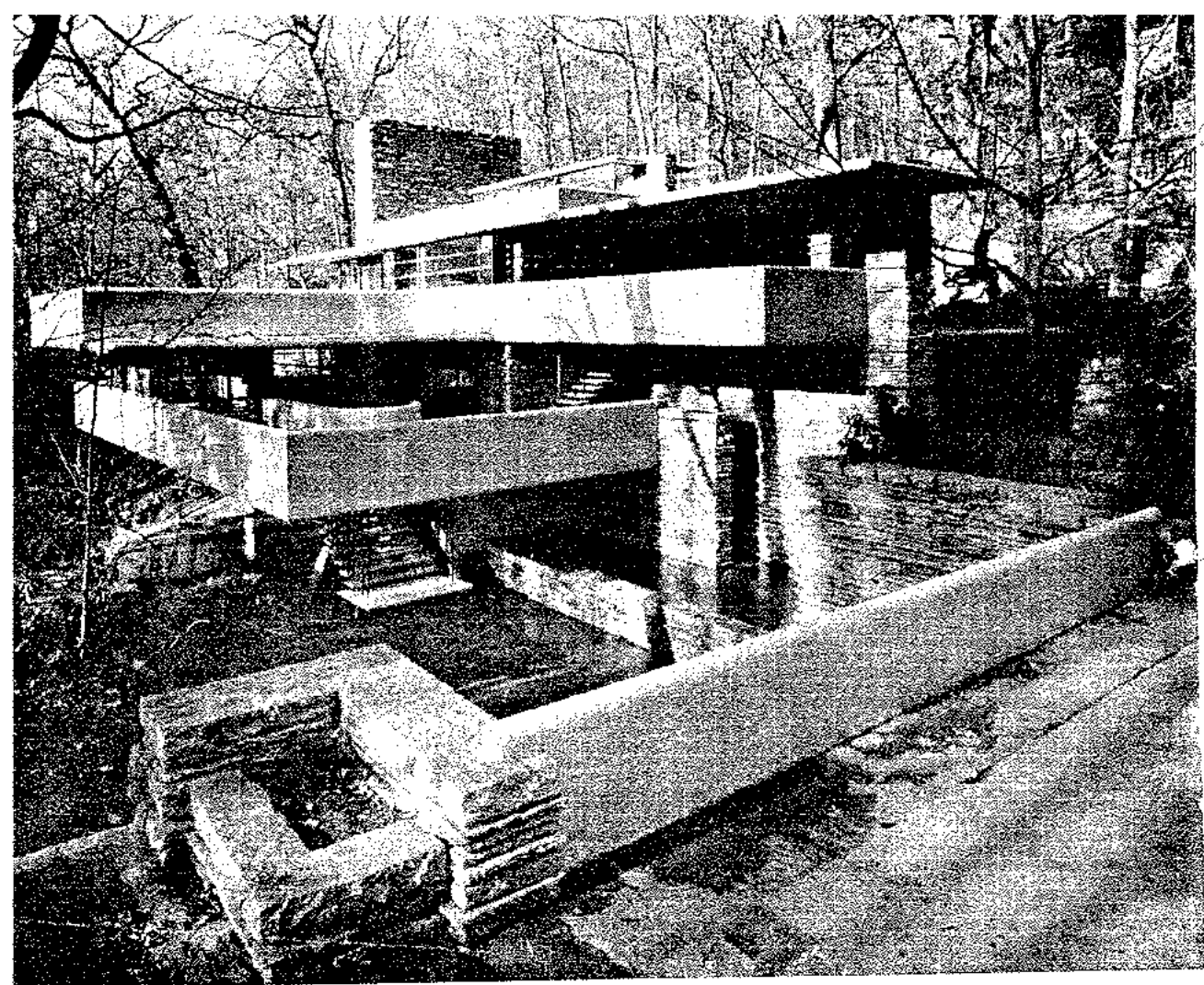
항상 와이트는 모든 부분이 서로 부딪혀 하나로 융합할때 개체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전체로서의 통일을 우선시킨다.

그는 그의 공간개념에 완전히 종속하는 새로운 형태 — 집 전체가 서로 충분히 교차되고 관통된 물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 을 만들기 위해 전통적인 건축의 구조와 상세와 형태 구성의 원리를 중합한 것이다.

러비하우스에서 울동적인 통일, 마술적인 분위기, 공간의 폐쇄와 극적인 구성등의 모든 것은 교묘한 분장과 강제된 고요함이라는 효과에 단적으로 집약되어있다. 공간의 전조와 고양 그리고 극적인 고조를 지배하는 강인한 공간성, 디멘션과 공간의 팩터에 대한 끈덕진 추구등 러비하우스는 우리에게 건축의 영원한 고전적 의미를 다시 말해준다.

Robie House. Oblique view.





Kaufmann House, "Falling Water," Connellsville, Pennsylvania, 1936-37. View from entrance bridge.

낙수장 FALLING WATER
KAUFMANN HOUSE
커넬스빌 펜실바니아 1937
프랭크 로이드 화이트

와이트에게 10년대와 20년대는 고난의 시기였다. 그의 문화는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재정적인 파탄이 겹쳤다. 어느 의미에서 19세기의 문화에서 계승한 전통에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탕진 한 후였다 이 시기는 와이트에게 가장 지옥의 시기였다. 아무 이상적인 문화나 건축적인 창조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 시련의 시기동안 그는 자기 성장을 위한 깊은 바탕을 미국토착의 전유럽적인 문화속에서 발굴하고자 전콜롬비아 인더안 건축의 기념비적 가능성을 추구했다. 새로운 유산을 찾고자한 추구는 고독하고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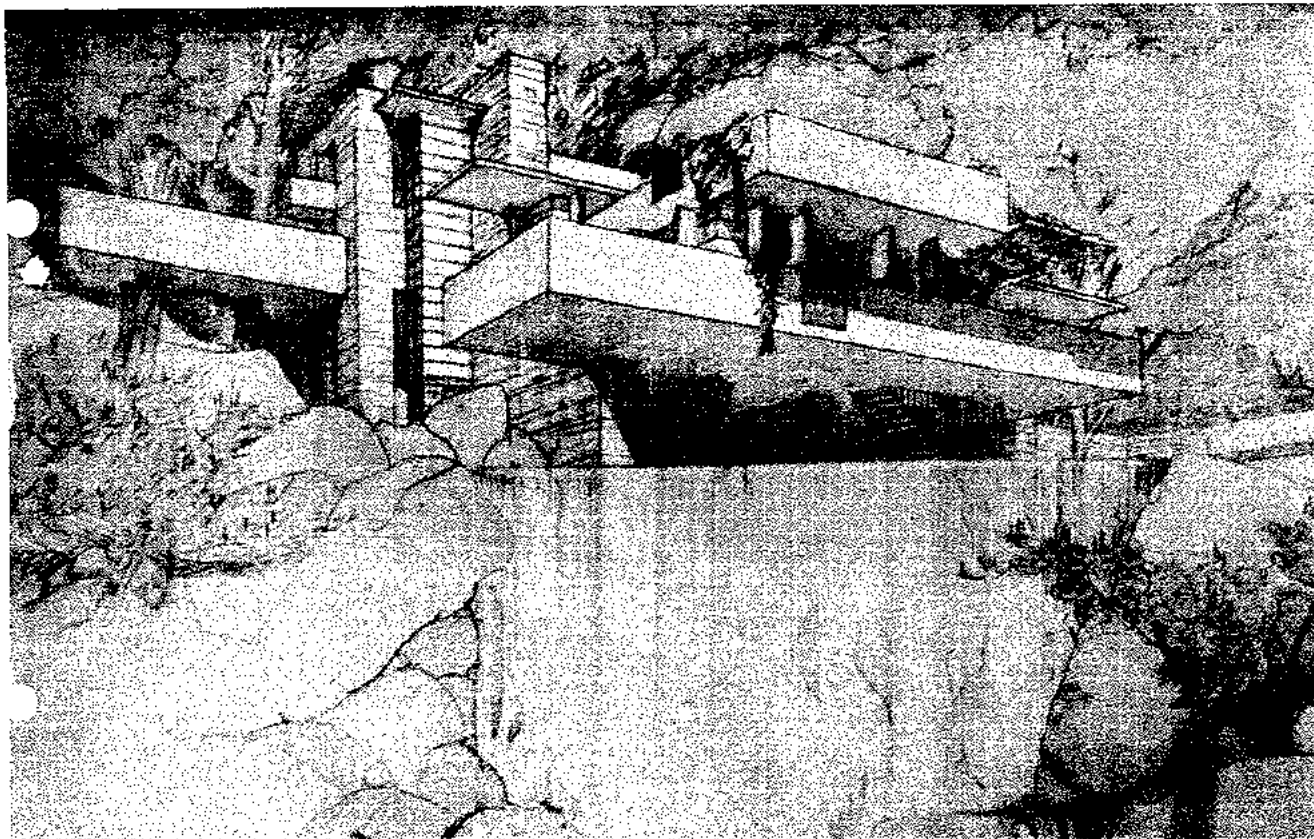
이러한 고난과 고뇌의 시기를 지난 30년대에 그는 다시 글세기 초처럼 그는 그의 탐구를 통한 그 자신의 신선한 걸작들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이 두번째 황금기의 첫 작품이 펜실바니아의 커넬스빌에 세워진 카우프만 하우스(넬리 낙수장 이라고 불리워 졌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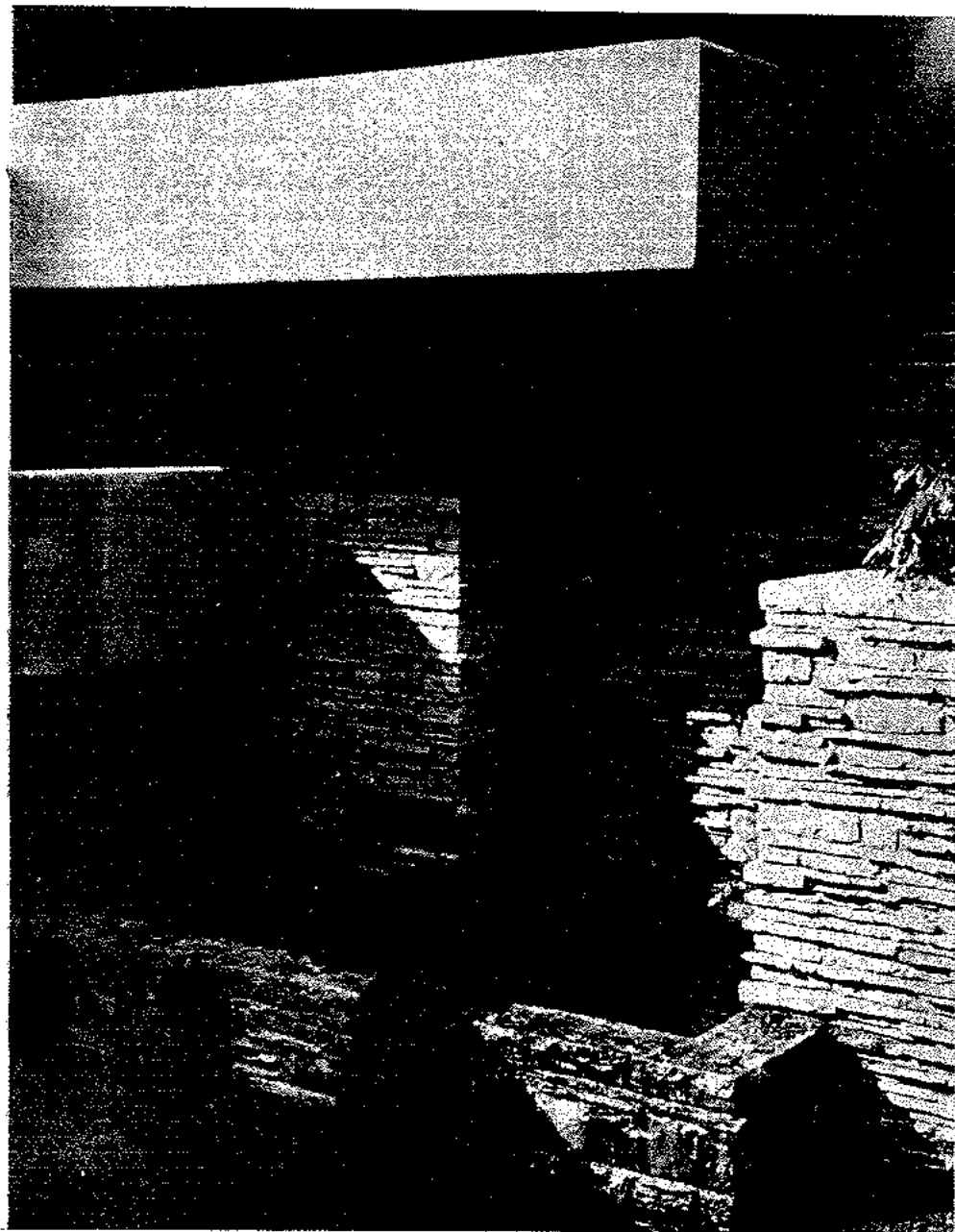
낙수장은 모든 의미에서(의미론적으로도 그렇고 시각적 언어에서도 그러하며 구조적 및 기능적 해석에서도 그렇다.) 캔디레버구조다. 추상적 구성의 각면들의 교차와 그들이 이루는 사각의 환회는 평면의 자유스런 분할과 자연(여기서 자연은 수직면으로 이해되어있어) 및 구조에 깊이 연결되어있다. 안에서 내부의 통로들은 바위에 참으로 고정된채 바깥으로 열려가며 팽팽한 콩크리트는 서로의 구획을 뚜렷히 하고 거친 돌면의 얇은 면들과 상응되어 있다. 튀어나온 슬라브(슬라브가 한 기능들을 암시한다)들은 수직의 석면과 교차에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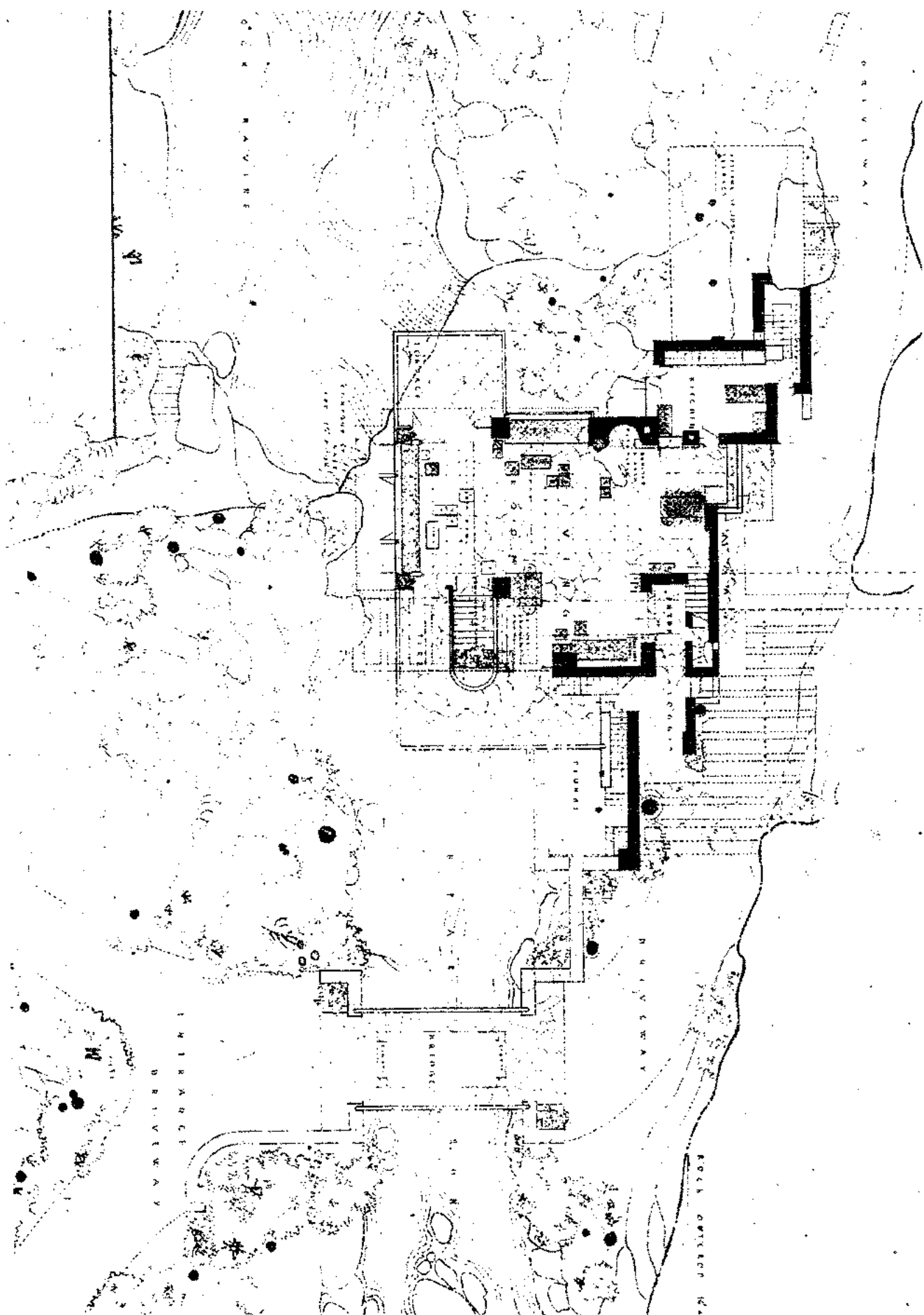
낙수장은 그의 인터내셔널스타일의 다음단계 즉 그의 작품이 미국과 유럽의 상호교류로서 다시 각광을 받았던 단계를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가장 첨단적인 구조의 모험과 완벽히 이루어진 자연의 흐름이 주는 자연-인간의 한 드라마를 이룩한 낙수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 예술의 한 정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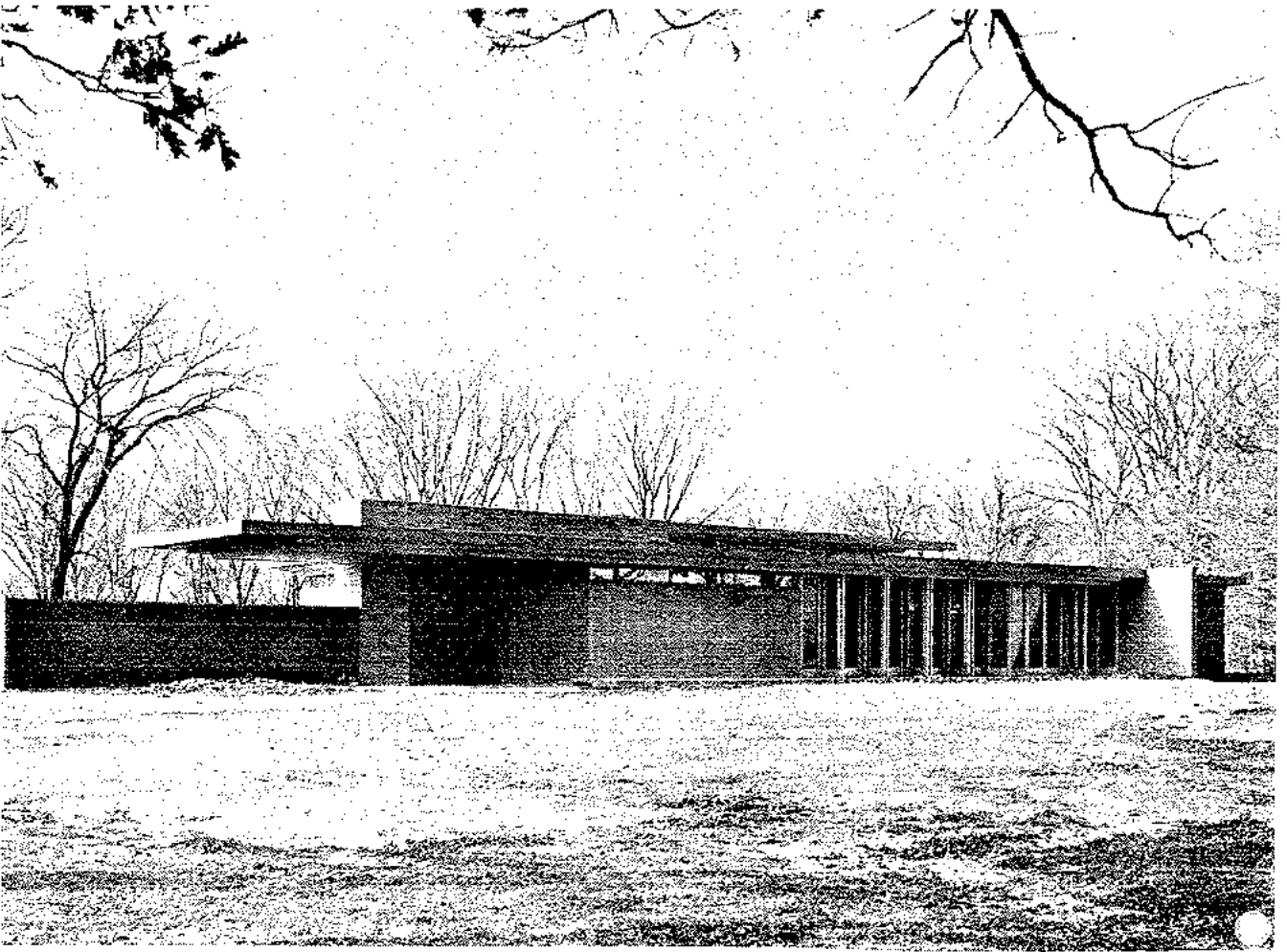
이것은 미국과 유럽을 종합시킨 것에서 나아가 와이트가 마야의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수평 그늘면의 상징 즉 회화적 효과보다 구조와 공간의 집합적인 창조의 형식을 드디어 다시 창조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Kaufmann House. From be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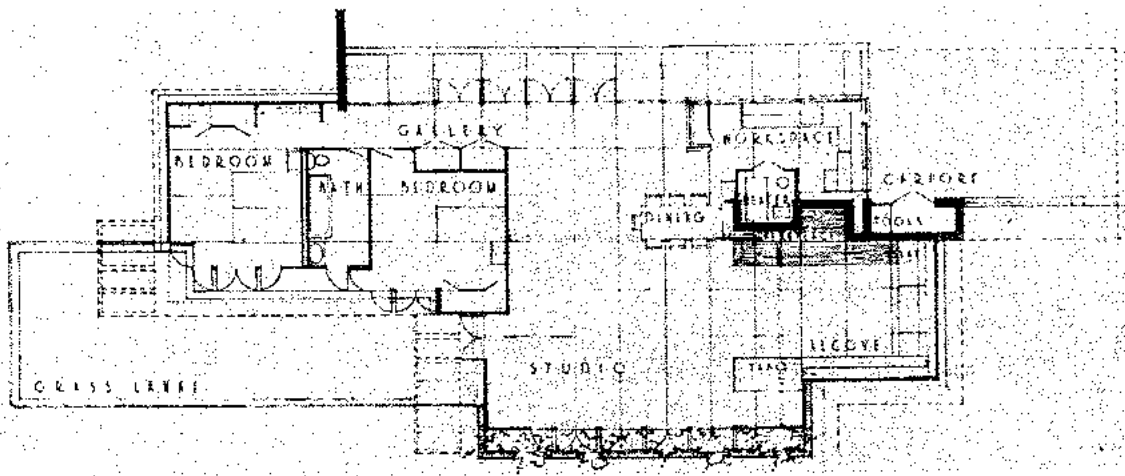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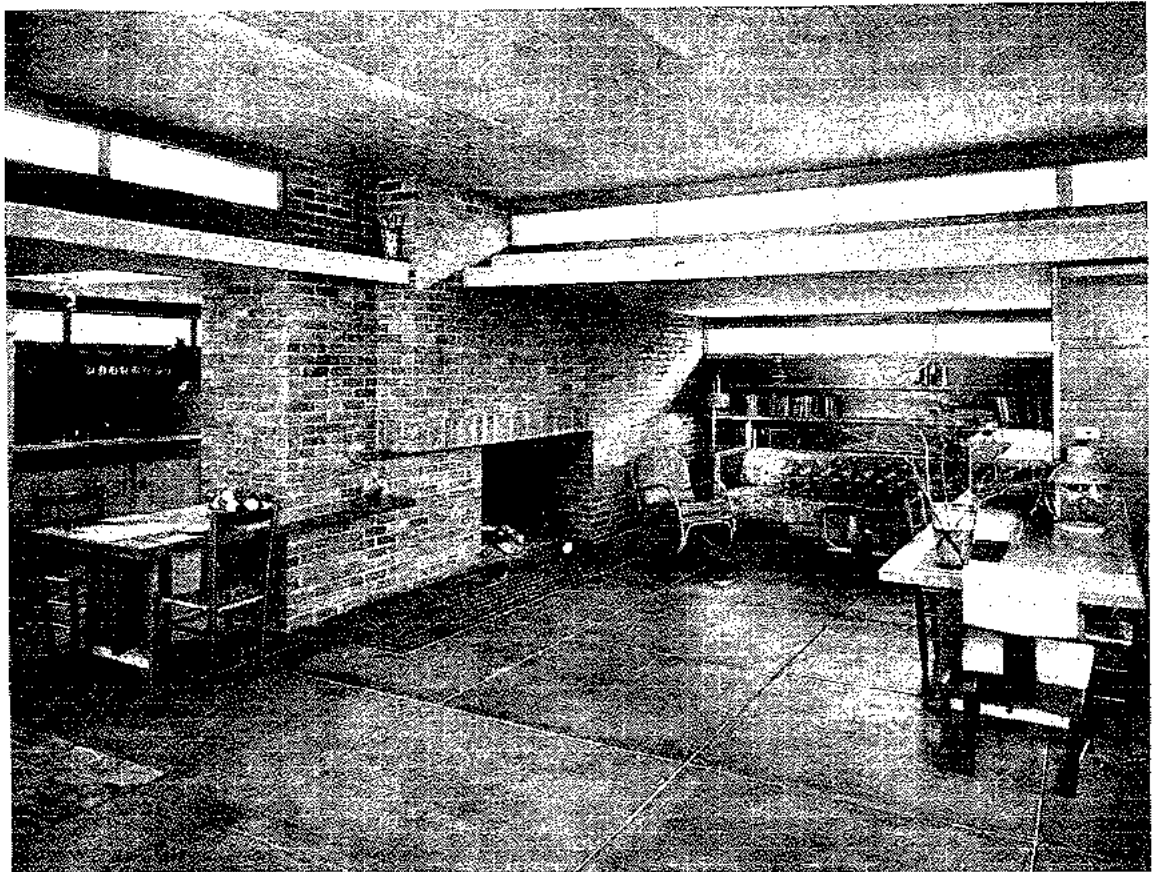
Goetsch-Winkler House, Okemos, Michigan, 1939. Entrance Front.

낙수장이후 와이트 킴실의 '끼리'를 집의 전체속에 화합시키는 문제에 몰두하였다. 이런 시도의 하나가 소위 와이트 'reflex' 라고 부르는 8각의 모듈을 갖는다. 이러한 추구는 HANNA HOUSE에서 더욱 유동적인 공간을 이루었으며 나아가 와이트의 끊임없는 추구인 'eternal becoming'의 새로운 전기를 이루었다. 여기서 외부의 광선은 더욱 풍부해지며 조각적인 모습을 띄고있다. 확실히 야콥스나 HANNA HOUSE 이후 형태요소로서의 module의 사용에 대한 집념은 더욱 강해졌으나 이제적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모든 이런 공간의 연속과 추상에 대한 실험을 하던서도 와이트는 언제나 四角 module을 포기하지 않았다. 게츠 · 빙클러 하우스는 그러한 와이트의 창작과정의 한 계기를 이루는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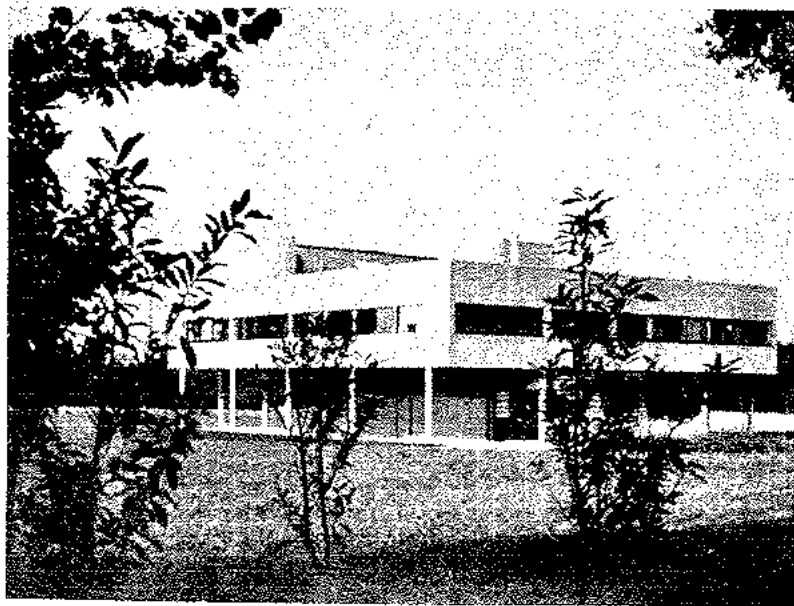


Goetsch-Winkler House. Plan.

여기서 침실부분을 입구쪽에 비껴놓으므로써 (항상 화이트는 침실을 동선축상의 좌우에 두어 왔다) 리빙룸의 평면적 연속을 침실속까지 유지시키고있다.
이 집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르셀로나 페빌리언과 유사하나 그 내부공간의 내용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띄고있다. 화이트의 입체는 언제나 그렇듯이 속이 가득찬듯 하면서도 그의 깊은 고려인 빈 내부공간의 암시가 사방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Goetsch-Winkler House. Living Room.



사보이하우스→ 쁘와시(빠리교외) 1951 르 꼴뷔제

구조, 최소한의 bearing point를 갖는
철근 콘크리트 構造, 上部構造의 모든
荷重은 철근 콘크리트 pier위의 독립
기초가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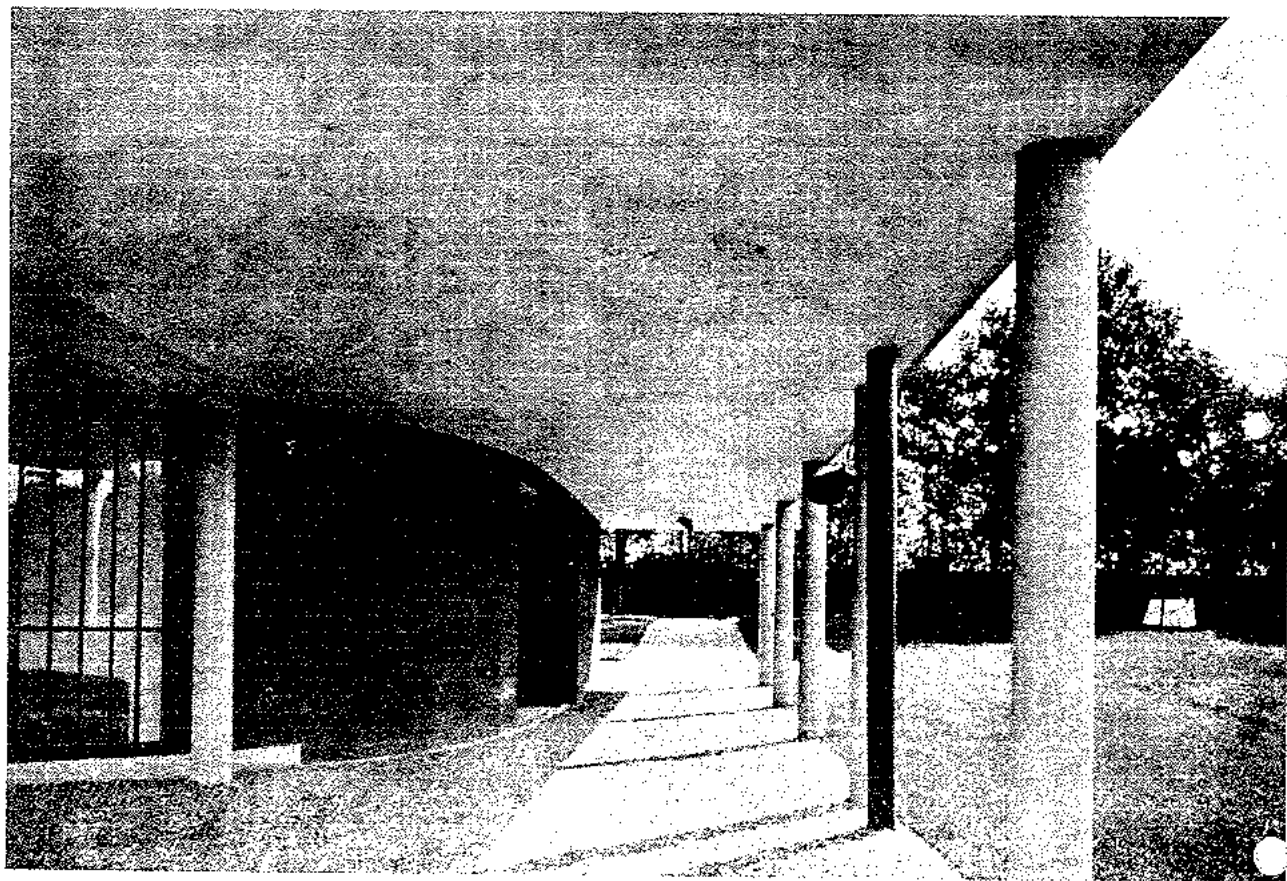
벽, brick과 breeze block 으로 매웠다.

바닥, hollow tile 위를 硃石과 리놀
륨으로 마루를 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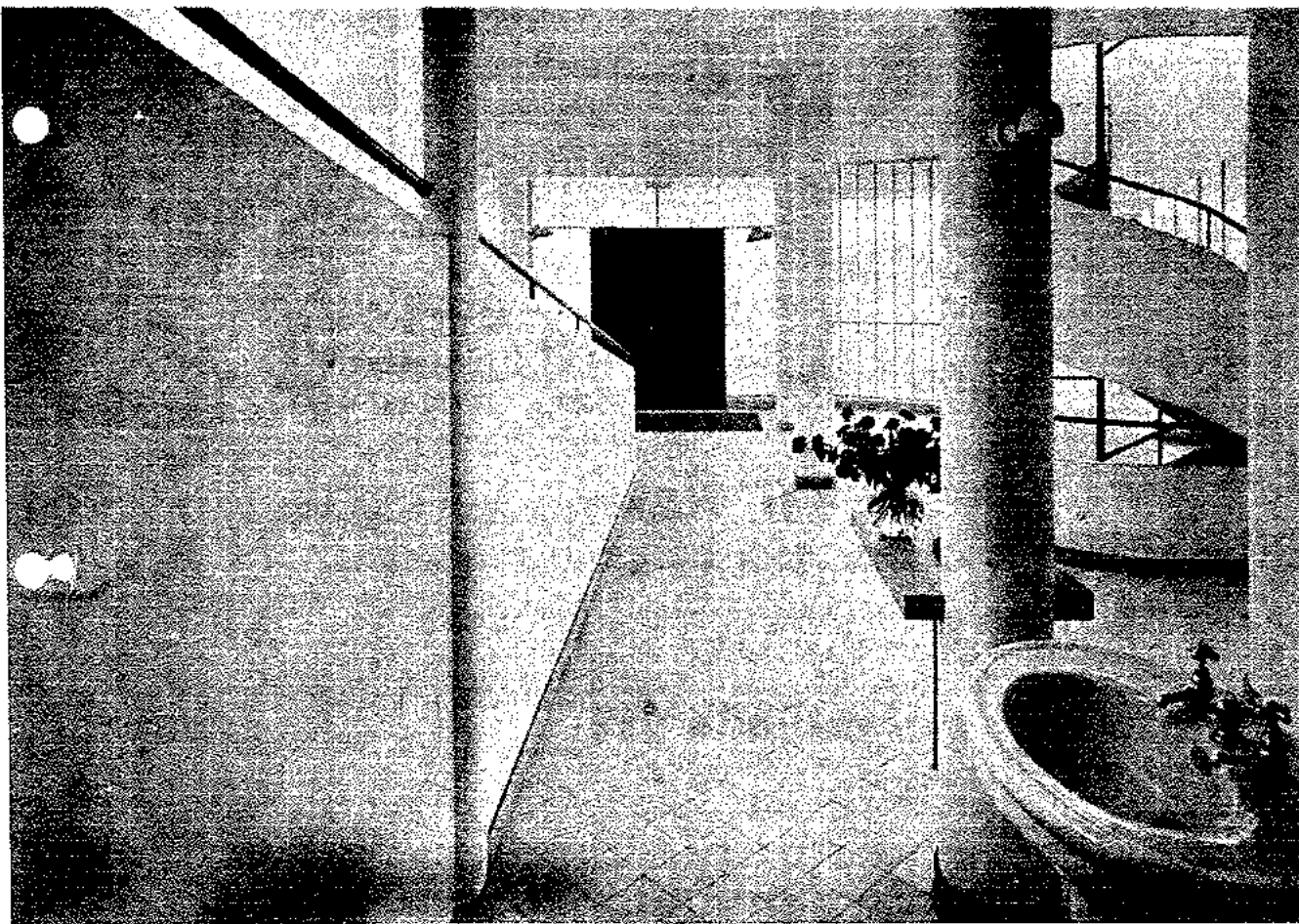
문, 후 베니어 민판 플러시 도어
창, 목재 미서기문, 고정창이나 리빙룸
부분은 금속 프레임이다.

난방, 온수난방, 방열기, 리빙룸의
오픈 화이어플레이스

리빙룸은 일련의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의해서 받혀진 첫층(2층)에
있다. 입구홀, 계러지, 세탁실 그리고 하안들의 방이 저층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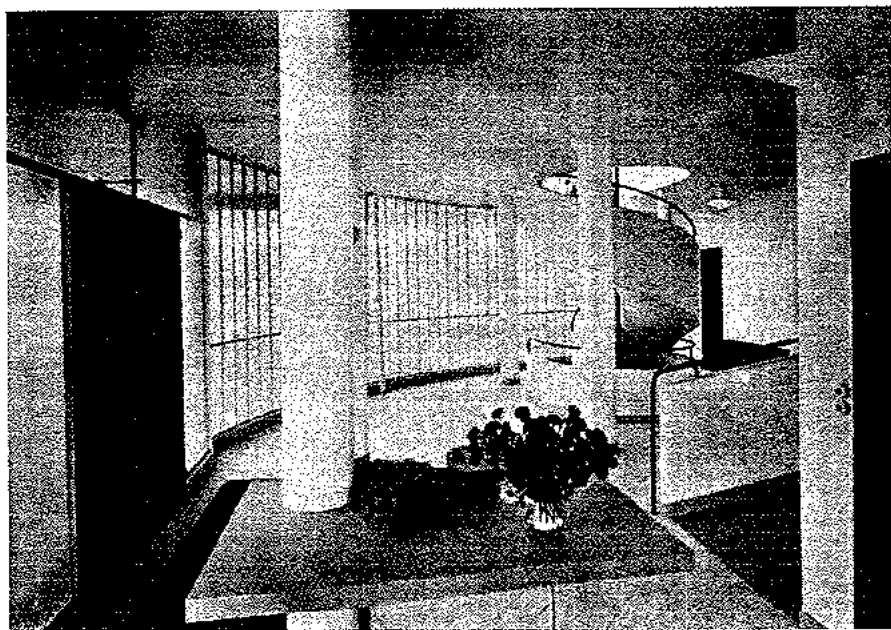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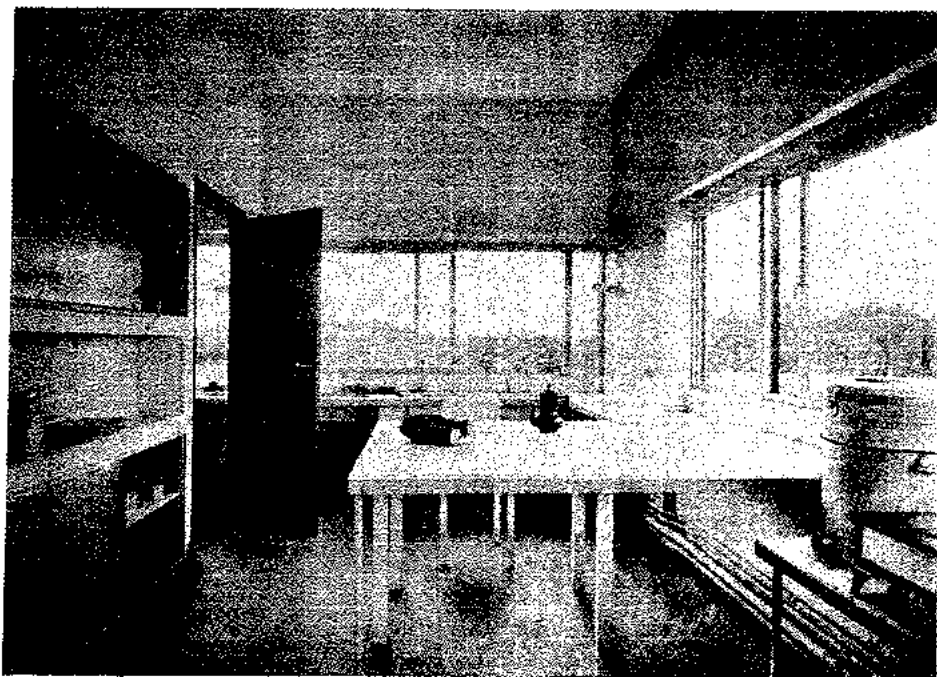
차고입구, 입구홀의 유리벽이 좌측 끝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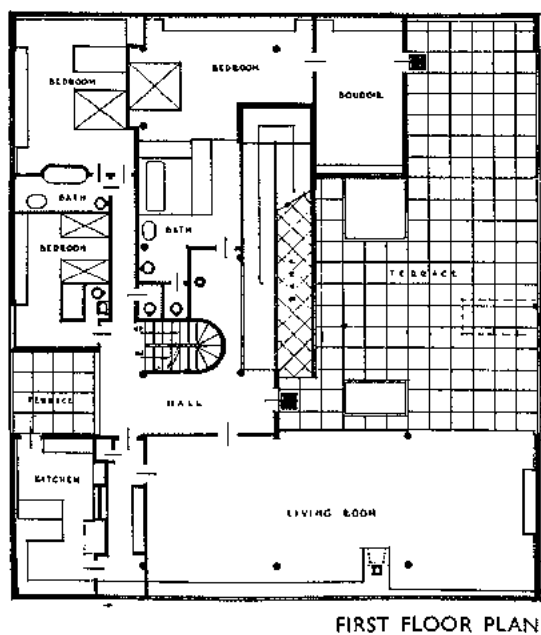
입구홀 : 첫층으로 가는 램프가 좌측에 있다.

입구홀 : 첫층에 이르는 변화 앞쪽에 램프가 있고 뒷쪽에 개방된 나선형 계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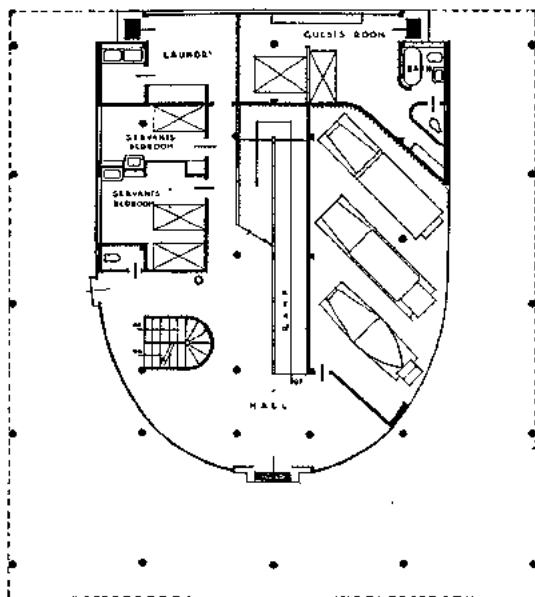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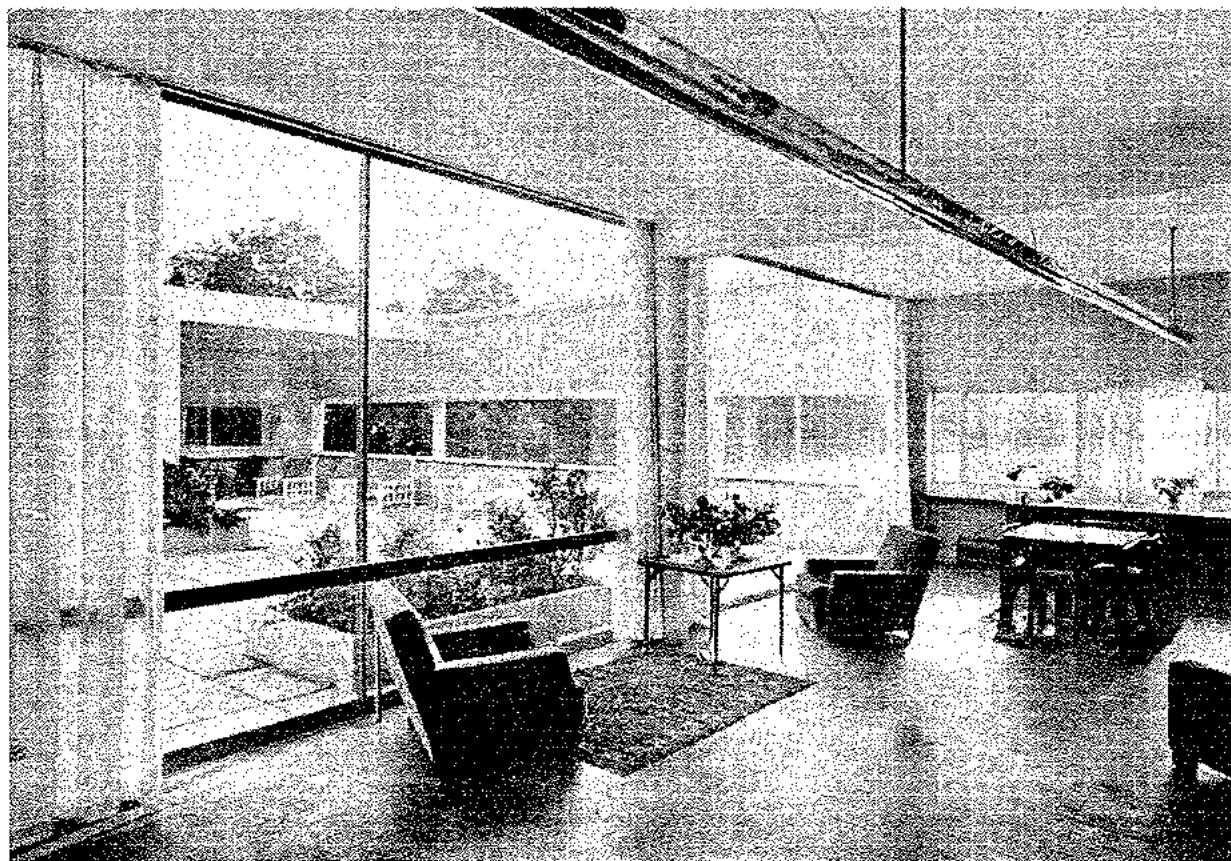
첫층의 부엌, 좌측의 문은 식
사테이블 면의 팬추리를 지
나 리빙룸으로 통한다. 테이블
면과 다리는 흰색 빛나는
타일. 만들어진 조립가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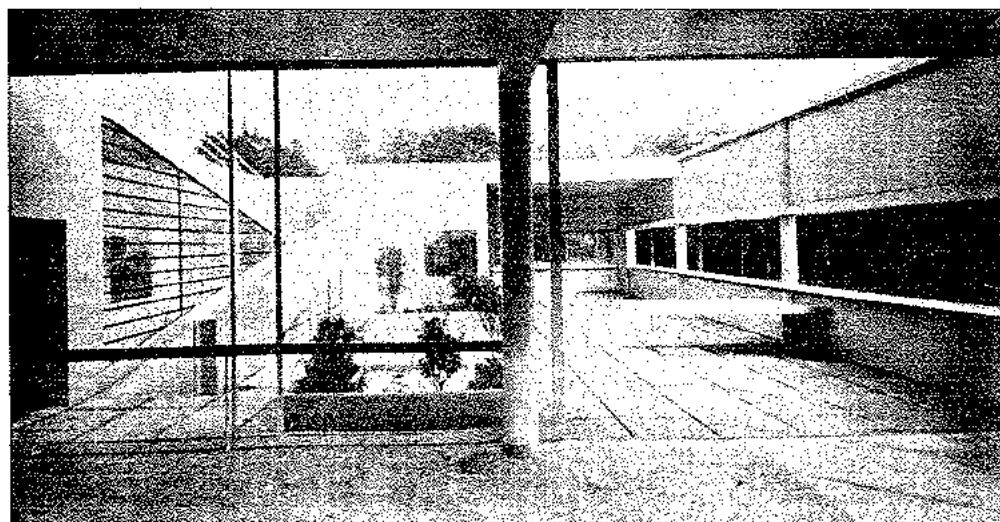
FIRST FLOOR PLAN



GROU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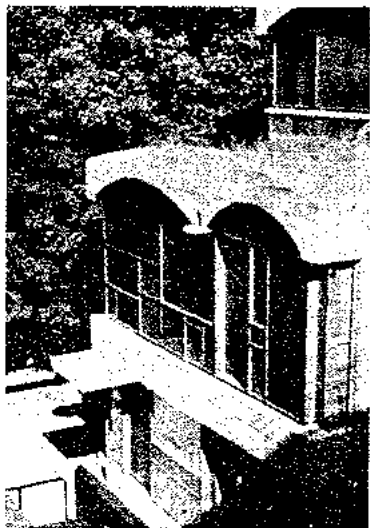


리빙룸 : 테라스의 유리없는 개구부들의 연속이 밖으로 밀려와 있다.
 천정의 간접 조명대는 홀라인의 소프트웨어를 연상시킨다.
 첫층테라스 : 좌측에 내지(자연)으로부터 옥상정원(人工자연)에 이르는 램프가 보이고 우측에 먼 자연을 윤곽지우는 개구부가 연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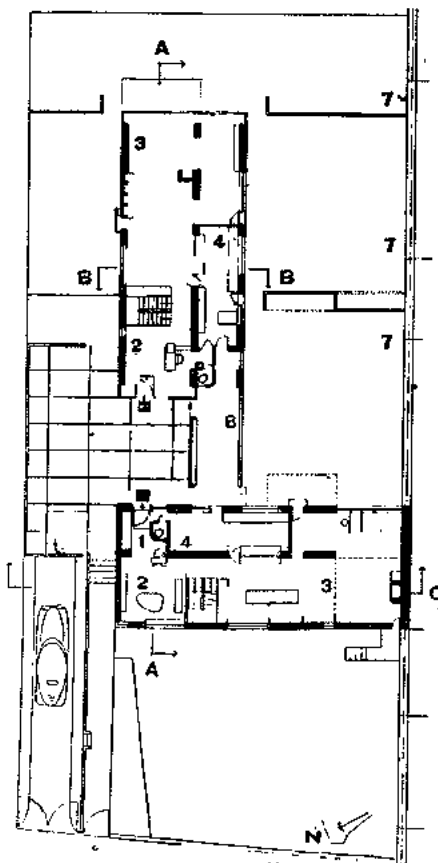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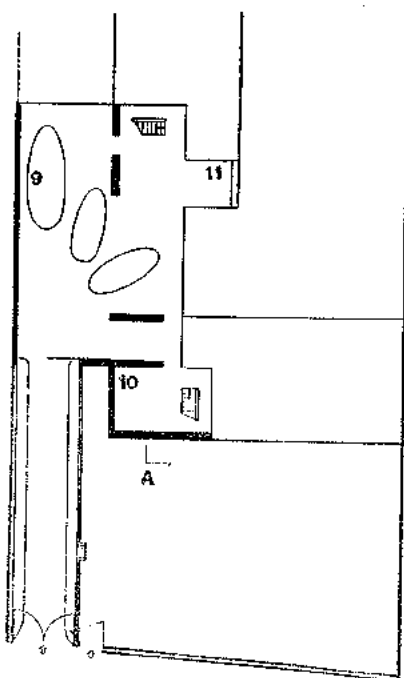


두집이 서로 한 부지안에 적각으로 서 있다. 공동의 입구에서 한 램프는 개리지로 내려가고 다른 한 램프는 입구 앞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다. 두집은 각각 벽으로 분리된 독립한 두 정원을 갖고 있다. 하수구는 벽밀의 두 채널과 보울트의 궁륭에 모여있고 이들 채널은 동시에 온수와 냉수, 전기와 전화선을 포함한다. 모든 전기선은 뱀관 바로 위의 아우트레트로부터 끌어진다.



자울의 집 (매종 자울) 닐리쉬르세느 1956 르 끌뷔제

구조, 솔리드 브릭과 타일이 부쳐진 콘크리트 보울트 지붕은 잔디로 덮여있다. 빔은 불규칙한 개구부위의 보울트하중을 분산시키는 크고 거친 콘크리트 부재다. 모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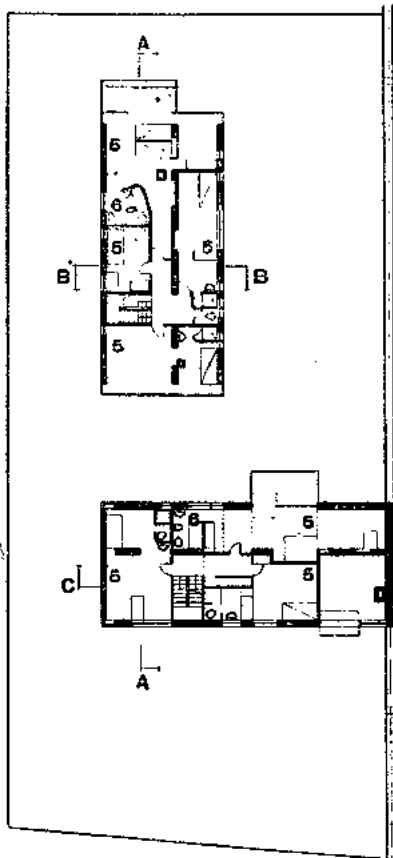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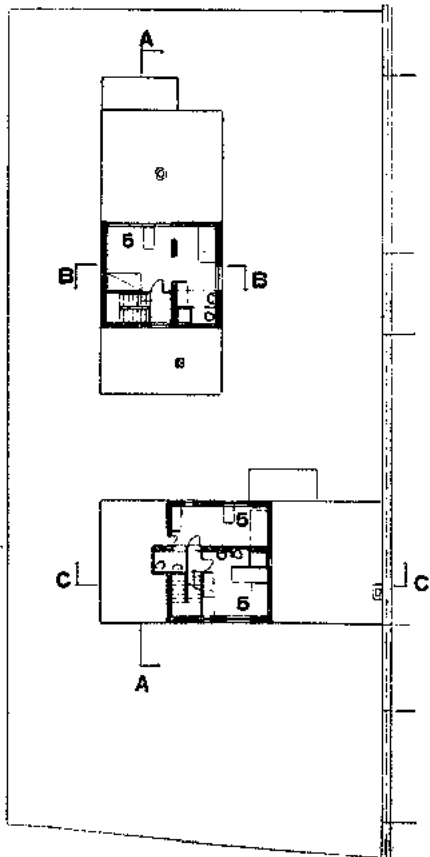
1. 입구홀
- 2& 3. 리빙 룸
4. 부엌
5. 침실
6. 욕실
7. 정원
8. 부엌마당
9. 차고
- 10& 11. 첫층으로 가는 계단

지층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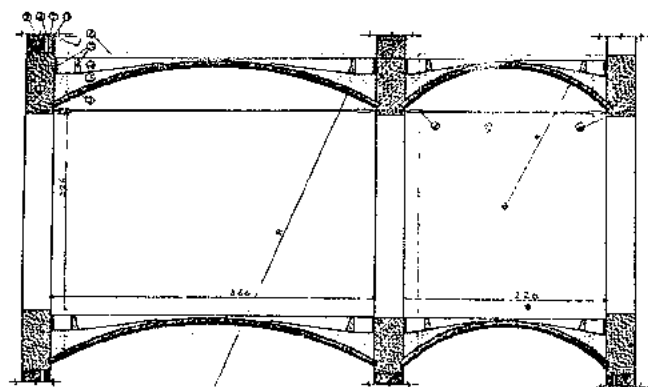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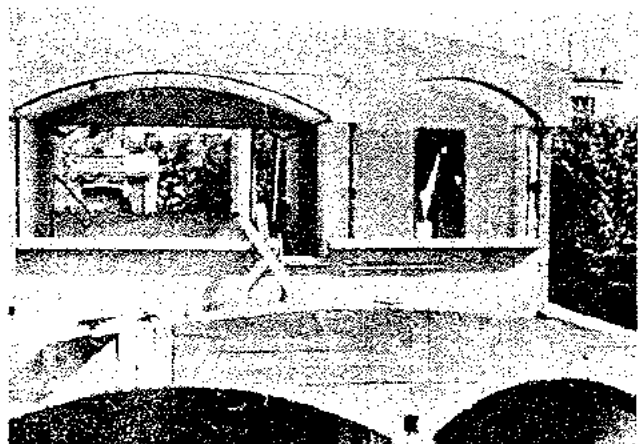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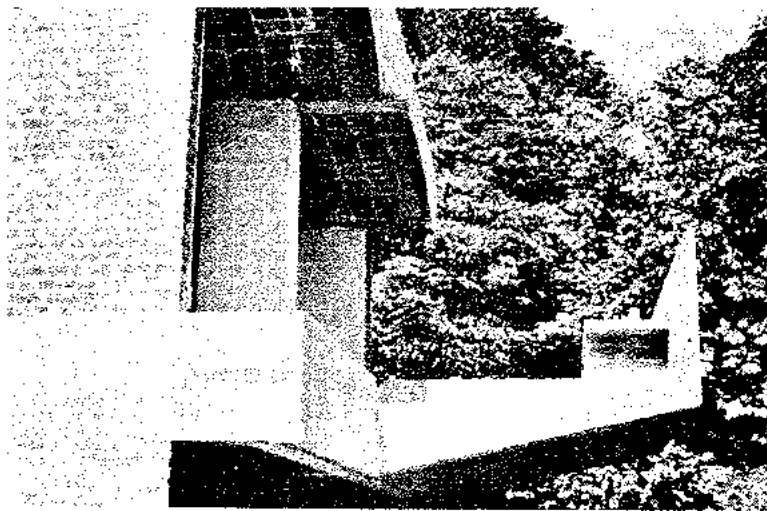
지하실 평면



첫층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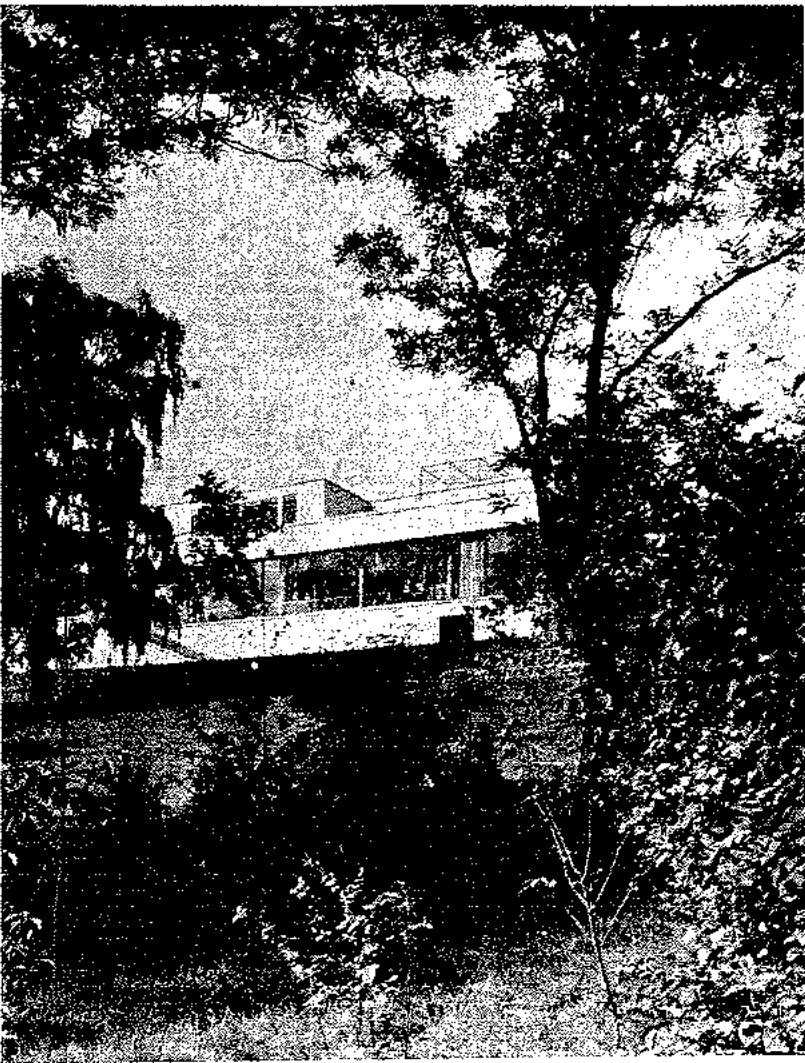


윗층평면



첫층과 윗층 보울트의 단면

가 기본적인 것수에 쓰여지고 있다. 스판
226cm : (183×2)cm, 보울트 아랫부분까지
의 높이 226cm, 바닥과 보울트는 타일 마감
이다.



투겐드하트하우스
브린 1930
미스 환 델 로에

구조,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5m 간격의 철주, 내부기둥은 크롬 브론즈셀.

벽, 벽돌판벽, 브론즈후레임과강화유리 칸막이, 식사공간은 반원의 베니아판으로 막아져 있다. 풀벌새의 문석칸막이로 리빙룸과 서재가 큰 공간속에서 구획되어 있다. 천정의 크로미움레일에 달린 겹거나 흰 펠베트의 커튼은 필요에 따라 방을 분할한다. 비슷한 커튼이 유리벽에 따라있다.

정원측에서 본 남측입면, 리빙룸의 판유리는 오른쪽의 온실 주위를 돌아 연속한다. 유리벽 위의 길이가 100ft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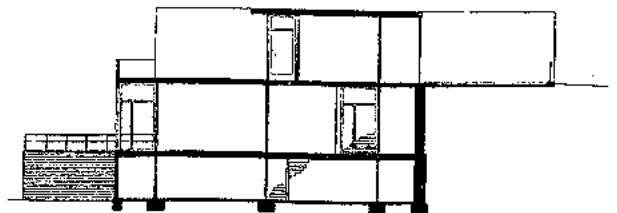
마감, 외부:시멘트처리, 내부:간결히 처리된 고가의 재료들, 억제된 색처리 황갈색, 회갈색모직, 녹색, 진주회색, 흰색, 흑색 그리고 오닉스 스퍼와 메커서 나무의 풍부한 자연색, 크롬기둥과 판유리의 찬란함.

지붕,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그리고 속이 빈 타일

바닥, 잉구테라스와 제단, 그리고 온실은 황색트라버틴, 리빙룸은 흰 리놀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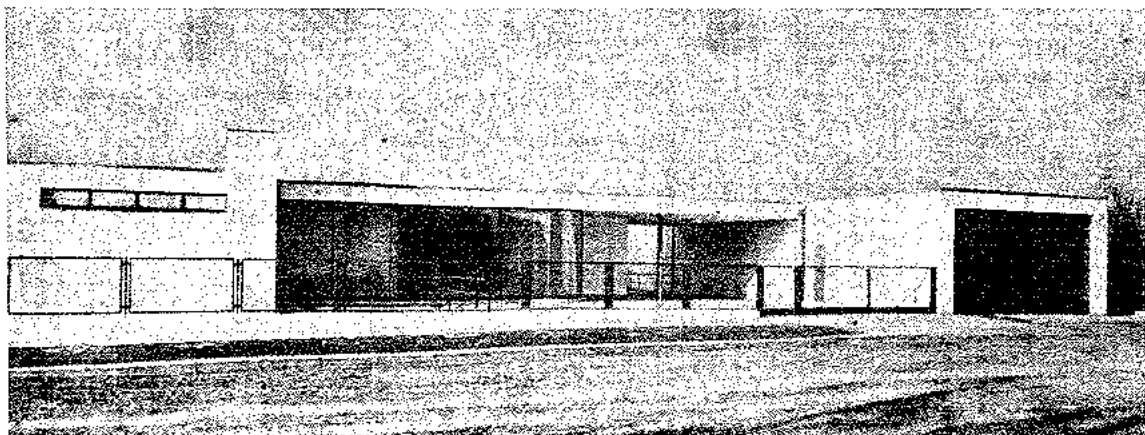
난방, 리빙룸은 온풍, 다른 방들은 온수난방

문, 메커서상아 베니아의 플랫쉬도어 창, 웨비스타철문, 리빙룸의 창(유리벽)은 아랫층에서 기제로 개폐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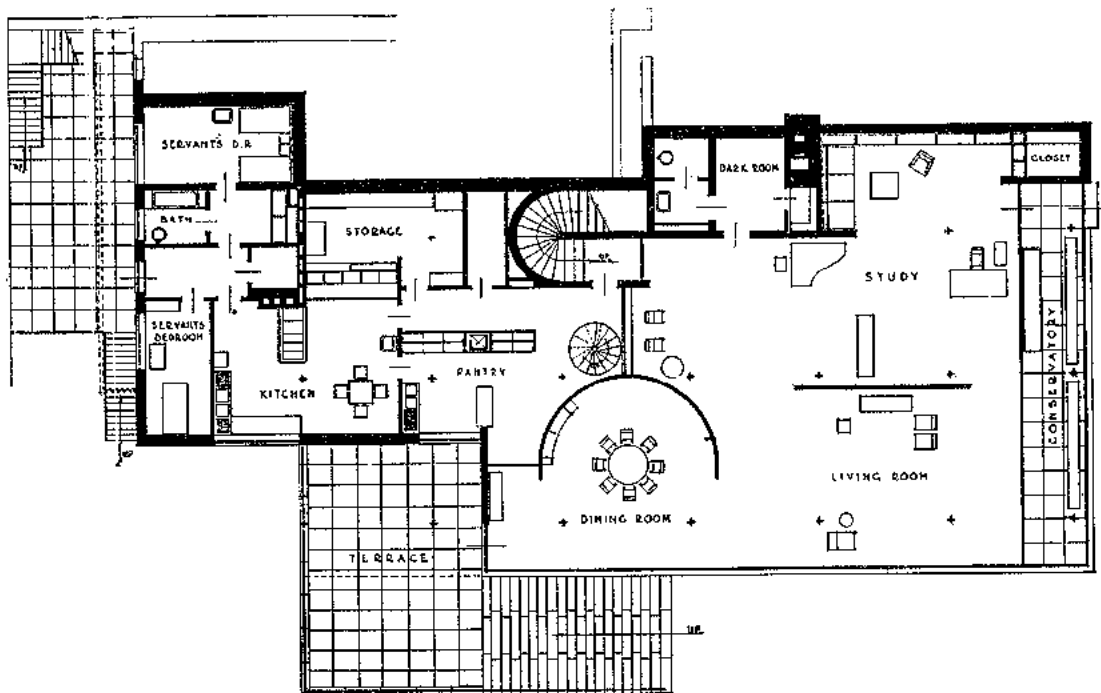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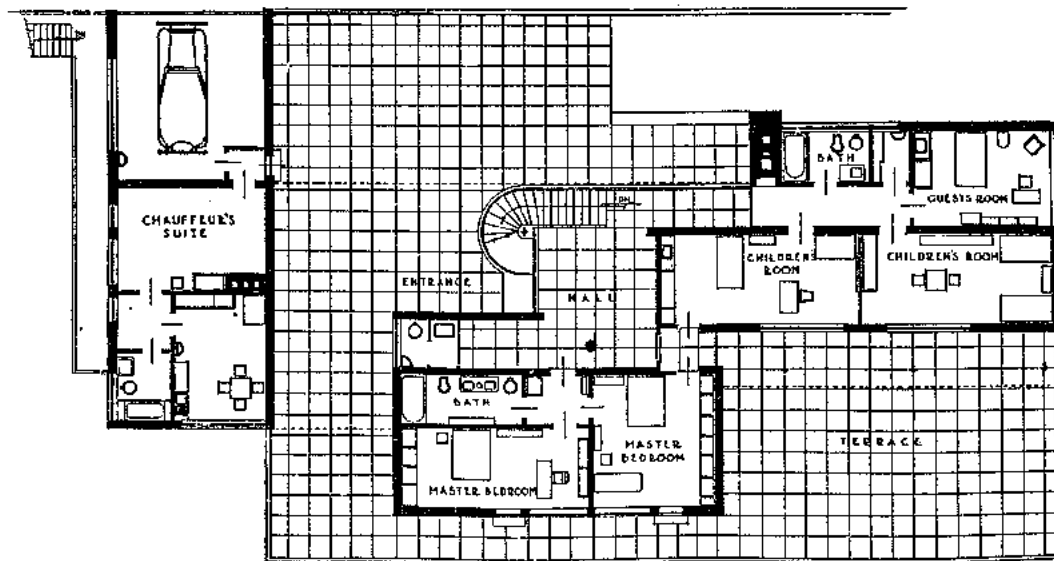
운실이 리실 끝에 이중의 빛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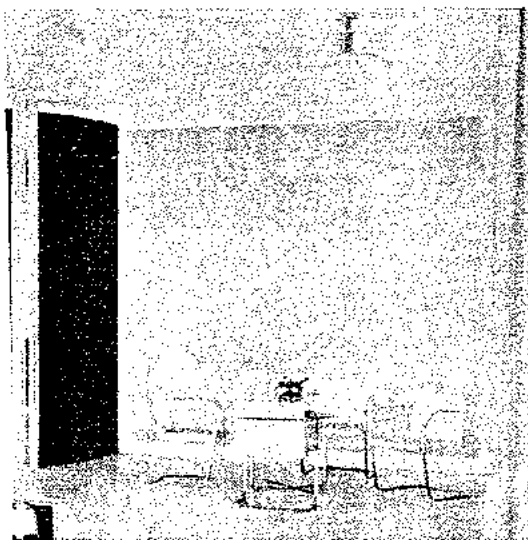
북측입면, 주출입구는 계단실측의 곡면인 유리벽 끝 너머에 있으며 차고와 집사이의 스파는 철근콘크리트 스파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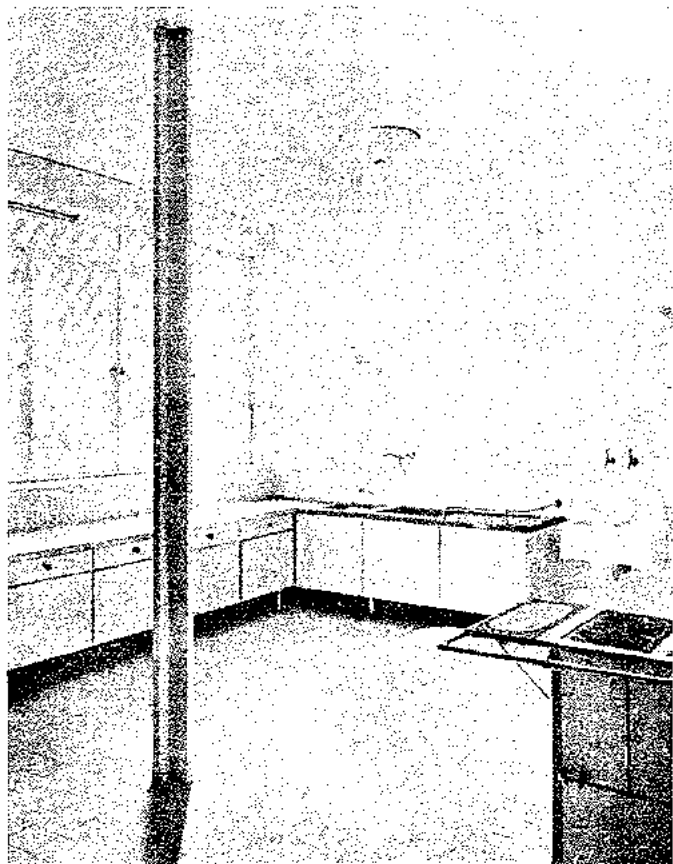
GROU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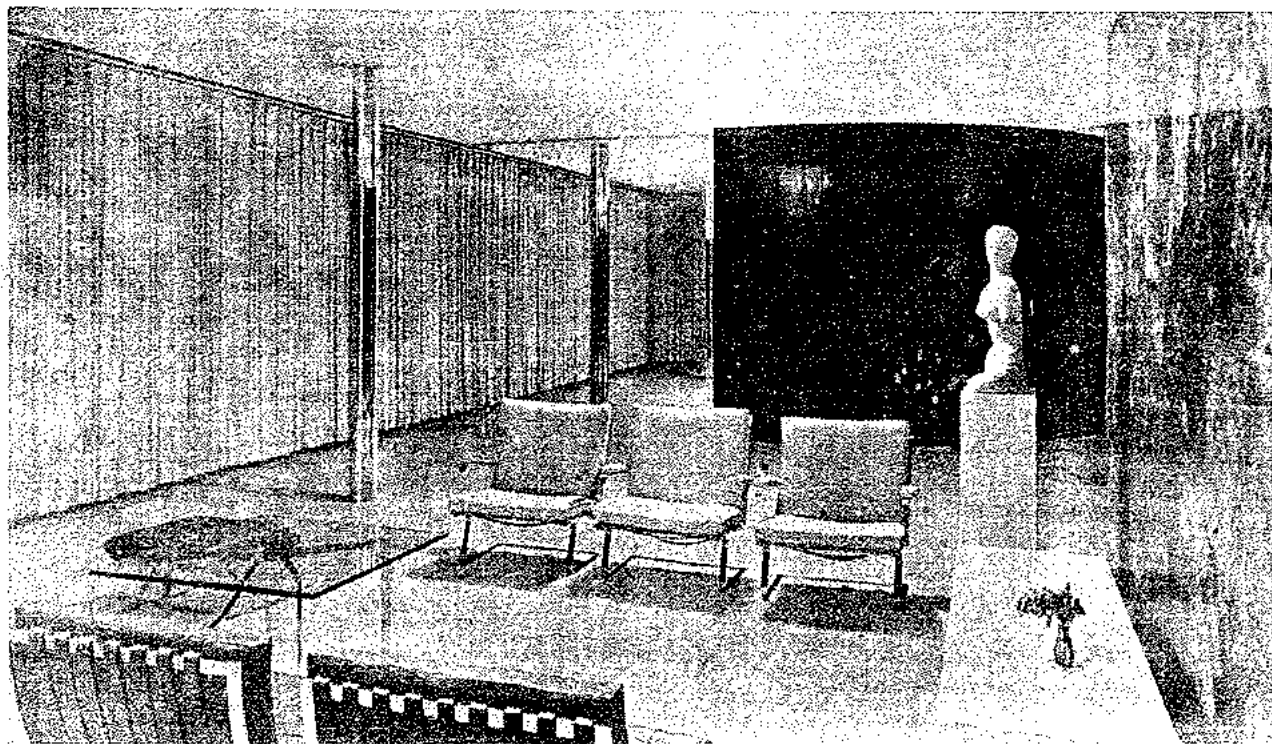
FIR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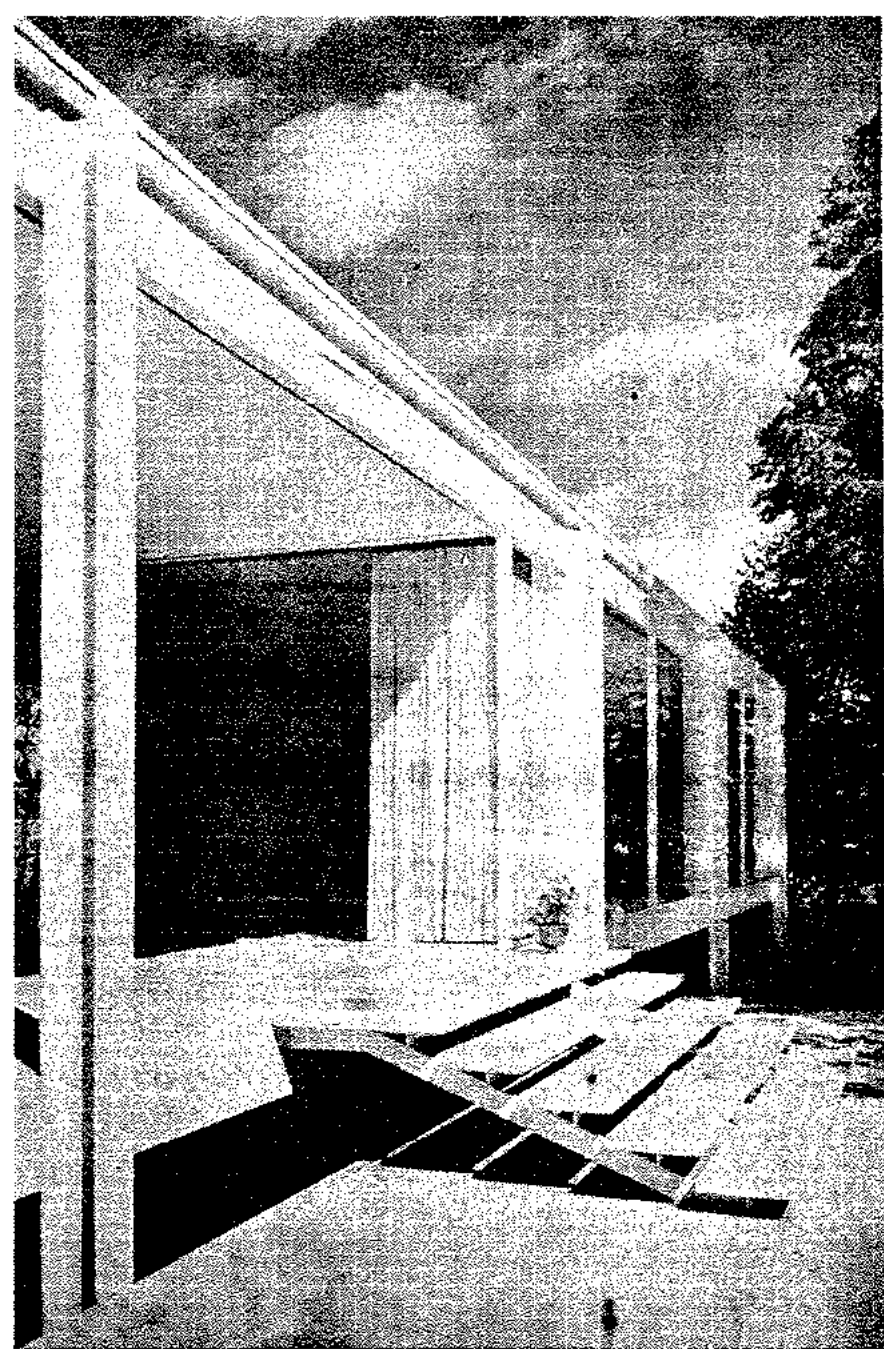


거실, 휘어진 나무 스크린 위에 카드 테이블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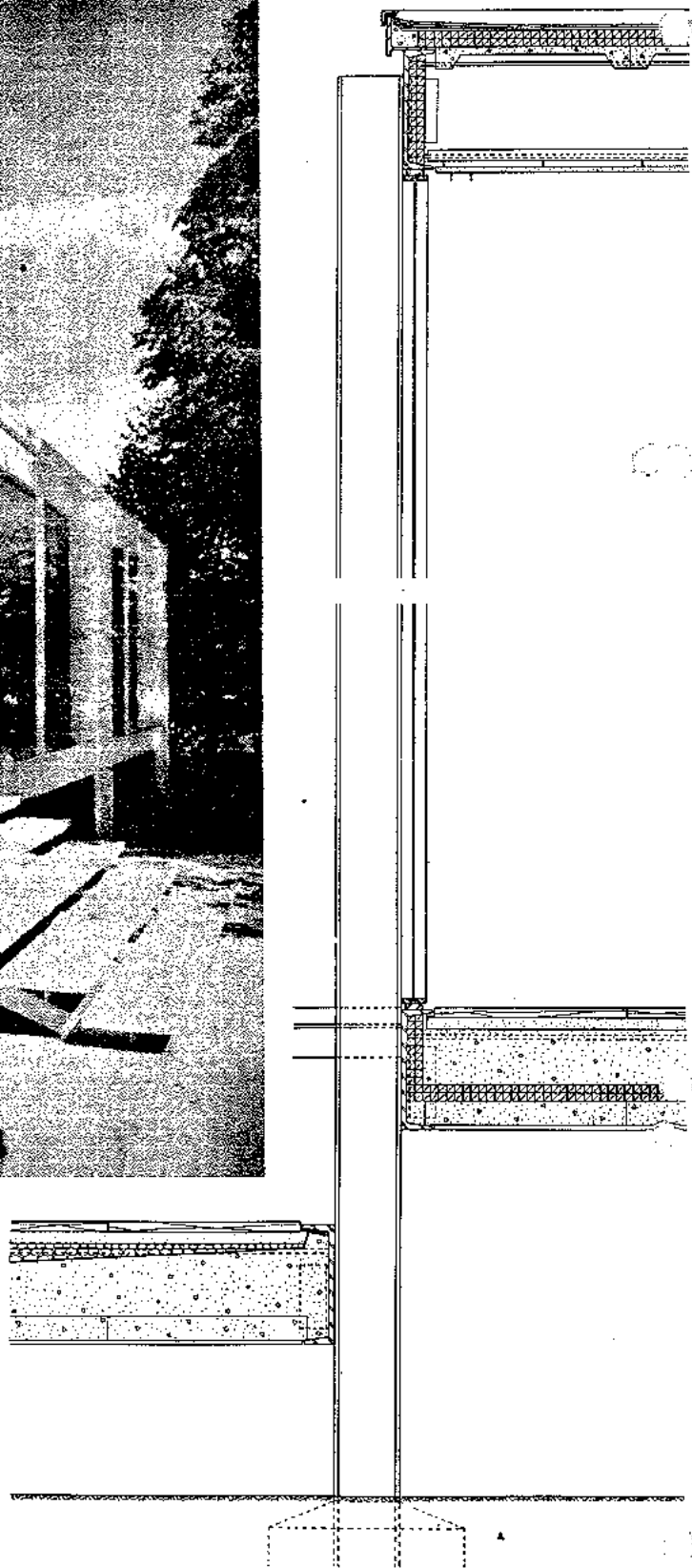


부엌·밤의 리빙룸, 바깥을 향한 유리 벽에 커튼이 내려져 있다. 가운데 뒤에 식사실을 이루는 캐리어판으로 된 스크린이 있다.





에디드 환스위스 박사의 이 집은 반치는 요소와 받쳐진 요소간의 거의 추상적인 연구다. 여덟 첩추가 바닥과 천정의 가에 용접되어 있다. 이 땅을 듯 밟 듯한 기둥들은 이집을 추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순수함은 집 전체의 화사하고 값비싼 재료들과 강하게 대비되어있다. 바닥은 이태리, 대리석(트라버틴), 비단커튼, 프리마베라의 가구들



환스워드 하우스

FARNSWORTH HOUSE

플래노, 일리노이즈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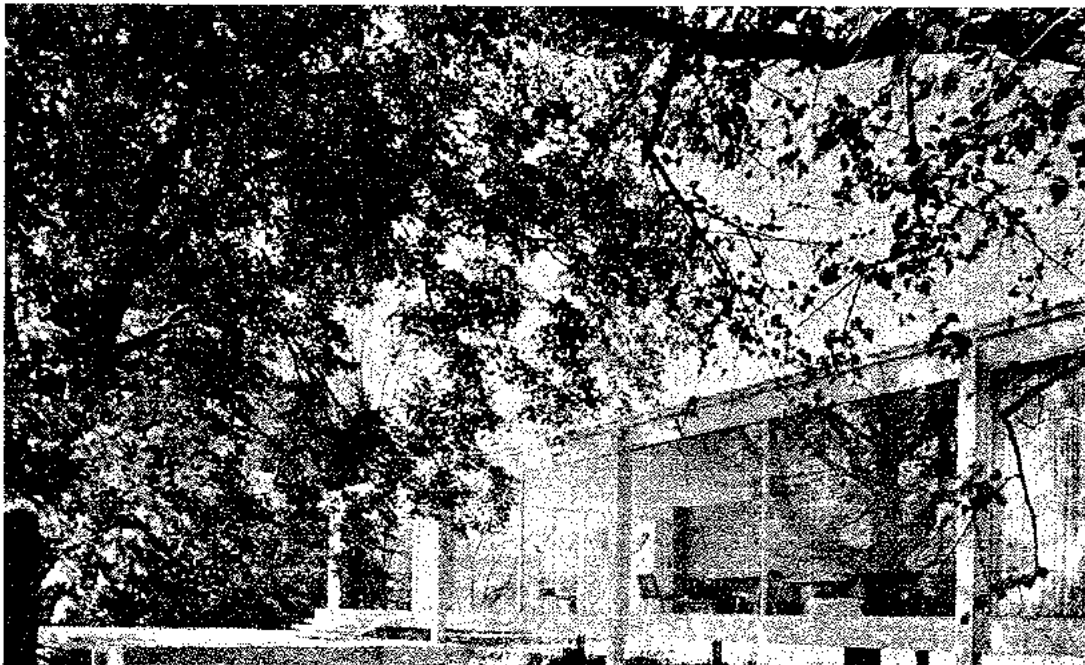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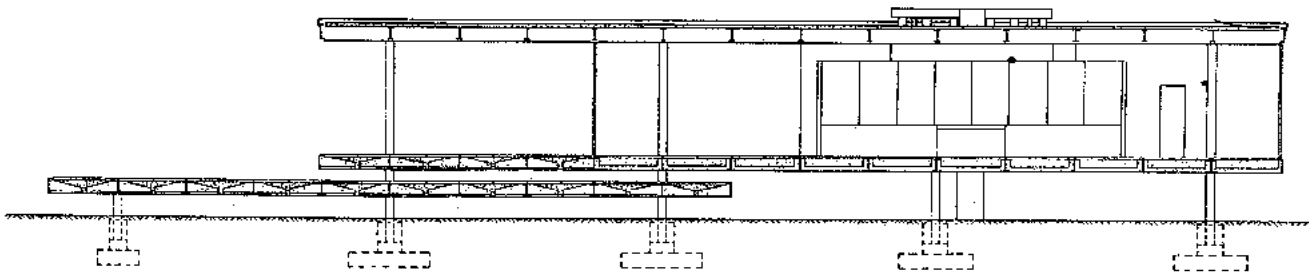
미스 환 델 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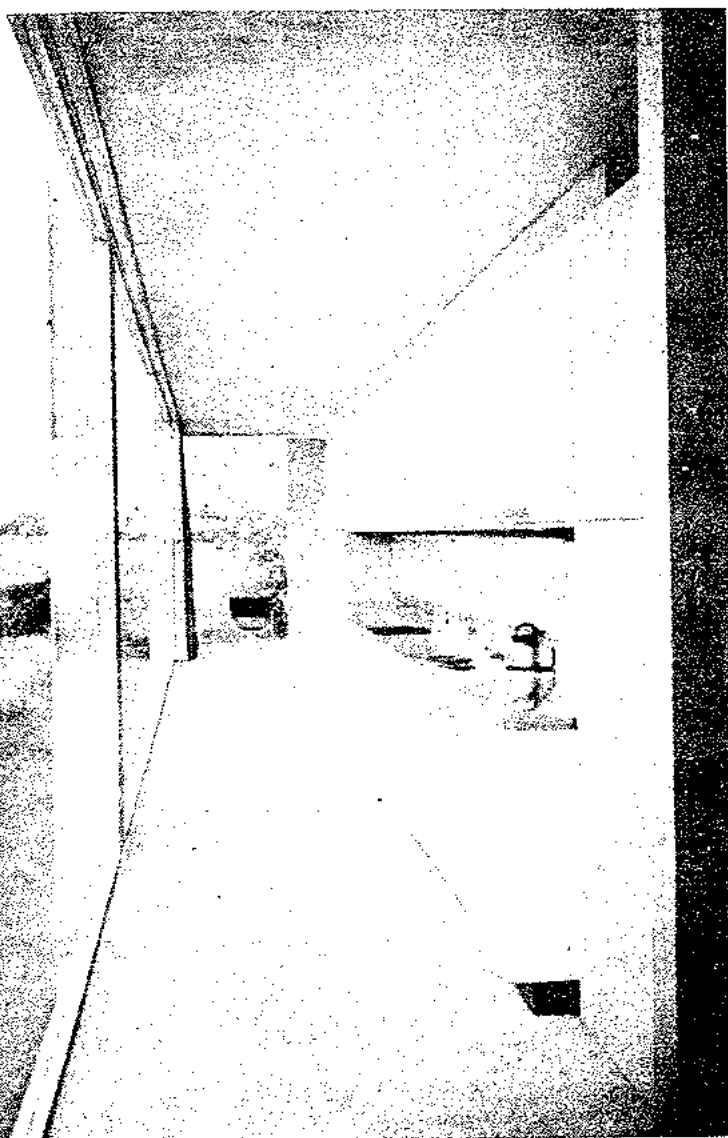
공간은 주어진 바닥과 천정의 두 수평면 사이를 흐르고 있다. 그 공간은 바닥에서 네개의 스텝을 거쳐 테라스로 나간다. 밖에 섰을때 공간은 실내로 흐르고 안에 서면 공간은 정원으로 흘러간다. 공간은 실내와 정원의 가를 따라 흐르며 바닥을 지나 몇개의 층을 거쳐 모든 불체와 장치들의 주위와 배후로 그리하여 드디어는 무한으로 펼쳐진다.

물질이 배제된 공간성이 집 전체를 지배하고있다. 외부공간의 부분이 된 내부공간의 공간성은 수직으로 뻗은 일종의 상징인 두 기둥에 의해서 암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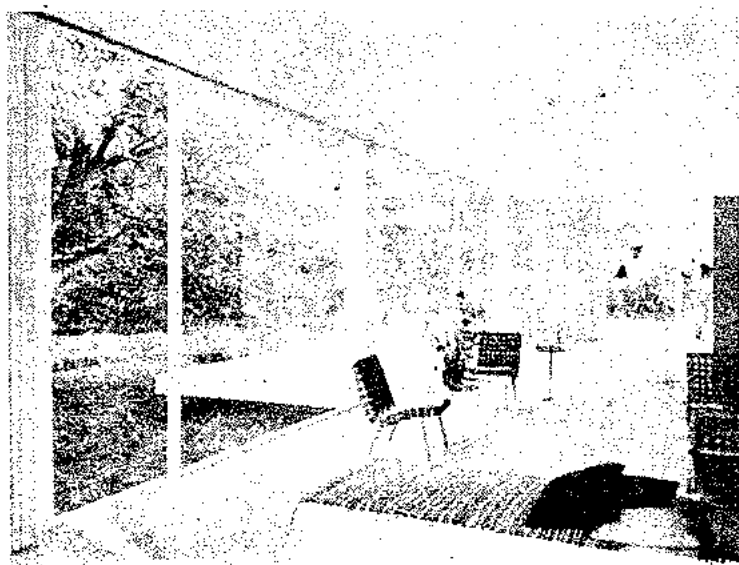
이들 기둥들의 시각적 기능은 무한 공간을 제어하고 그 속에 외부 공간의 부분으로서의 리듬을 주고 있다. 이 집의 주위에서 공간은 시점을 따라 유연하게 흐르고 있다. 이 효과는 상징적 구조의 추상성과 비 물질화된 재료의 사용에 의해 거의 극치에 도달하고 있다.

이 집은 현대건축의 한 속도다. 그는 건축을 그 본질로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노출된 구조체가 그대로 건축이 되는 한계까지 그 본질의 완전화를 추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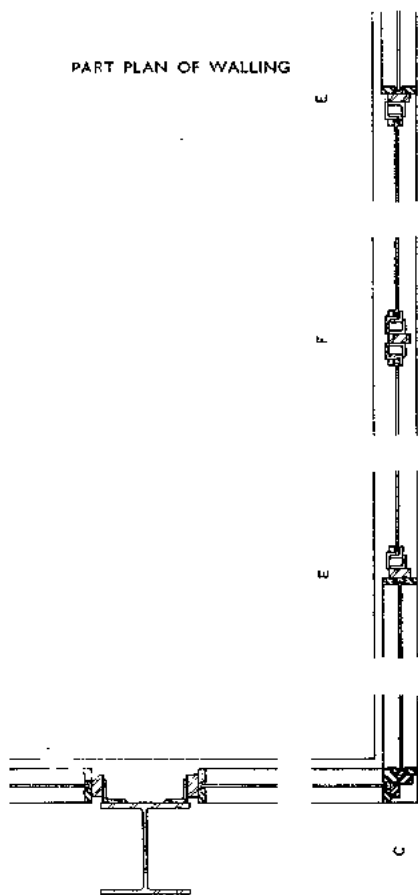




위: 부엌, 아래: 리빙룸 (부분). 노출철골은 흰 페인트 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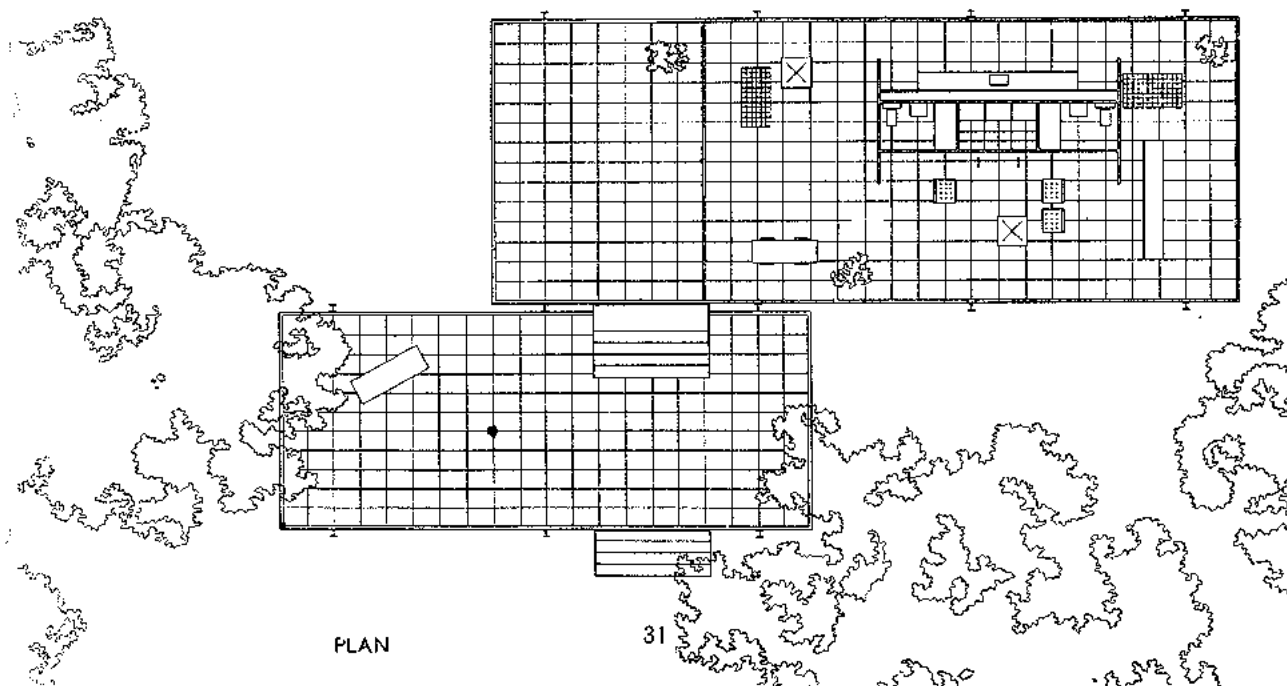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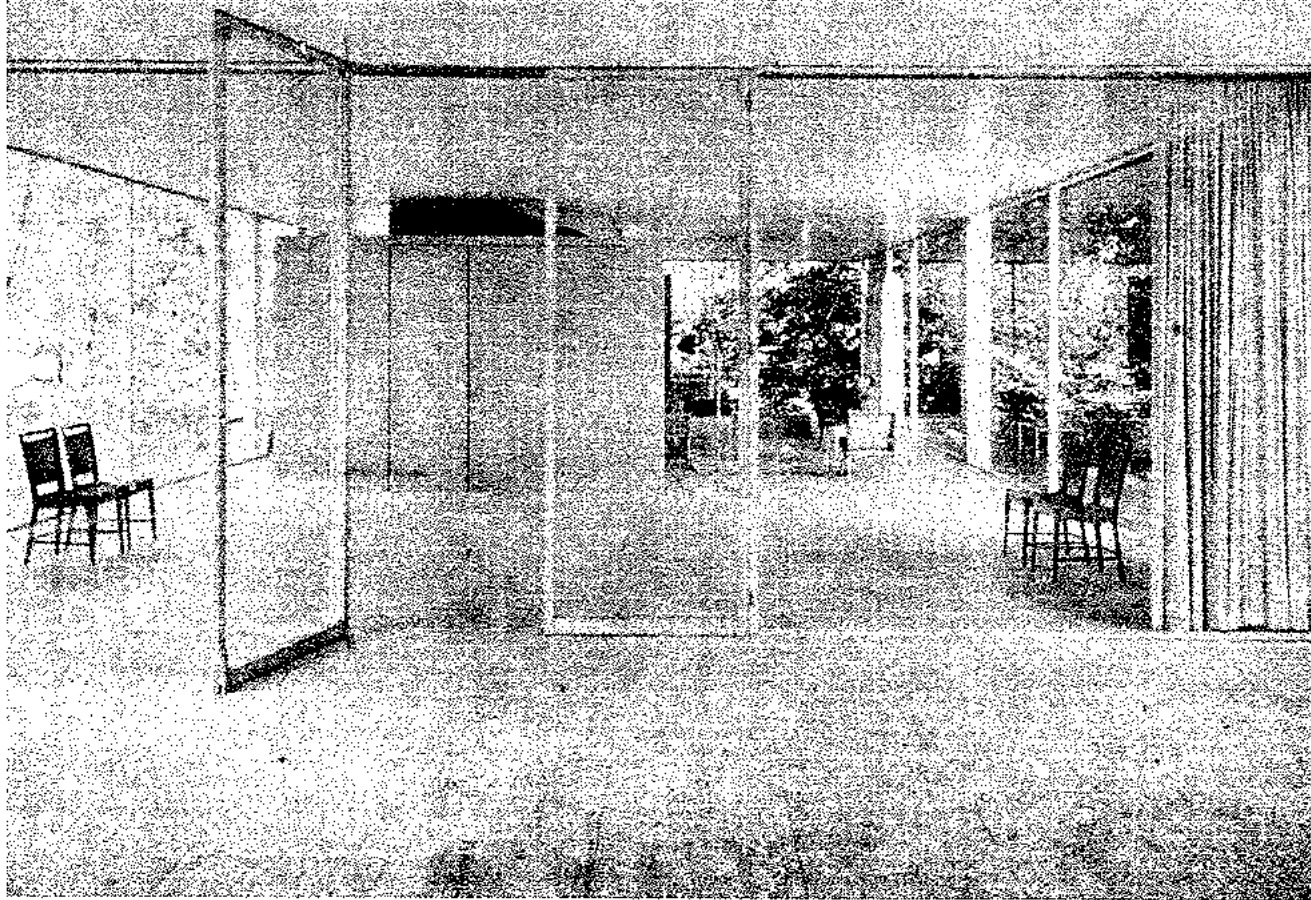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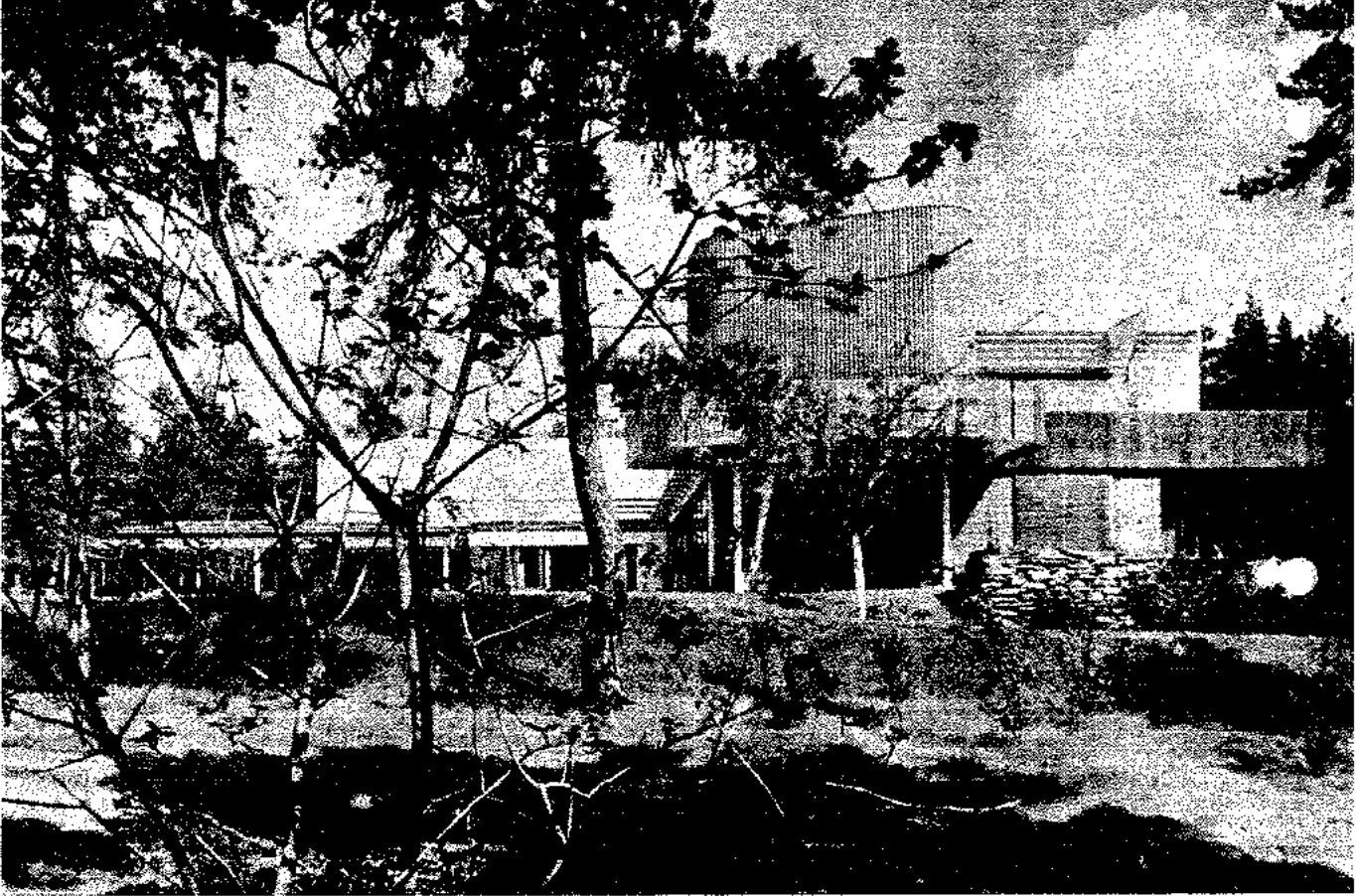
PART PLAN OF WAL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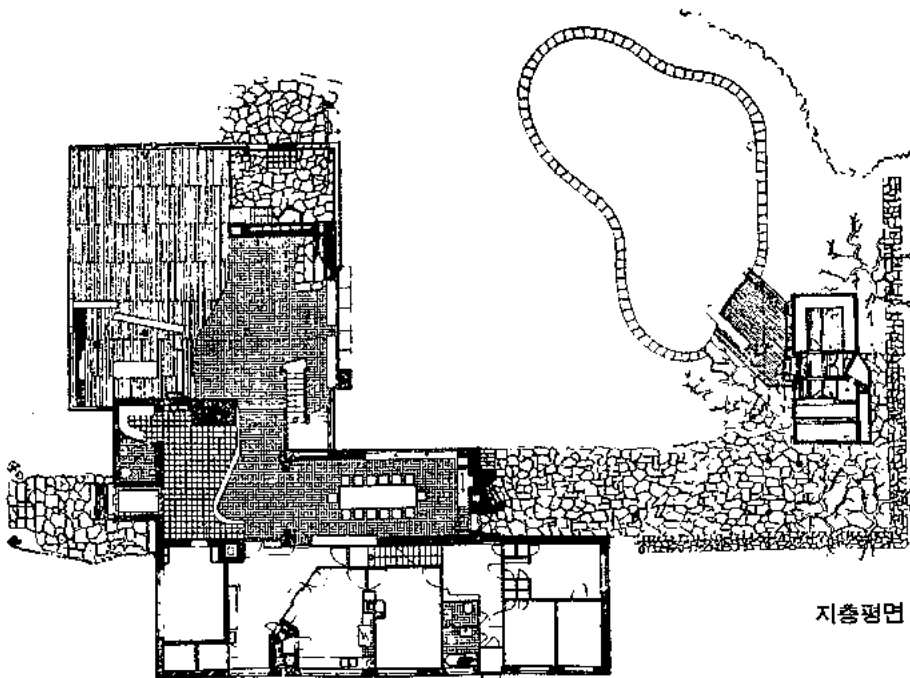
FARNSWORTH HOUSE, PLANO, ILLINOIS 1950

구조. 철골. 벽은 5mm 투명 관유리
바닥. 얇은 측을 잇는 와이드 플랜지
사이에 P.C. 롱크리트 슬라브. 2인치
인슐레이션. 경량콘크리트를 채우고 1
1/4인치 두께의 로먼 트라버틴 마감.
지붕. 와이드플랜지 가구사이에 P.C.
롱크리트 채널슬라브. 2인치 폴크인슐
레이션. 방수물매 위에 흰 자갈. 천정
은 매달고 회반죽마감.
칸막이. 유틸리티코아는 프리마베라 목
재 파넬. 벽장은 티크원목.
인슐레이션. 2인치콜크판(천정), 2인
치 거품유리(바닥).
난방. 온풍난방. 바닥에는 방열코일. 취
사는 전기.
공사비. 72,000달러(약 2,000만원)





정원측에서 본 전경



지층평면 Scale: 1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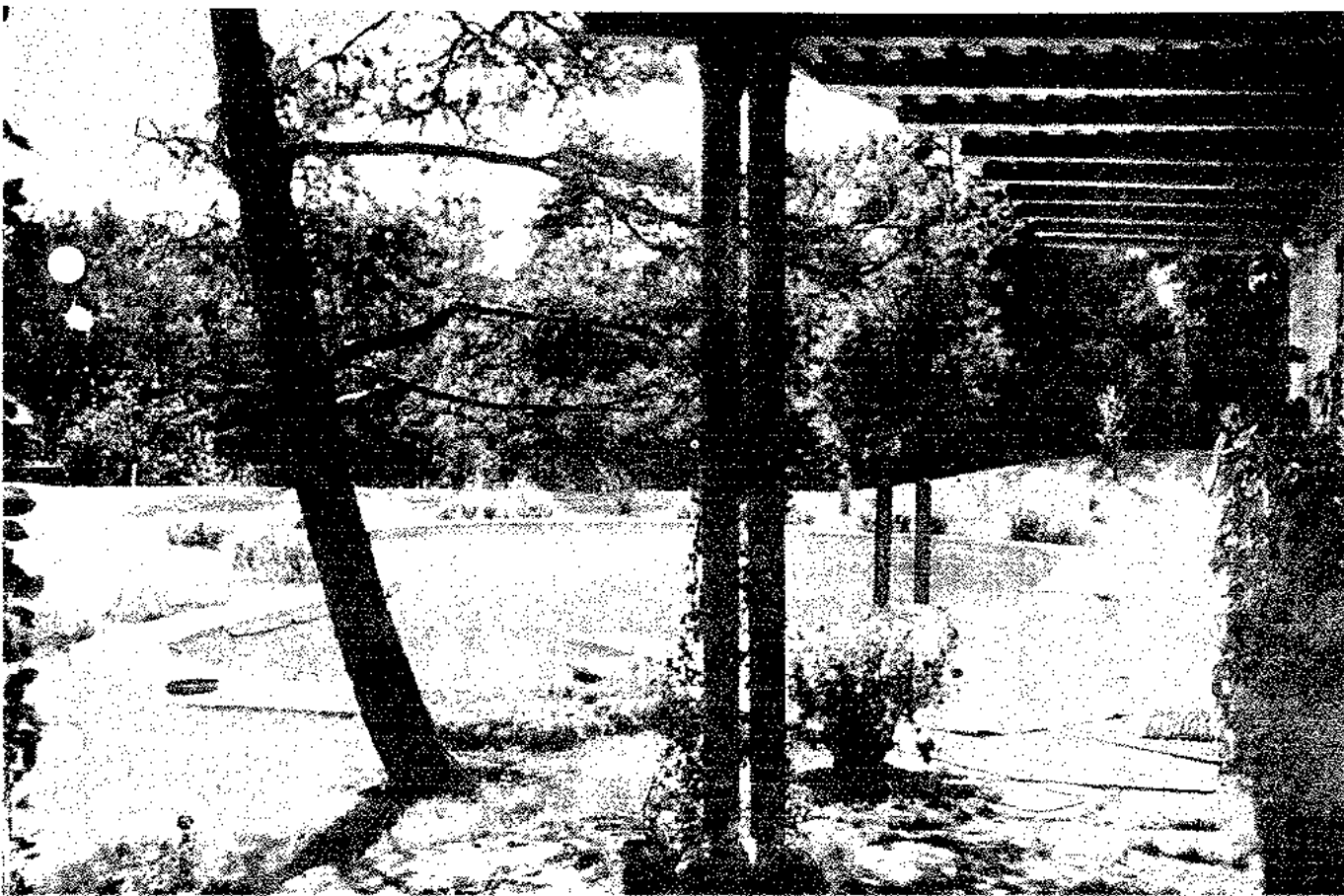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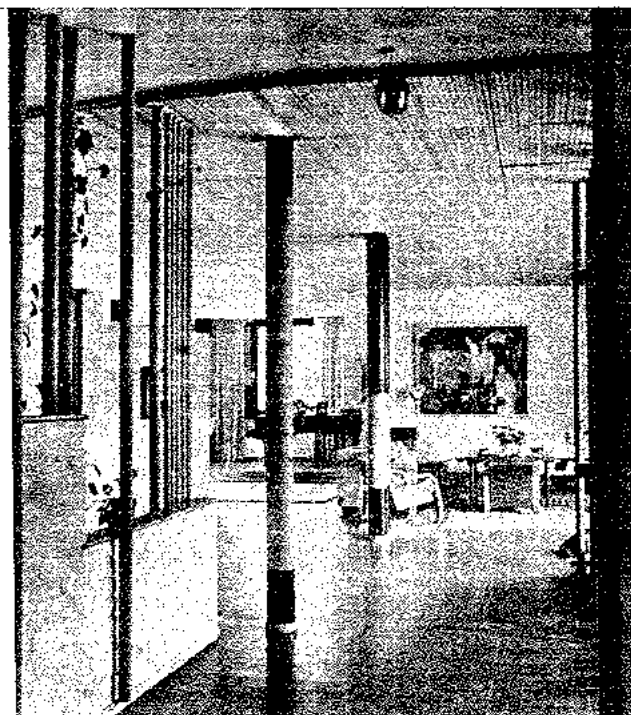
쿨릭센하우스 (마이레아) 마르쿠 1938 알바 아알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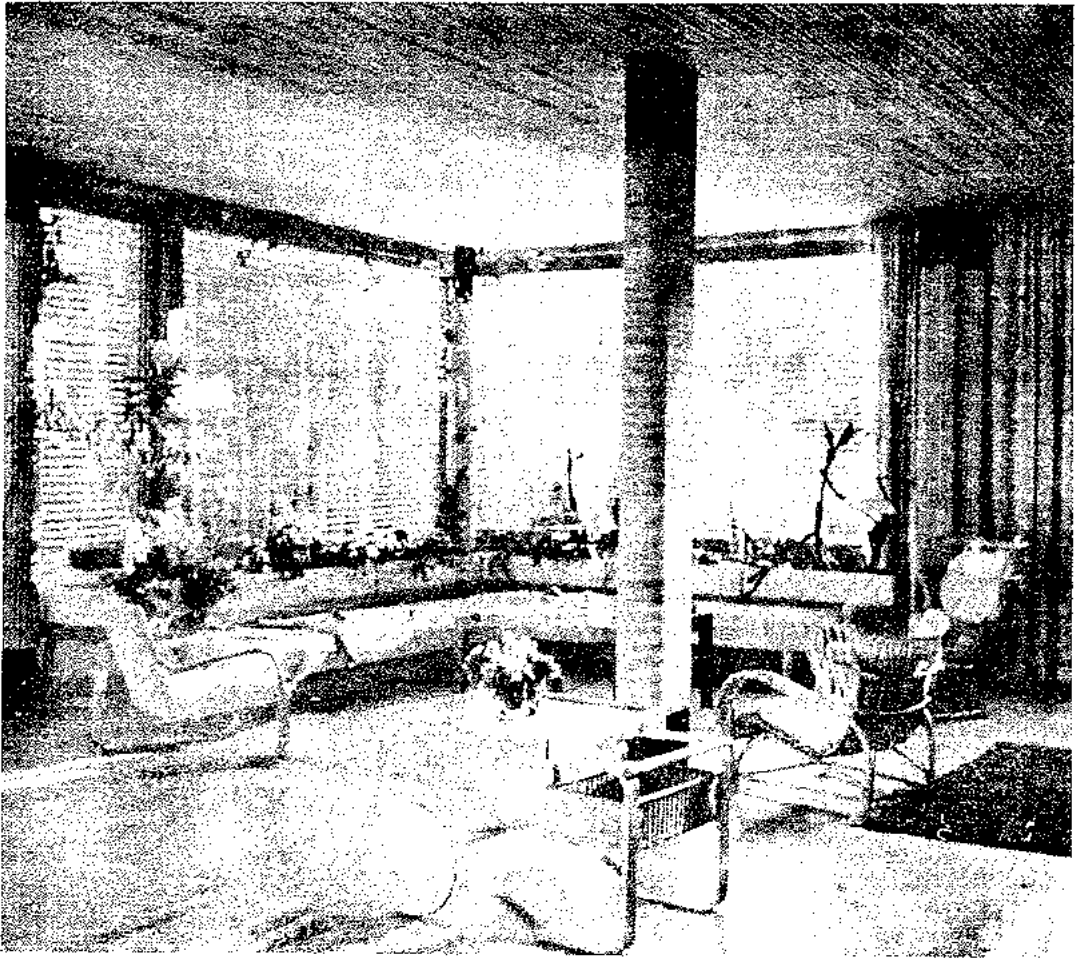
구조, 45cm이중 벽돌벽, 부분적으로 외부는 버마티크에 콜크 인슐레이션.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 콜크인슐레이션, 참나무와 너도밤나무의 조각나무세공을 한마루 위에 붉은 자기타일
 지붕, 콘크리트평지붕, 콜크와 글라스울 인슐레이션, 아스팔트와 모래
 창, 티크

칸막이: 여러가지 마감으로 된 나무, 대부분 가동성 파티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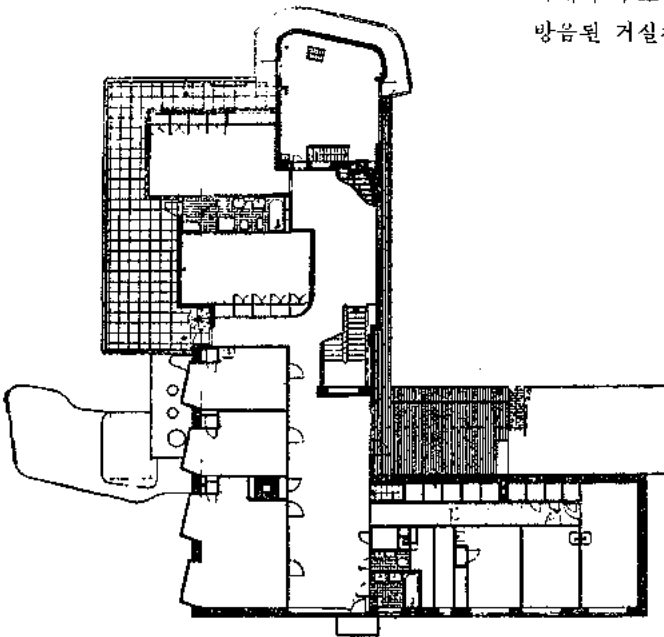
마감: 벽돌벽에 석회칠, 시멘트 그리고 모래마감, 중정측에는 하늘색 세라믹타일.

난방, 중앙온수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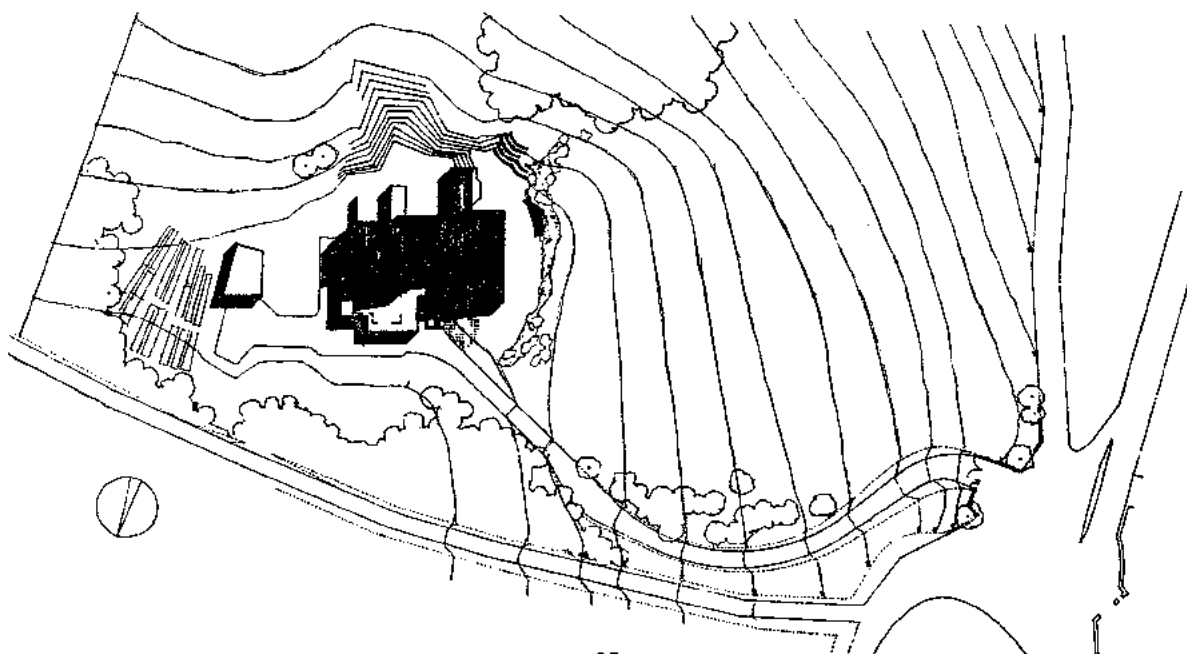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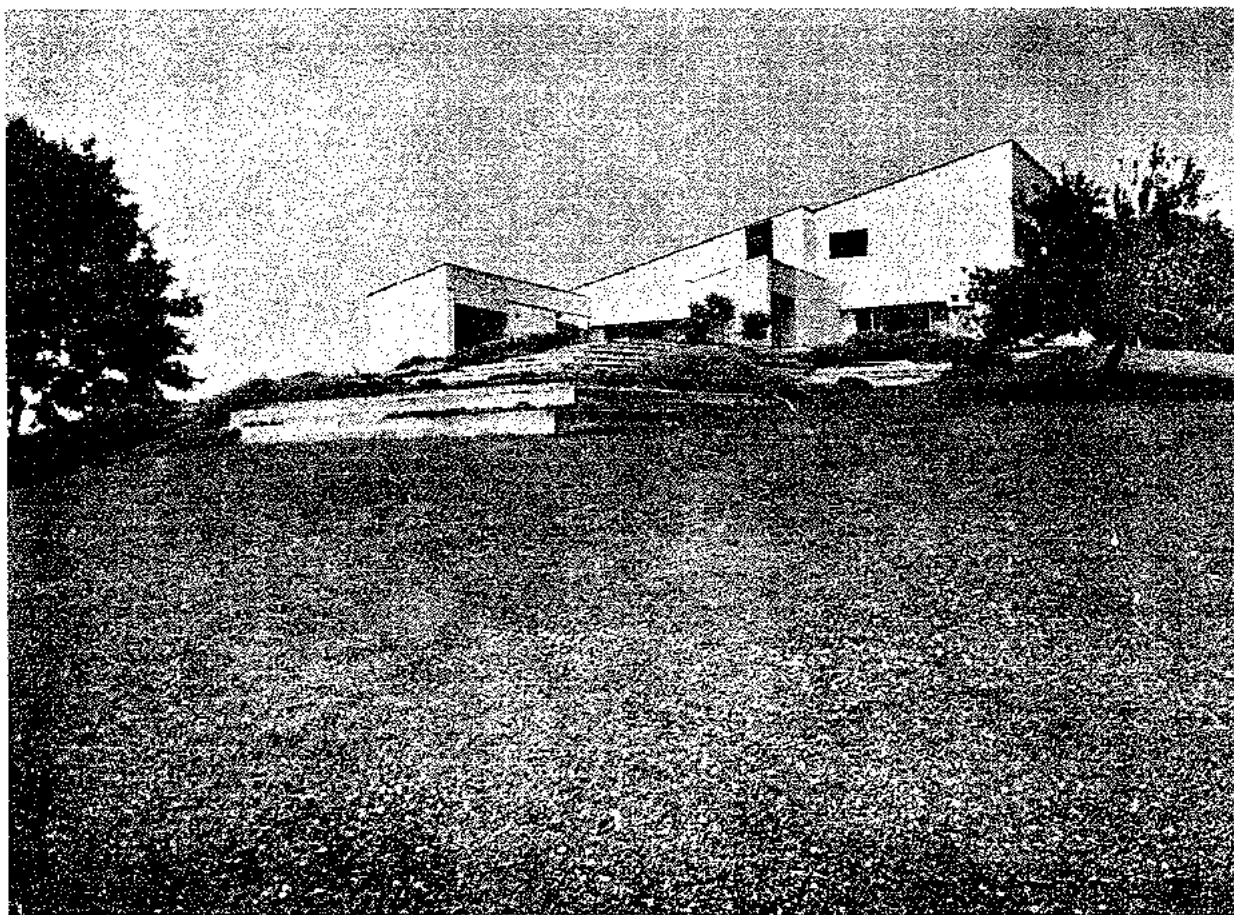
목재가 구조와 장식의 우선적인 재료로 쓰여지고 있다.
방음된 거실천정은 암면과 목재라스트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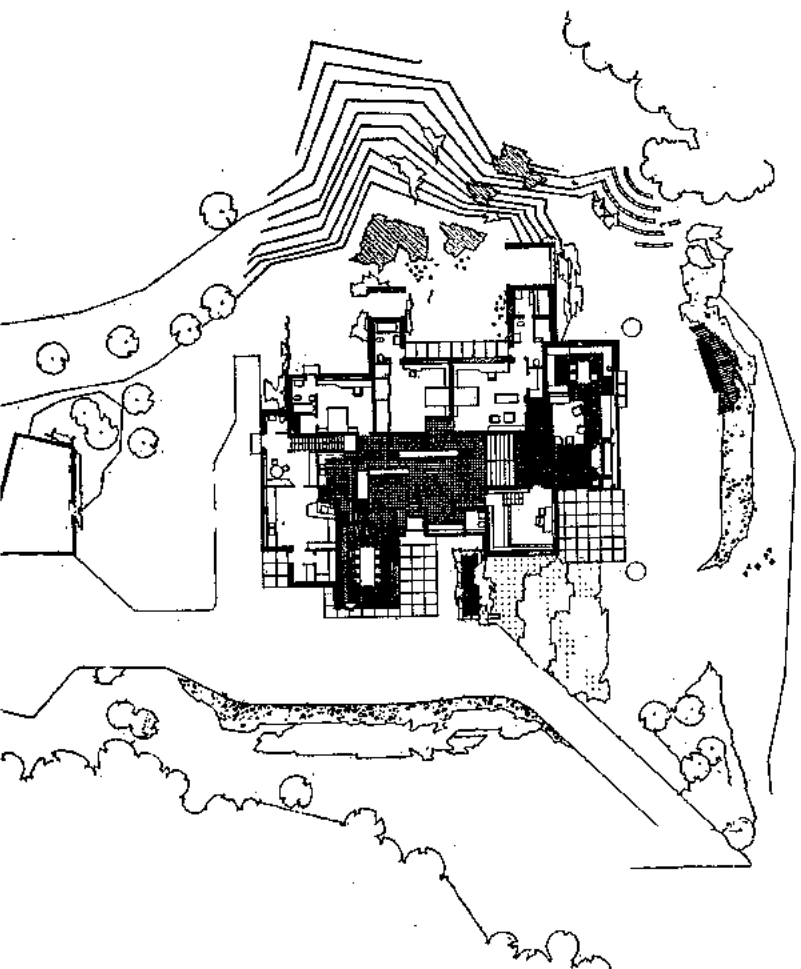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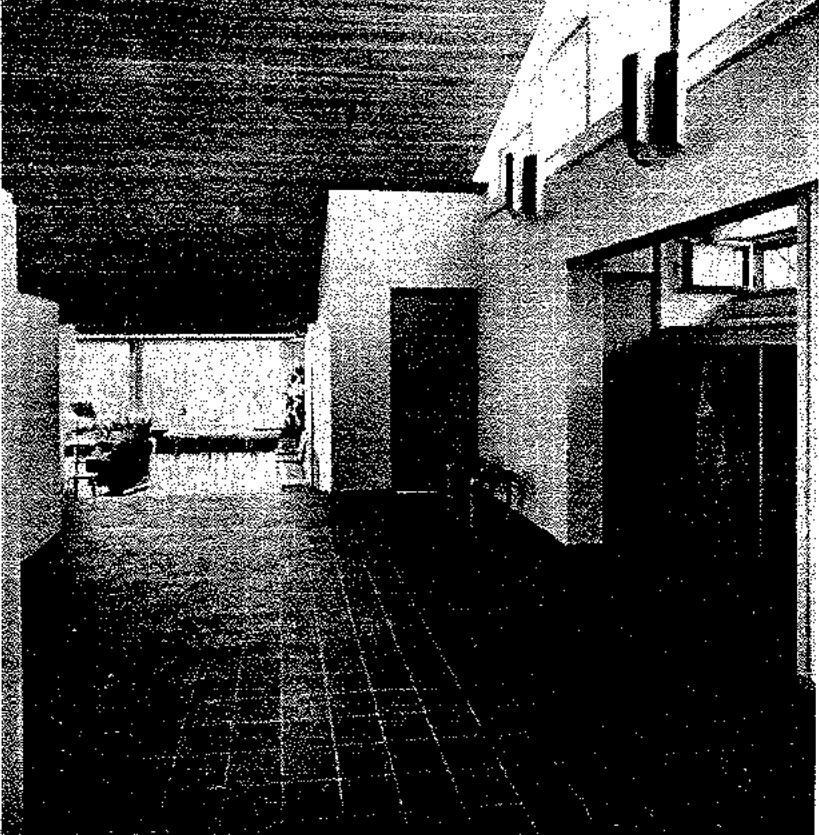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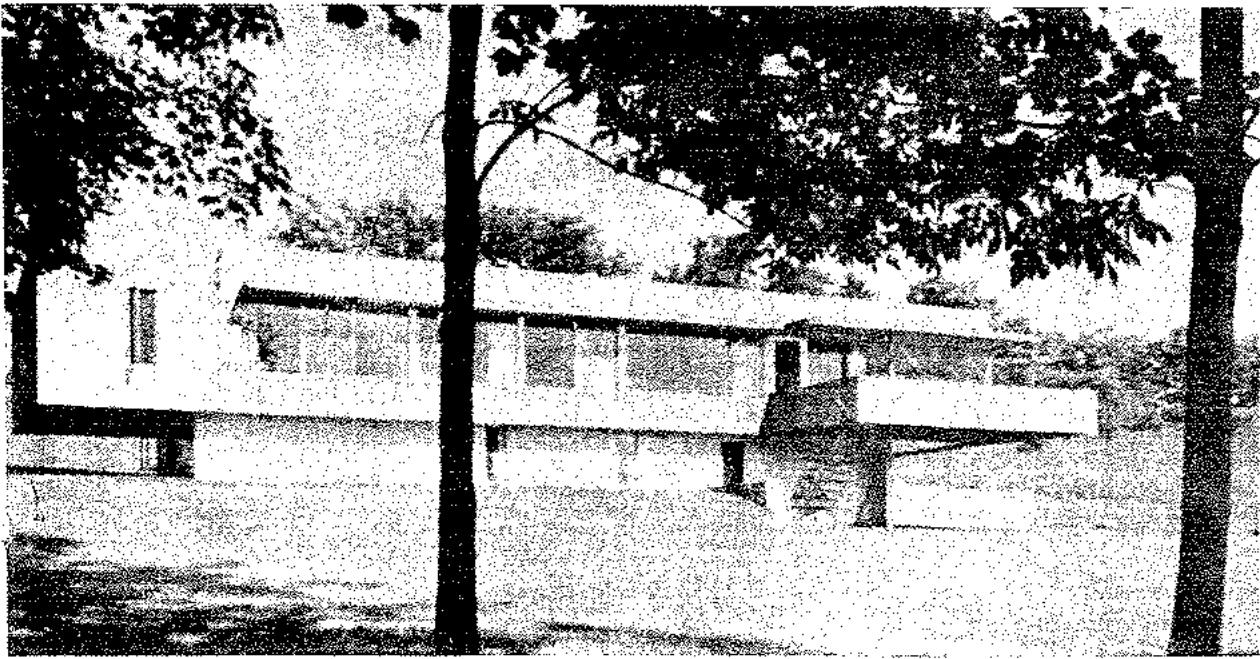
첫층평면

까레의 집 알바 · 아알도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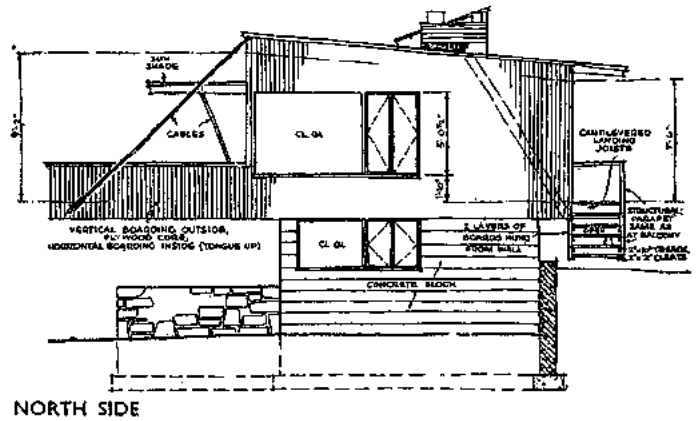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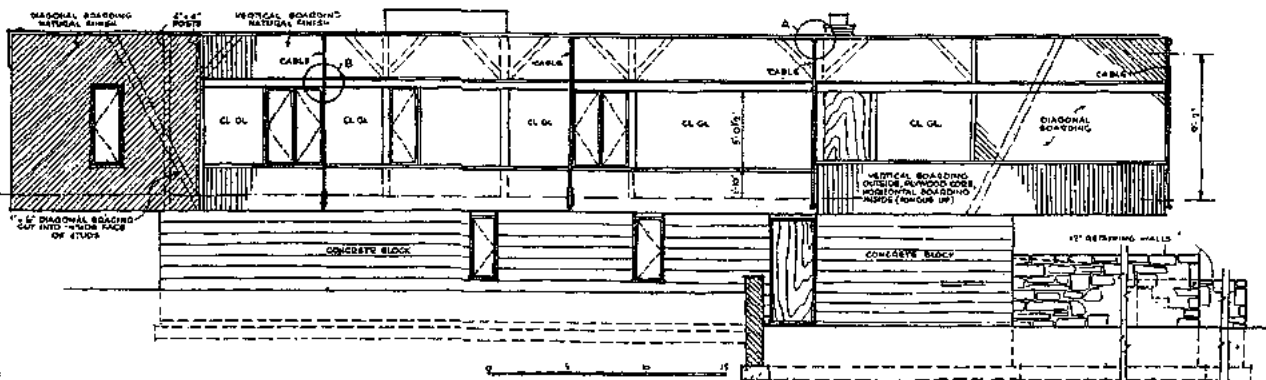


MAIN FRONT of the house from the e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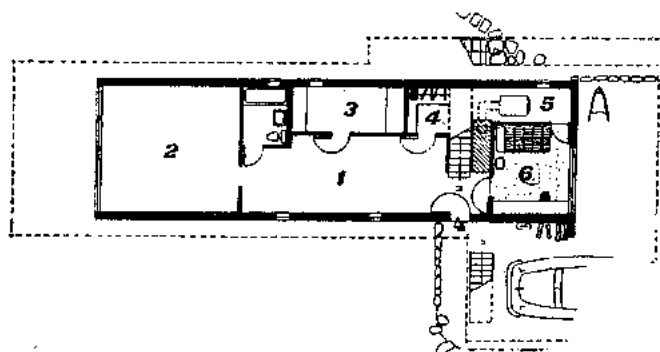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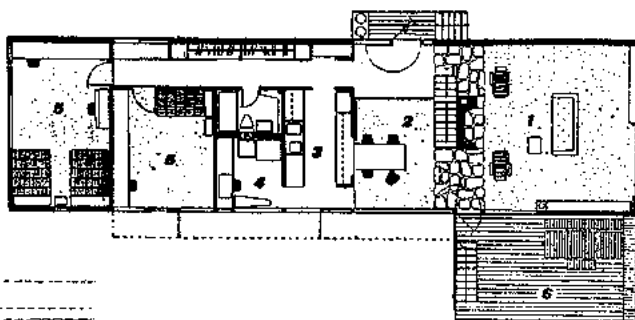
브로이엘자택



NORTH SIDE



EAST FRONT



필립존슨하우스(글라스하우스)

PHILIP JOHNSON HOUSE

뉴케이년, 커넥티컷 1949

필립 존슨

현대건축(정확히 말해서 인터내셔널스타일)중 가장 팔복할 예인 필립존슨의 이 집은 두 집(하나는 완전한 유리집이고 다른 하나는 벽돌집이다)으로 되어있다. 이 두 집은 조각과 수영풀이 있는 정원을 사이로 주의깊게 연결되어있다. 벽돌집은 개인적인 스튜디오와 손님 침실을 포함한다. 유리집은 원형의 벽난로와 욕실로 구둣점이 찍혔고 자유롭게 선 벽장벽으로 리빙에어리어가 분할된 한 큰 방이다. 유리와 철골로 된 이 우아한 집은 프라이버시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인 랜스케이프와의 한 투명한 패빌리언이다.

글라스하우스는 완전히 유리로 둘러싸인 철골가구의 입방체다. 여기서 드디어 굵세기 초부터 건축가들이 꿈꾸던 순수한 프라이즘이 간소함과 풍부함의 우아한 조화로 성취되어있다.

내부는 마치 말레비치의 그림처럼 정밀하다.

원형의 욕실과 벽로가 사각의 중심에서 빛나간 양은 거의 극치다 붉은 벽돌 바닥과 원통은 밀철을 해서 차디차고 찬란한 색조를 낸다. 철골은 어두운 회색이며 계단과 램프는 흰 화강암이다.

“사람들은 이 집을 황량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의 벽지를 보라.” 존슨이 말하는 벽지는 집밖의 잔디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엮여진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가르킨다. 유리벽은 항상 그 나무들로 비쳐지는 것이다. “눈이 올때 나는 밖의 불을 켜다. 그러던 내리는 눈은 우리를 마치 거대한 하늘의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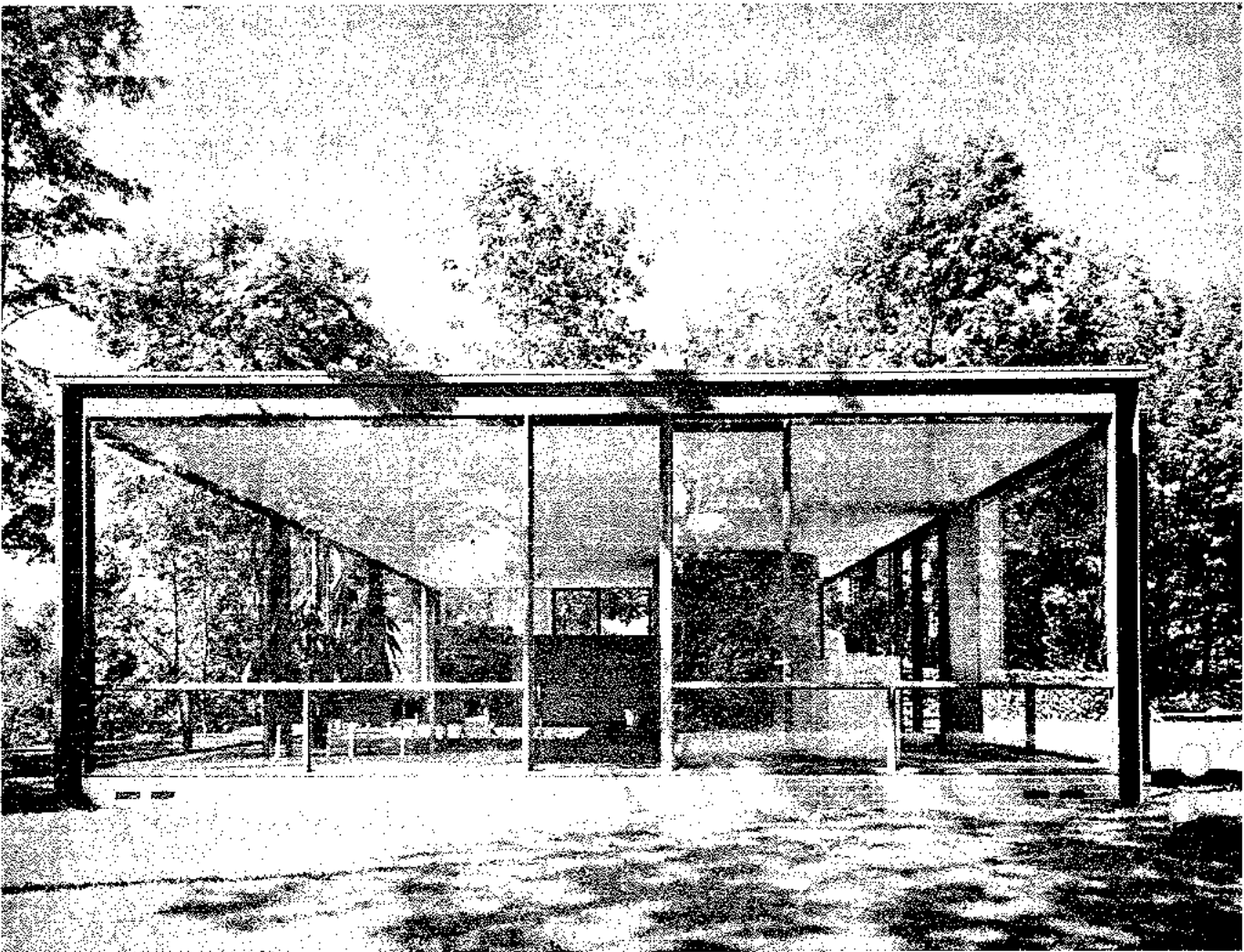
이 유리집은 그에게 미스·판·헬·존슨이란 별명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다음 해 완성된 환스워드 하우스는 사제간의 작품이 비평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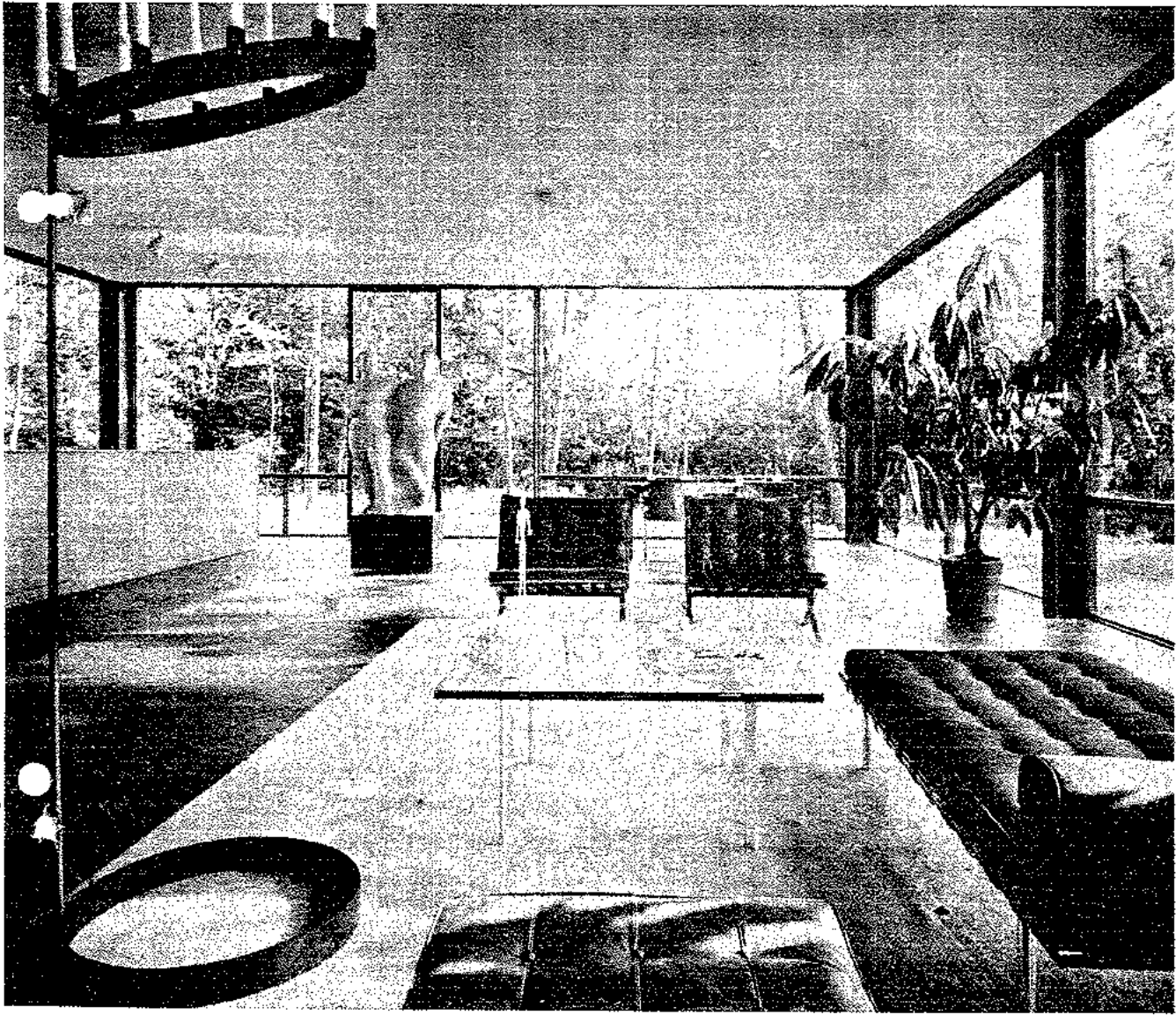
존슨의 집은 사각의 캔버스 위의 그림들과 이상하게도 유사하다. 밖의 랜스케이프로의 내부 평면의 연장은 조심스러운 구성과 형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밖의 하늘색 타일의 수영풀은 안의 욕실의 반향이며 안의 리프시즈조각은 밖의 키슬러정자와 화답한다.) 존슨은 집을 필로타위에 세우는 것을 몹시 경멸하였다. — “거기서 사람들이 얻는 것은 쓰레기의 황폐다.”

미스의 글라스하우스는 대조적으로 비대칭적 구성이며 부지와와 관련은 지면위 4피트로 표현되어 있다. 실지에 있어서 거기에는 인간의 산물과 자연간의 交互作用이외는 아무것도 없다.

존슨의 그의 독신로(그는 혼자산다)는 20세기 중엽의 현대 가족생활의 다목적성을 극히 배제하였다.

따라서 이 집은 그 건축적표현에 있어서는 포괄적이고 다양하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극히 추상성을 띤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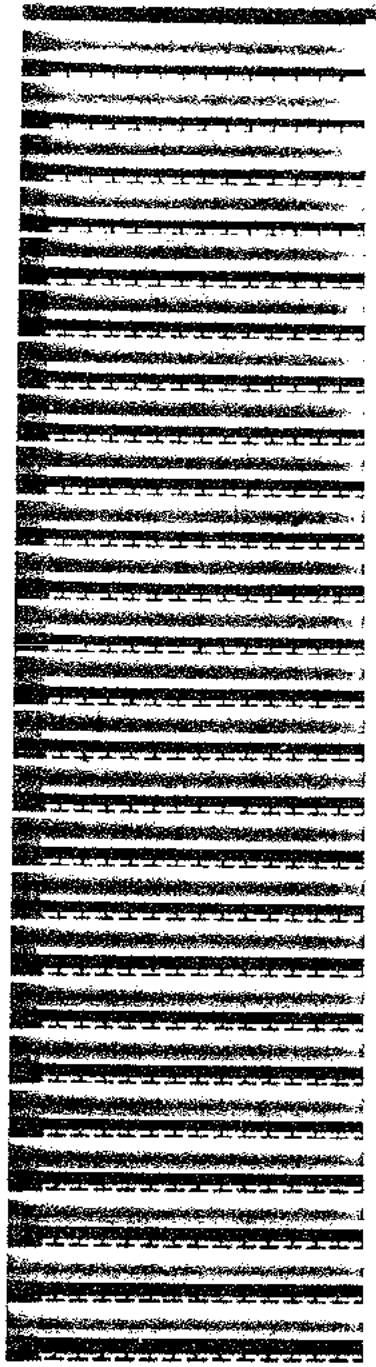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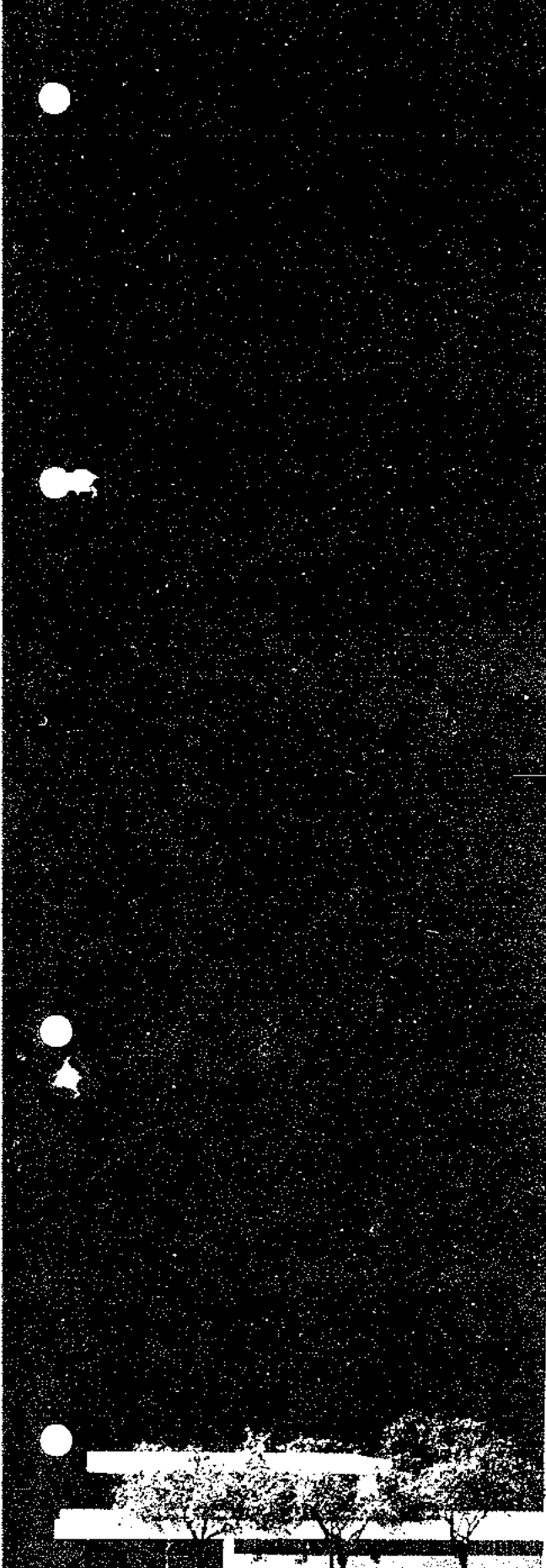




이오·밍·베이는 한국을 잘 아는 건축가다. 그는 광둥에서 태어났고 하버드에서 건축공부를 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한국 초가집 사진이 걸려있다. 그는 커뮤니티를 상징하고 있는 한국민가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동양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서구문명 특히 미국 문명에 대해서 경멸과 회의를 갖고 있다. 그는 대중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의 사무실에는 슬럼가와 후진국을 위한 끊임없는 탐구와 정열의 프로젝트가 밀려 있다. 그는 유행을 기피한다. 그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고 수 많은 후원자가 그를 돕고 있으나 그는 지극히 겸손한 생활을 하고 있다. 7명의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속의 한 방과 구식 차 그리고 교외에 주말주택이 그가 가진 전 재산이다.

그는 현대건축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지만 현대건축을 부정한다. 그는 추상적인 건축적 진실보다는 현실적인 건축적 합리를 추구한다. 그는 서구문명 속에서 자랐으나 그 속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이다. 하버드를 졸업한 후 그로피우스와 수년동안 일을 했으나 그로피우스가 그에게 준 것은 건축에 대한 정열과 합리적인 사고만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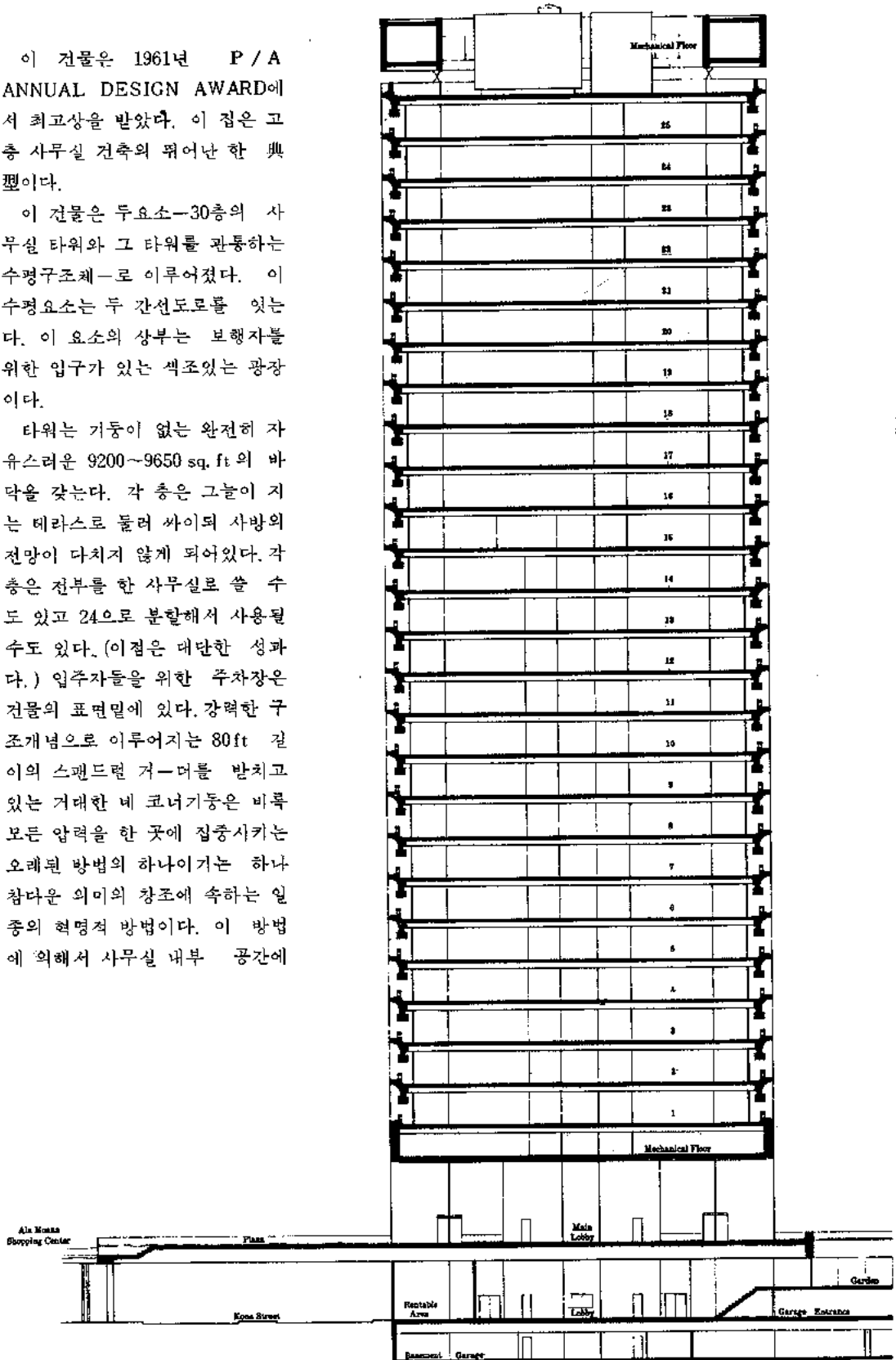
그는 동양인으로서의 긍지를 일상생활에서 만이 아니라 그의 작품에서도 일관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서구는 한 방법론으로만 채택되어 있을 뿐 그의 건축을 일관하고 있는 것은 동양적인 이성과 감각이다. 그의 미국인에 대한 멸시는 반사적으로 그를 고립시키고 있으나 그는 의연하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집단에 대한 정열과 자신이 넘친다. 그로피우스의 말대로 그는 “정당한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영혼을 가진 건축가다.” 그에게는 중국대륙이 살아 있다.



이 건물은 1961년 P / A ANNUAL DESIGN AWARD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이 집은 고층 사무실 건축의 뛰어난 한典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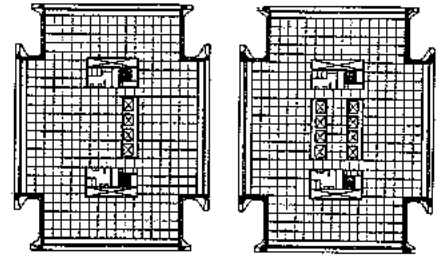
이 건물은 두요소-30층의 사무실 타워와 그 타워를 관통하는 수평구조체-로 이루어졌다. 이 수평요소는 두 간선도로를 잇는다. 이 요소의 상부는 보행자를 위한 입구가 있는 색조있는 광장이다.

타워는 거둥이 없는 완전히 자유스러운 9200~9650 sq. ft의 바닥을 갖는다. 각 층은 그늘이 지는 테라스로 둘러 싸이되 사방의 전망이 다치지 않게 되어있다. 각 층은 전부를 한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24으로 분할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이집은 대단한 성과다.) 입주자들을 위한 주차장은 건물의 표면 밑에 있다. 강력한 구조개념으로 이루어지는 80ft 길이의 스패드런 거-더를 받치고 있는 거대한 네 코너기둥은 비록 모든 압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오래된 방법의 하나이기는 하나 참다운 의미의 창조에 속하는 일종의 혁명적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해서 사무실 내부 공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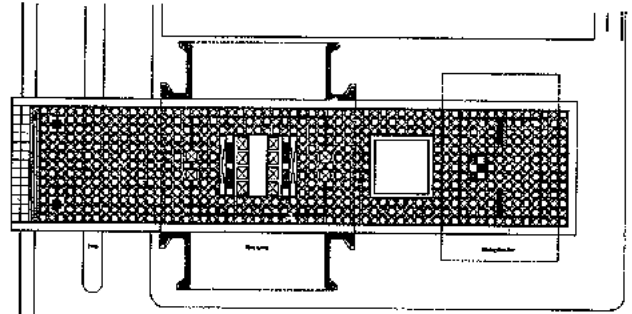


vector 가 생겼고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항상 골치였던 코너의 문제가 없어졌다. 구조는 슬랩폼과 포트트렌션(진 스팬의 거너) 등의 기교를 도입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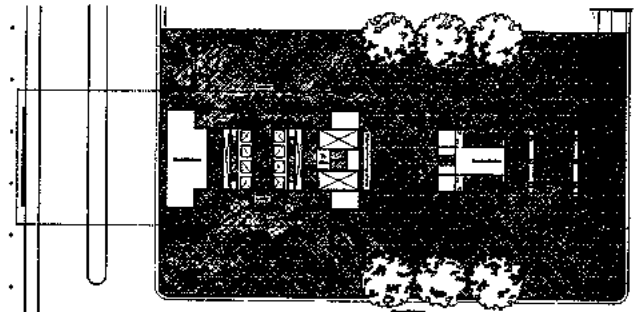
구조의 시각적, 기능적 표현은 그 표현의 기교를 넘어 건축적 진실의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고층건물의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가능성, 나아가 전통적인 재료로서의 콘크리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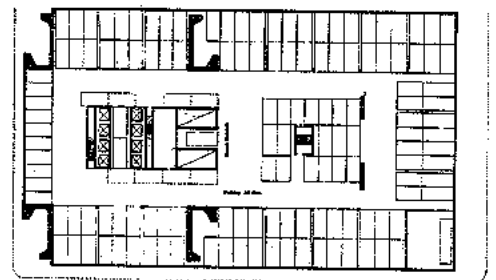
typical flo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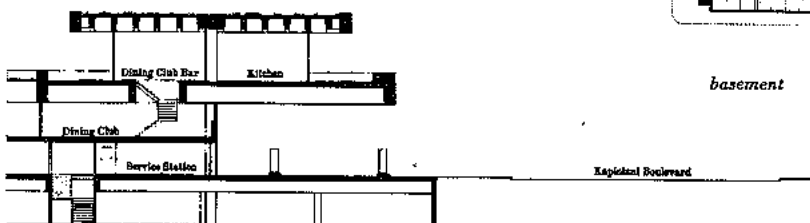
plaza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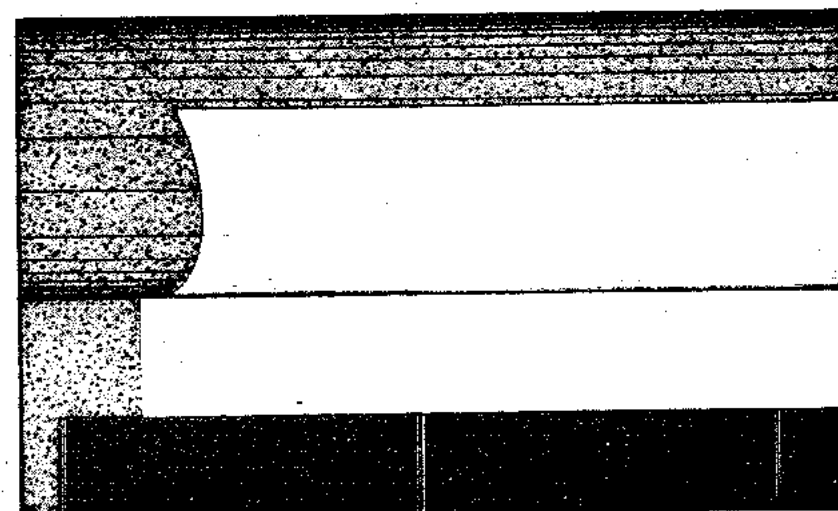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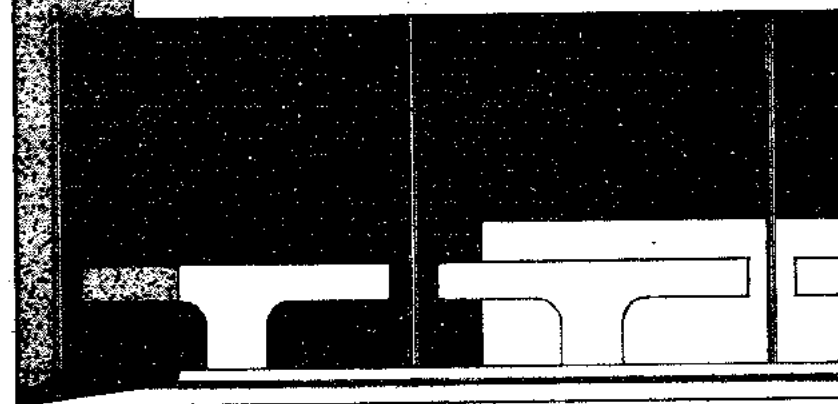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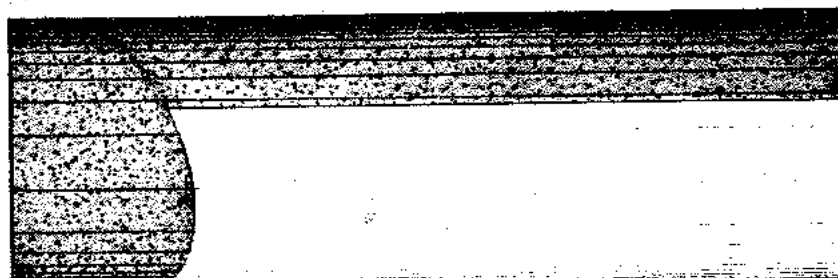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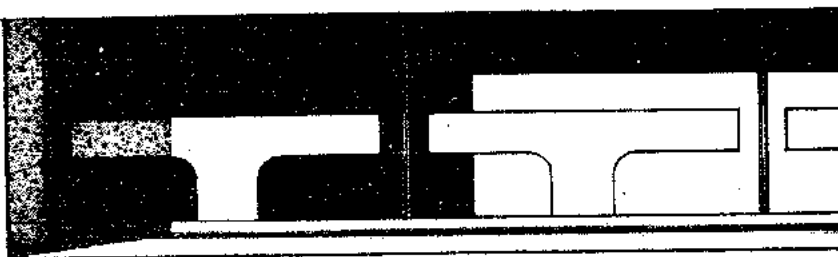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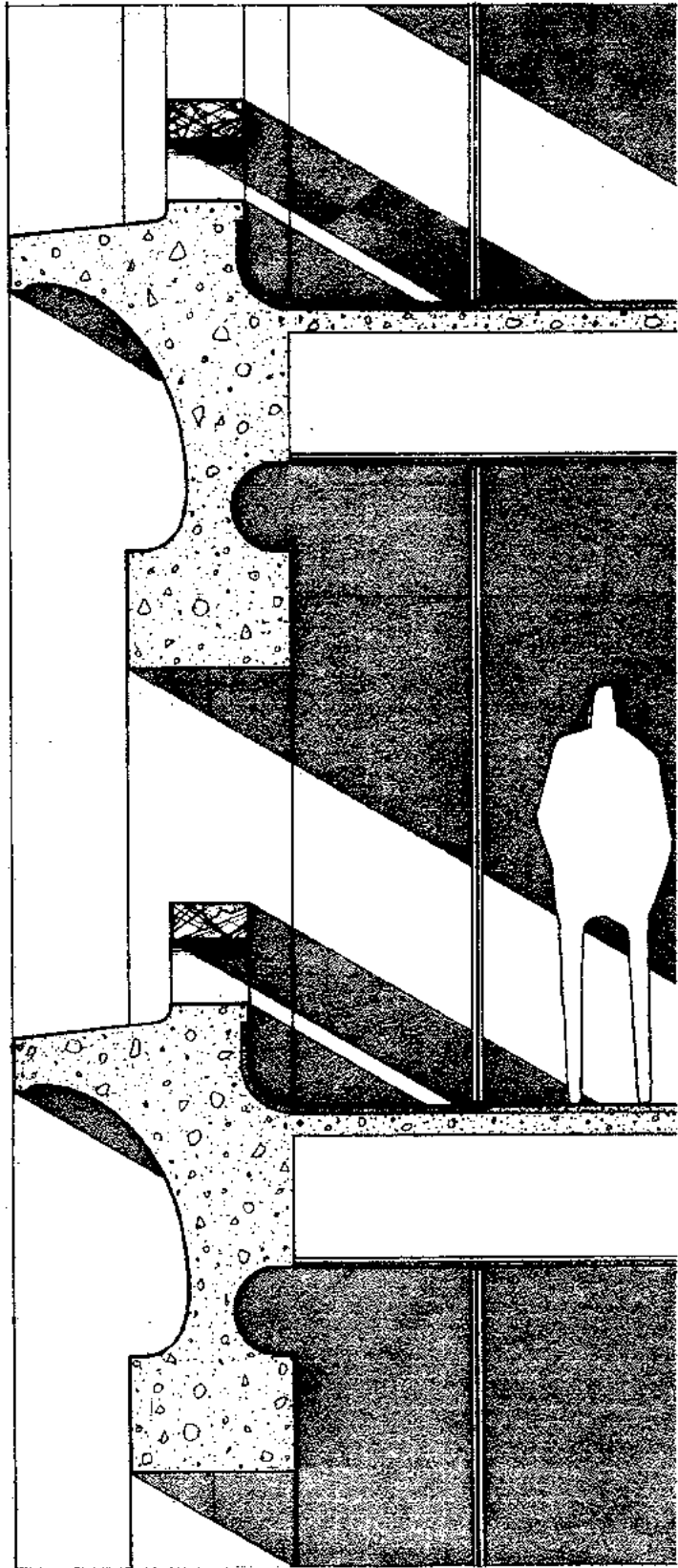
ground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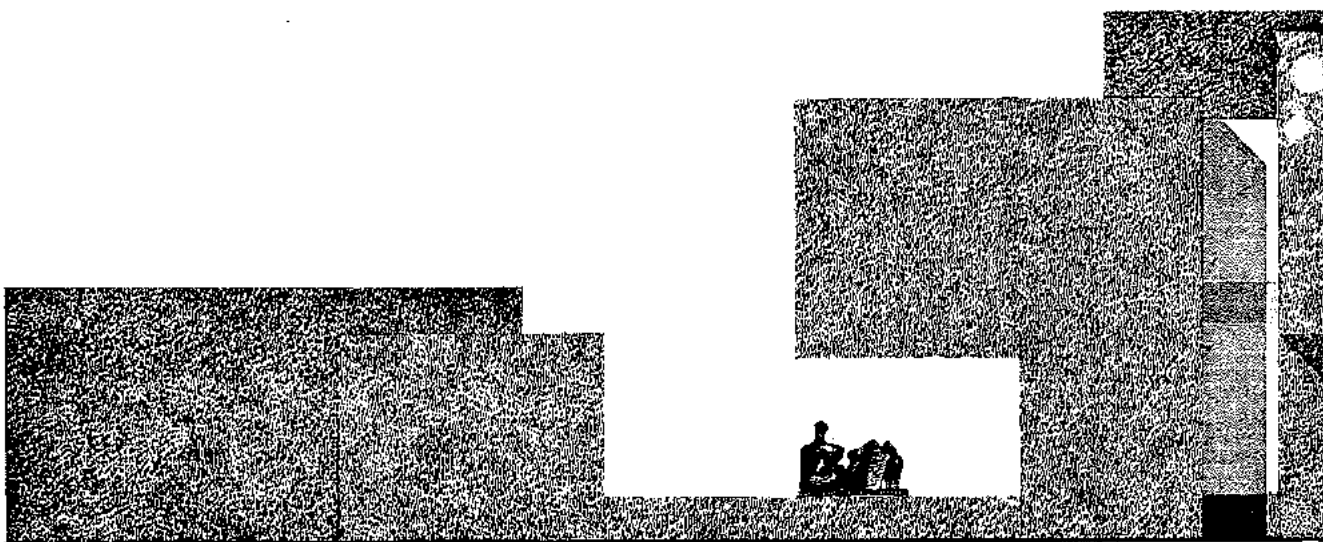
basement







Museum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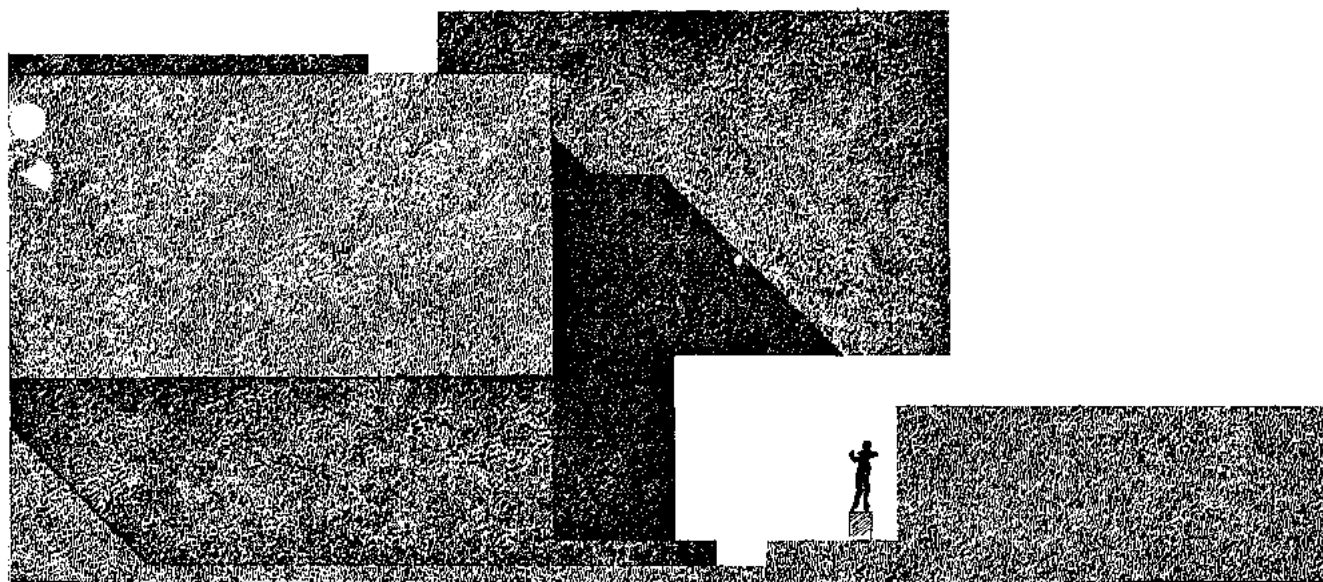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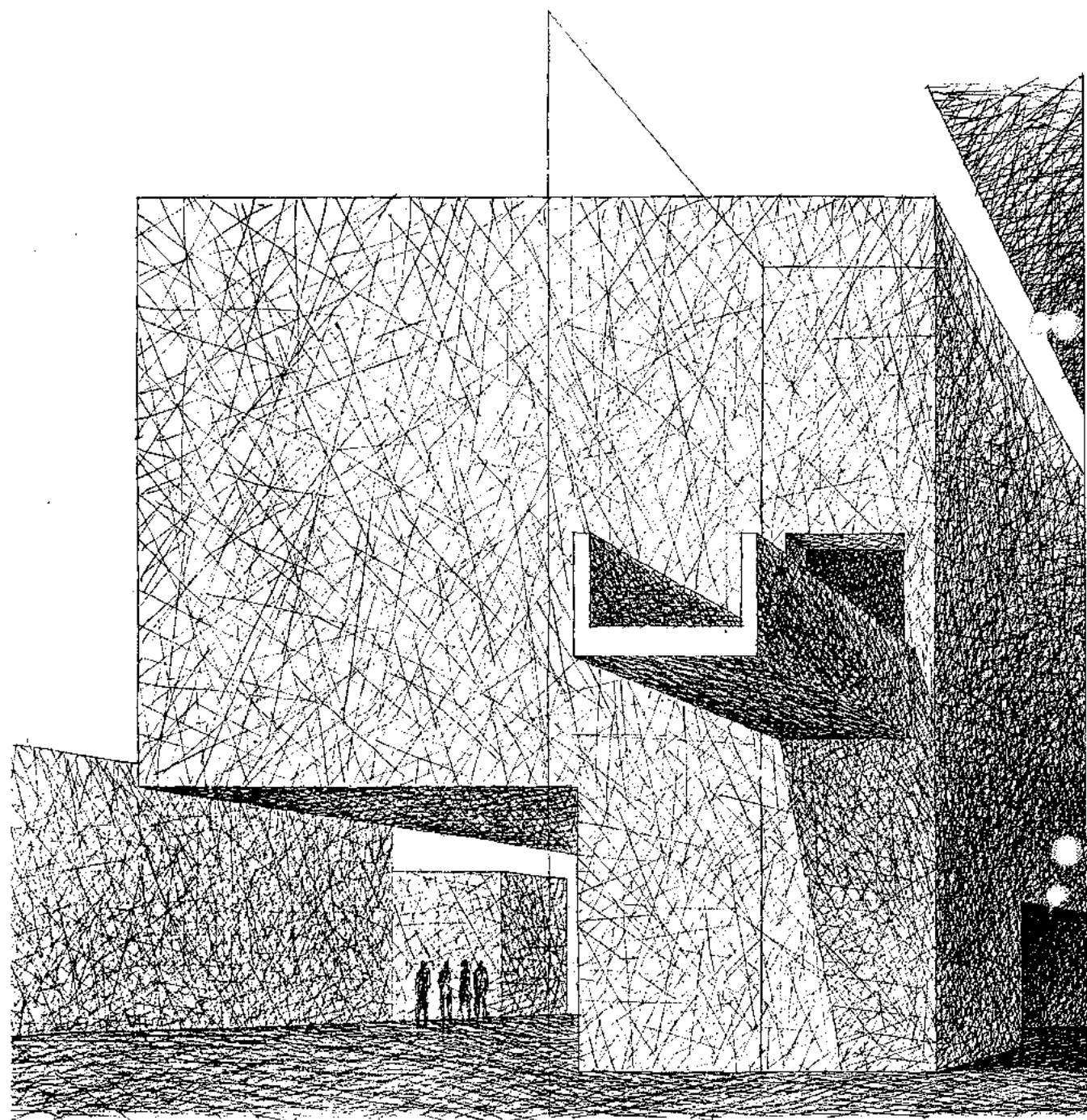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의 설계는 1962년에 완성되었다.

관장인 막스 설리반은 사이어러규즈시의 규모에 타당한 상대적으로 작고 천밀한 미술관보다는 유동적이며 독자적인 성격의 건축을 요구했다. 그는 페이지에게 강한 개성을 갖는 독자적인 건축공간을 기대했다. 이것이 건축가에게 주어진 첫 요구였다. 페이지는 그 요구에 응해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집에 큰 스케일을 주기 위해서 부수한 기능화 부속전시실로 이루어지는 기단위에 미술관을 세웠다. 기단위에 일련의 상자 같은 갤러리처럼 된 주전시실들이 두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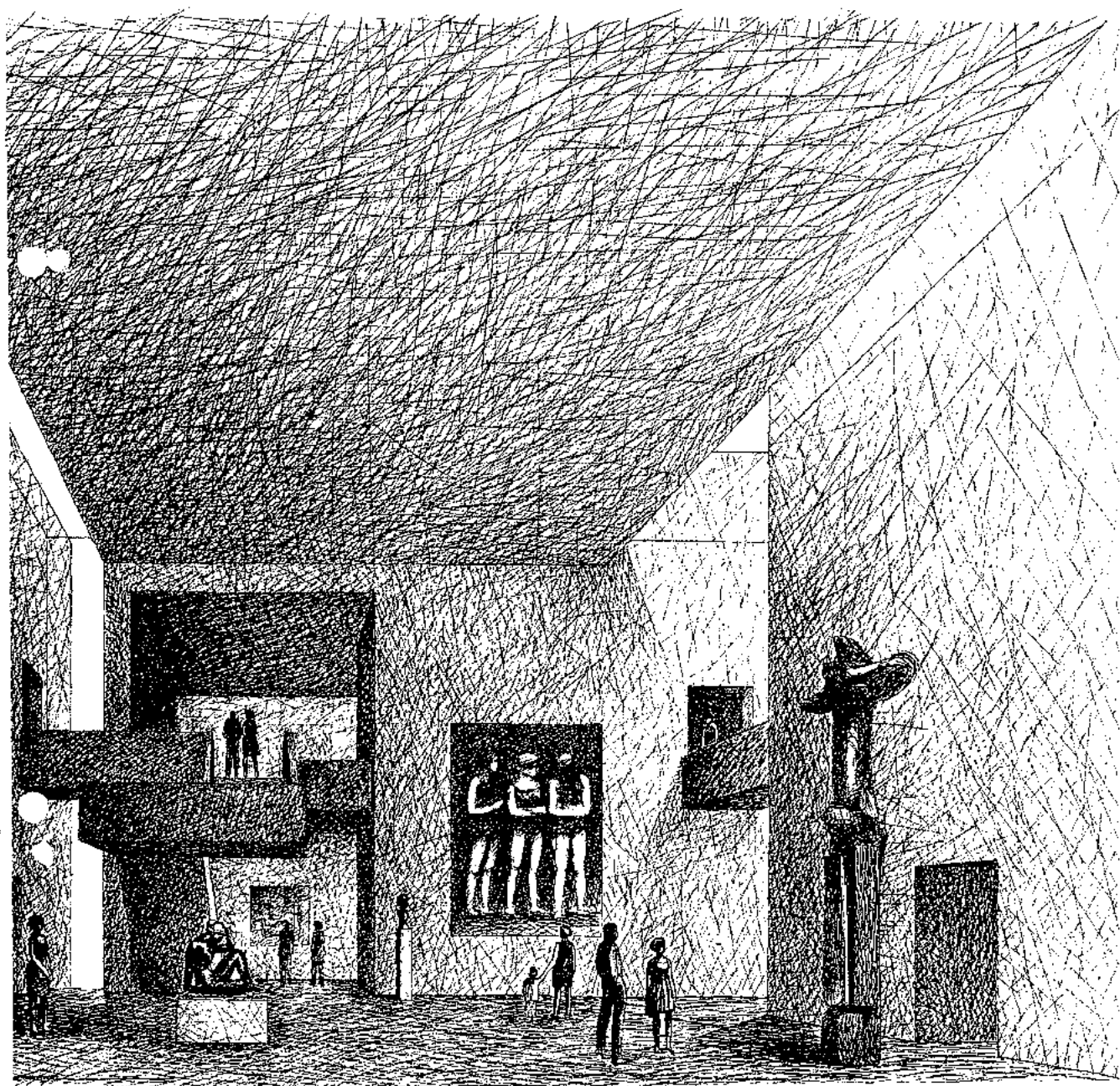
깊이인 중앙조각정원주위에 한 유기적인 건축군을 형성한다.

갤러리에서 갤러리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흐름은 정원의 네 도서관에 있는 좁은 통로를 지난다. 그래서 움직임의 연쇄는 항상 모든 공간의 쏠림이 되며 기본이 되는 중앙조각정원과 대응된다. 기단 위에 캔틸레버된 네 갤러리의 두 다른 매트(하나는 강당 뒤편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 사무실이다)가 매트들의 구성을 완성한다. 이것들은 서쪽에서 입구광장의 공간을 분할하며 동측에 프라이빗한 옥외의 조각정원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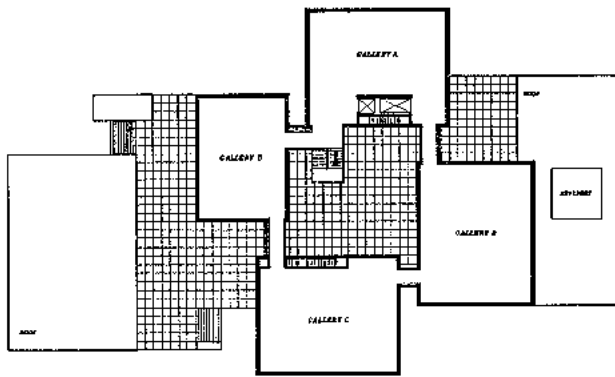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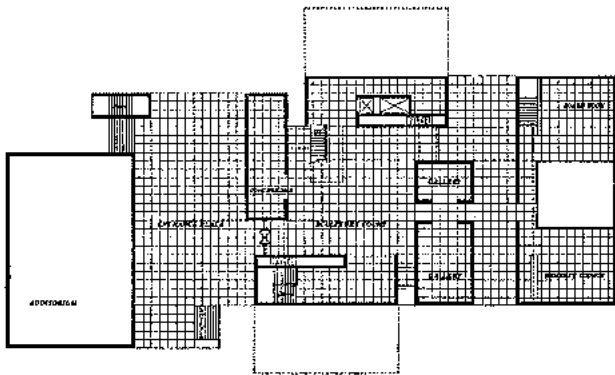
조각정원의 지붕은 두 마주 보는 갤러리
복스에 걸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나 돌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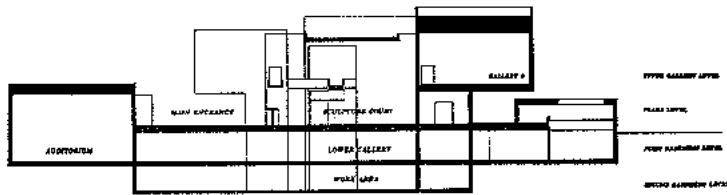
떨어져있다. 유리면의 연속으로 빛나는 그
사이의 천장은 미술관 내부에 자연의 빛을
끌어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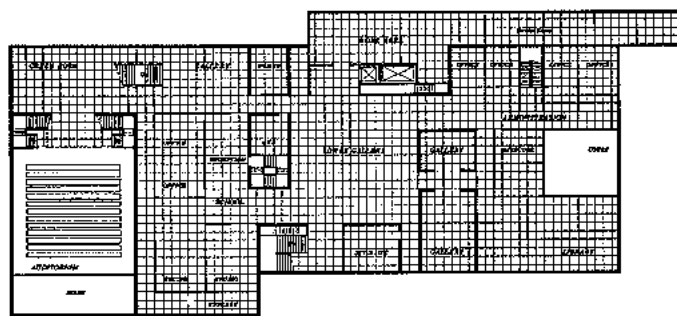
SECO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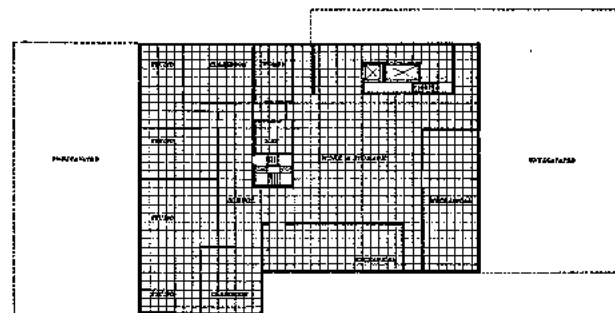
THIR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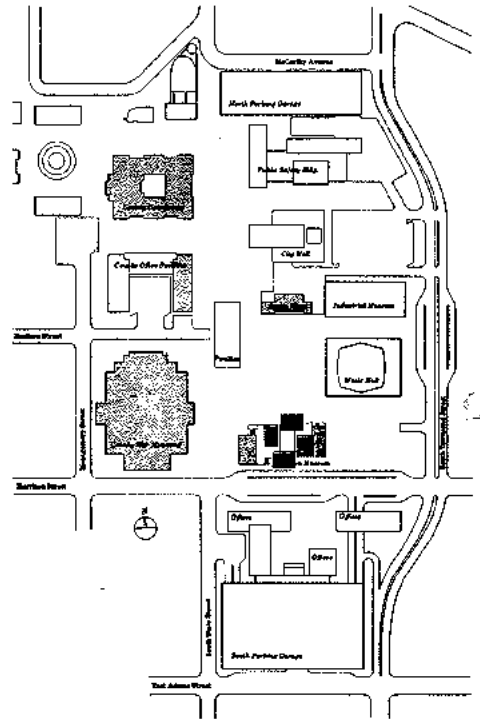
FOURTH FLOOR PLAN



FIFTH FLOOR PLAN



SIXTH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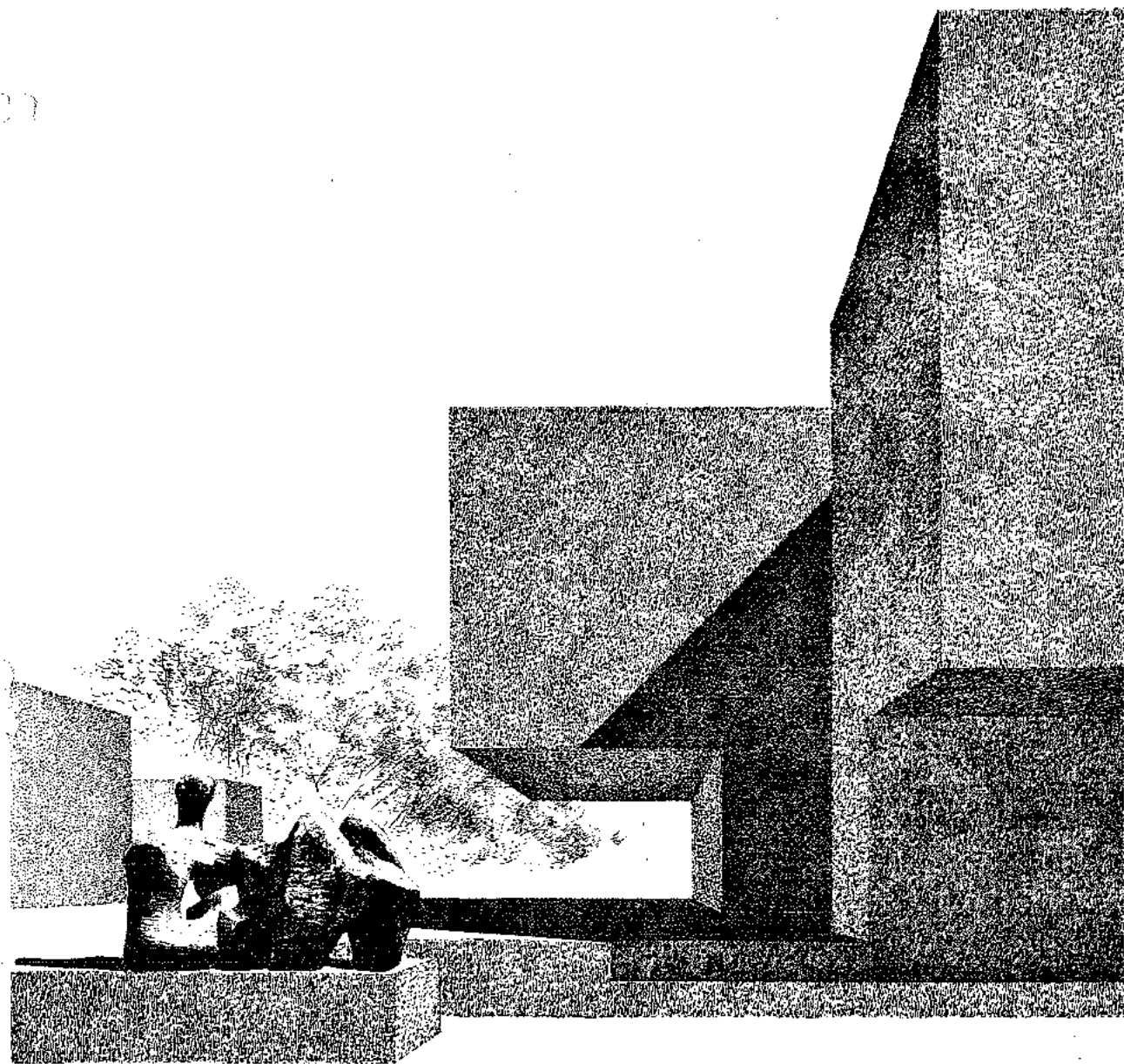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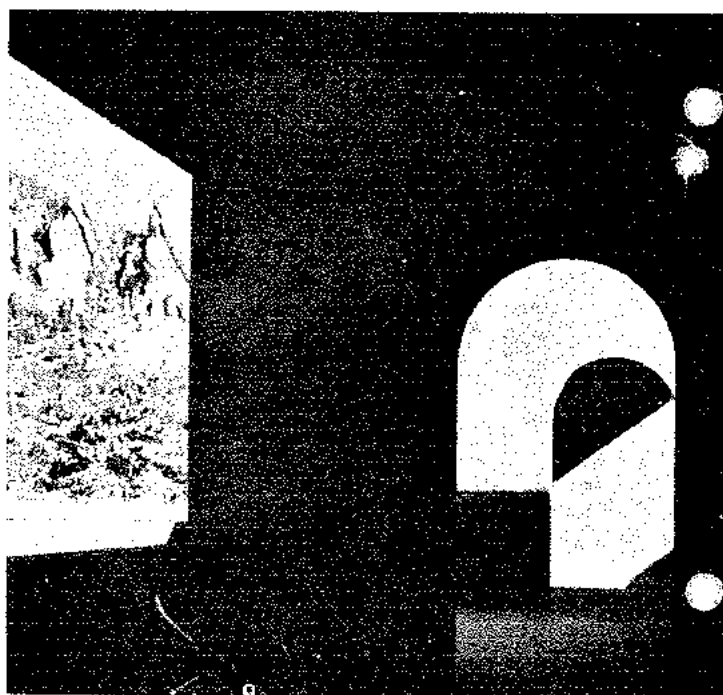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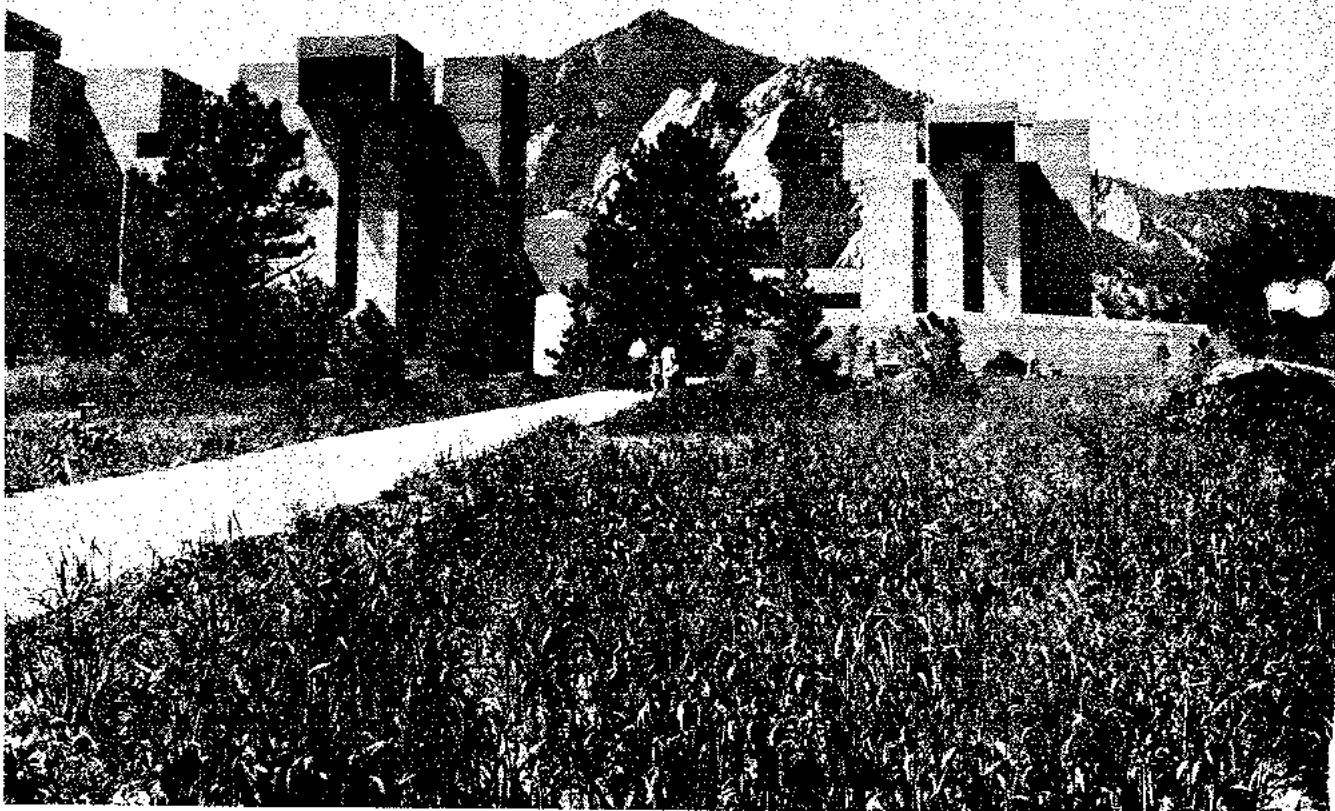
콘크리트가 주 재료다. 모든 외부의 면은 조각가의 산물처럼 다루어져 있는 거친 해머로 쪼아낸 나감이다. 이러한 질감은 내부에서도 가능한 많이 쓰여졌다. 수평면도 벽면과 같은 처리로 이루어진다. 표면은 골재가 튀어나올 정도로 깊이 쪼아내며 내부는 테라조 효과를 낼 정도로 여러번 깎아진다. 미술품이 걸리게 되는 벽은 잔디섬유를 입힌 구성판으로 마감된다. 다른 내부재료는 흰색회박죽, 디크판, 그리고 잘 깎아낸 브론즈다.

이 집은 도시광장속에 놓여진 조각을 담기위한 추상조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예술품을 위한 예술품이다.

이 단순하고 명확하며 강한 사이어러 쿠퍼즈의 미술관은 작년 AIA의 FIRST HONOR AWARD를 받았다.



ATMOSPHERE OF THE SIXTIES



국립대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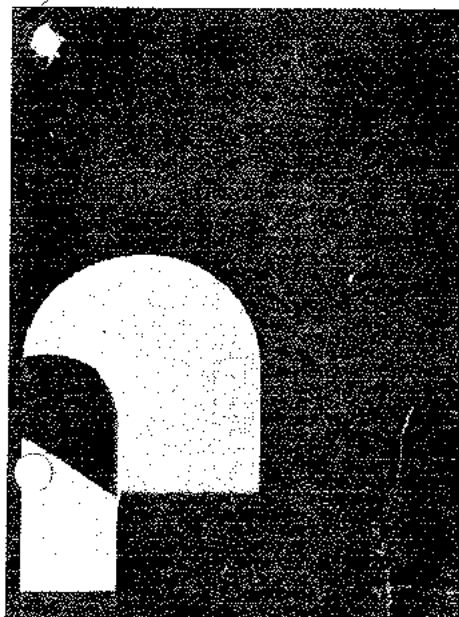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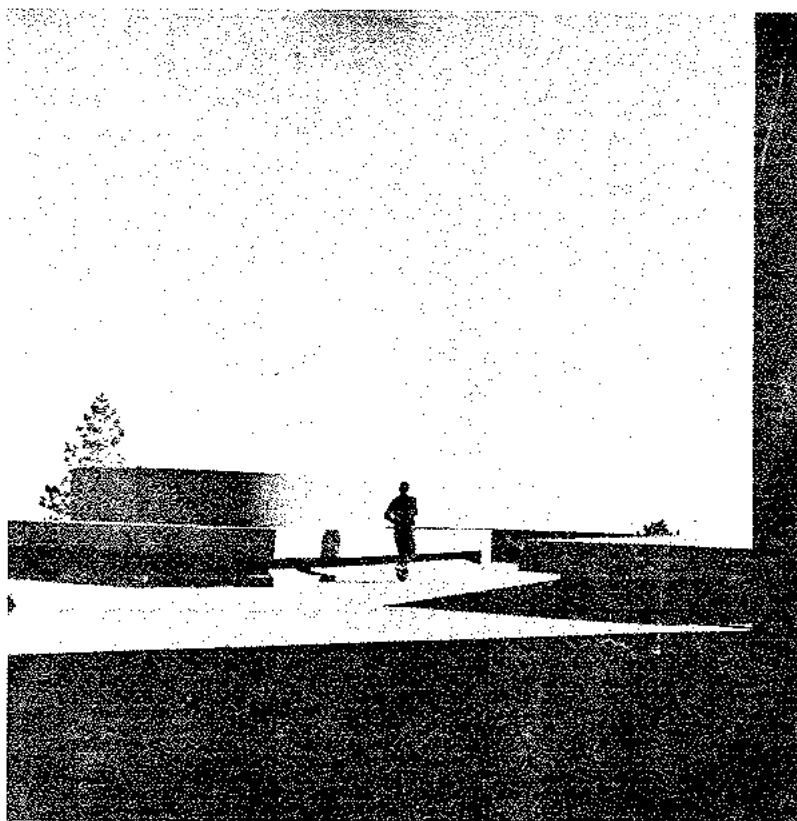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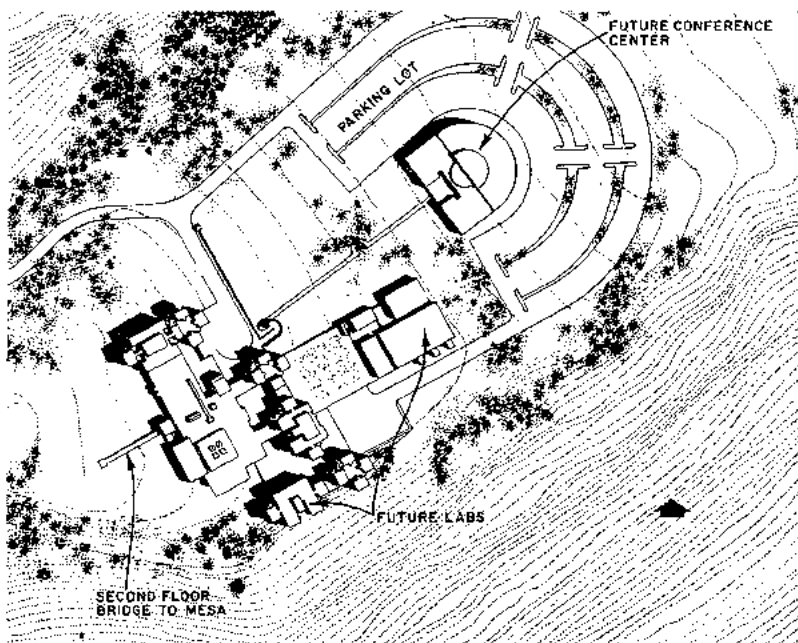
N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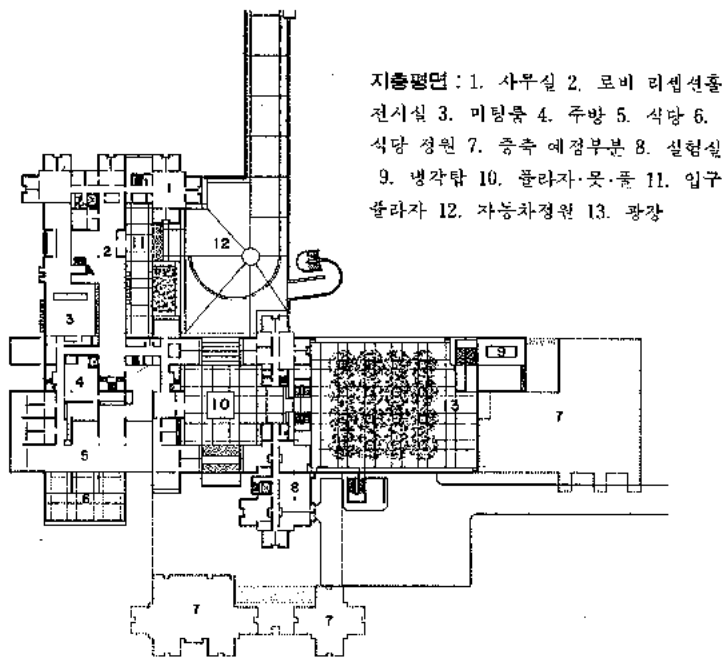
보울더, 콜로라도 1966

아이 엠 페이

NCAR은 대기과학을 위한 여러 단체가 통합되어 발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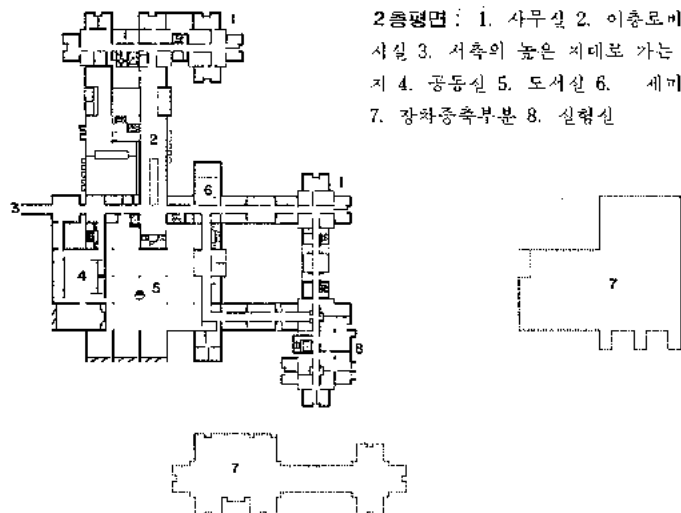
NCAR이 완성되면 실험실군과 사무실군, 관리센터 그리고 큰 컨퍼런스 센터의 복합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완성된 부분은 주로 실험실 탐이며 여기에는 사무공간, 응접 및 전시구역, 컴퓨터실, 도서관 그리고 공동시설과 외부의 정원과 테라스로 이루어져있다.





지층평면: 1. 사무실 2. 로비 리셉션홀
전시실 3. 미팅룸 4. 주방 5. 식당 6.
식당 정원 7. 층층 예점부분 8. 실험실
9. 냉각탑 10. 플라자·못·뜰 11. 입구
플라자 12. 자능차정원 13.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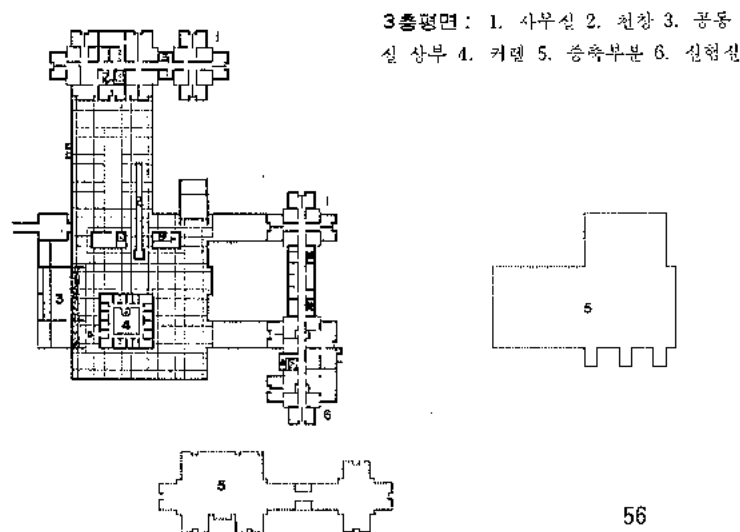
지금 완성된 부분은 전체구성
의 반에 불과하지만 계획의 윤곽
은 분명히 나타나있다. 입구의
곡선램프와 조화된 각진 건물들
의 형태와 아랫층의 아치들은 콜
로라도 풍경에 강한 반사적 효과
를 던지고 있다. 콜로라도산 석
회석과 헤버로 까낸 콘크리트의
표면은 풍경의 장화에 부딪혀 자
연과 인공간에 하나의 긴장을 창
조한다. 빗쭙빗쭙한 형태의 교차
와 배경의 옥기산맥과의 장대한
대비는 새로운 자연-인간-건축
의 모습을 보여준다. 패이는 자
연의 배경에 한 질서를 첨가하여
자연-인공의 새로운 차원의 질
서를 의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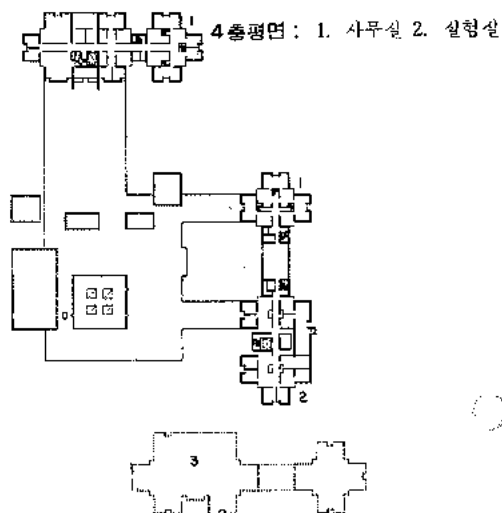
2층평면: 1. 사무실 2. 이층로비 전
시실 3. 서쪽의 높은 지대로 가는 브릿
지 4. 공동실 5. 도서관 6. 세미나실
7. 장외중축부분 8. 실험실

상징적이면서 기능적인 형태와
내부와 외부공간의 여러 계층에
설치는 상호교차 그리고 자연적
재료의 강한 표현들은 분리된 건
축적표현을 넘어 이 건물에 커뮤
니티의 느낌(하나의 세계를 암시
하는)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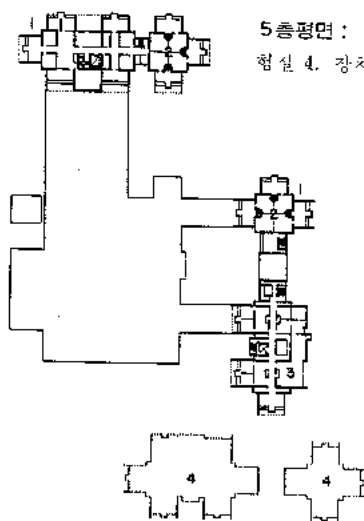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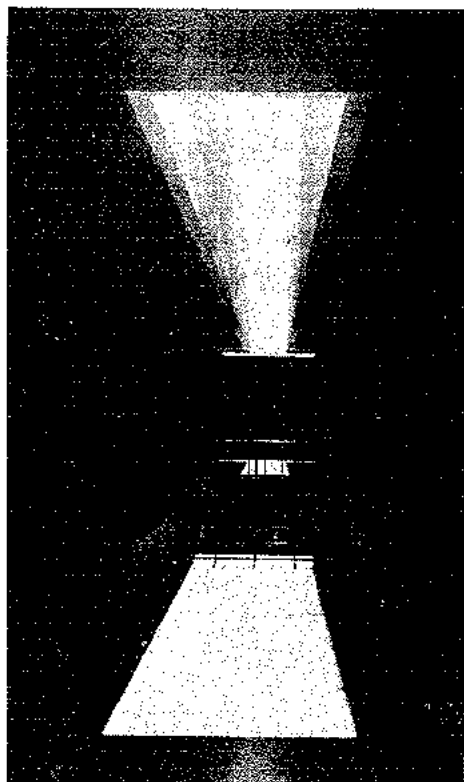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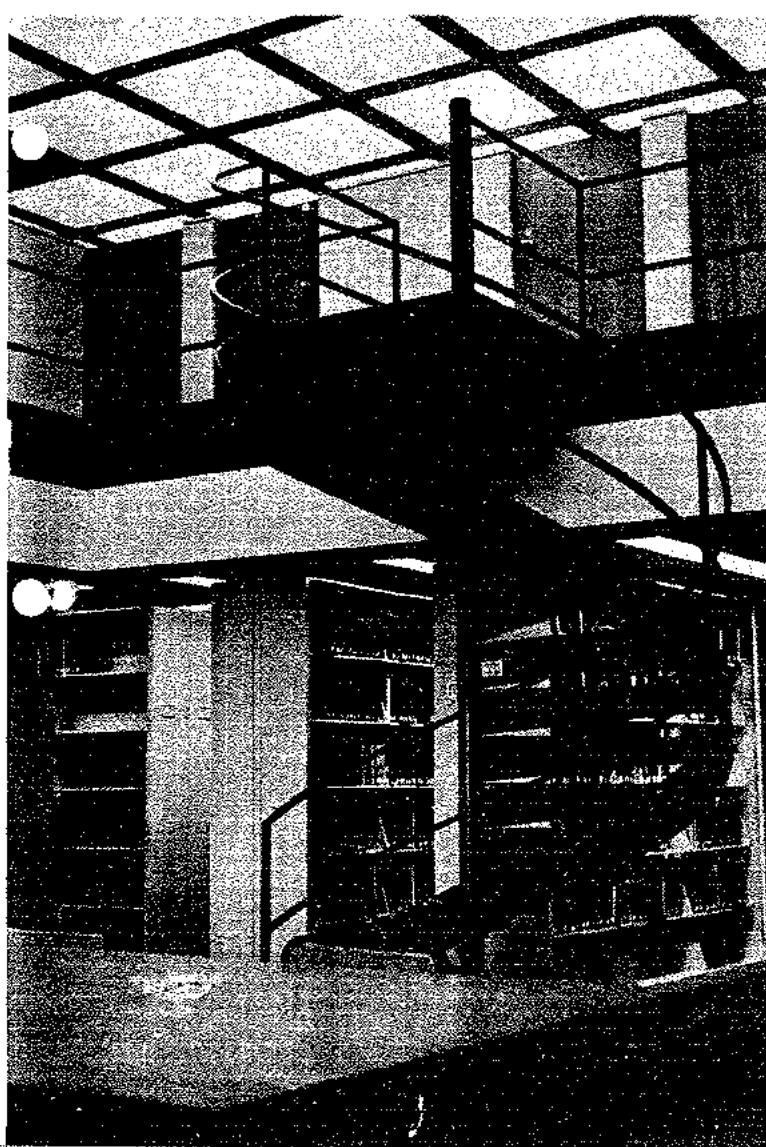
이 건물이 앞으로 모두가 완성
되어 새로운 건축의 한 장을 어
떻게 보여 줄지 하는 것은 크게
기대할 일이다.



3층평면: 1. 사무실 2. 천창 3. 공동
실 상부 4. 커널 5. 층층부분 6. 실험실



4층평면: 1. 사무실 2. 실험실



5층평면 : 1. 사무실 2. 테라스 3. 실험실 4. 강자증축할 부분.

거장들의 말

①

후랭크·로이드·와이트



후랭크·로이드·와이트는 음악가며 전도사였던 아버지와 그가 낳기전부터 그를 건축가로 만들고 싶어했던 어머니의 아들로서 1869년 6월 8일 위스컨신주 리퀼랜드·샌터에서 태어났다.

그의 건축가로서의 수업시대는 1889년에서 1896년까지의 기간에 불과하나 그때 벌써 그는 독립한 설계사무소를 가졌다. 와이트는 건축가로서의 경력이 극히 적은 때에 〈성실한 오만이야 위선적인 겸손이야〉의 선택을 앞에 했을 때 오만쪽을 택했다. 그는 미국건축을 무와 같다고 비난하였고 수단에서보다도 목적으로서 쓰여지고 있는 기계와 기구를 조소하며 대화속에 항상 기지와 남에 대한 모욕을 섞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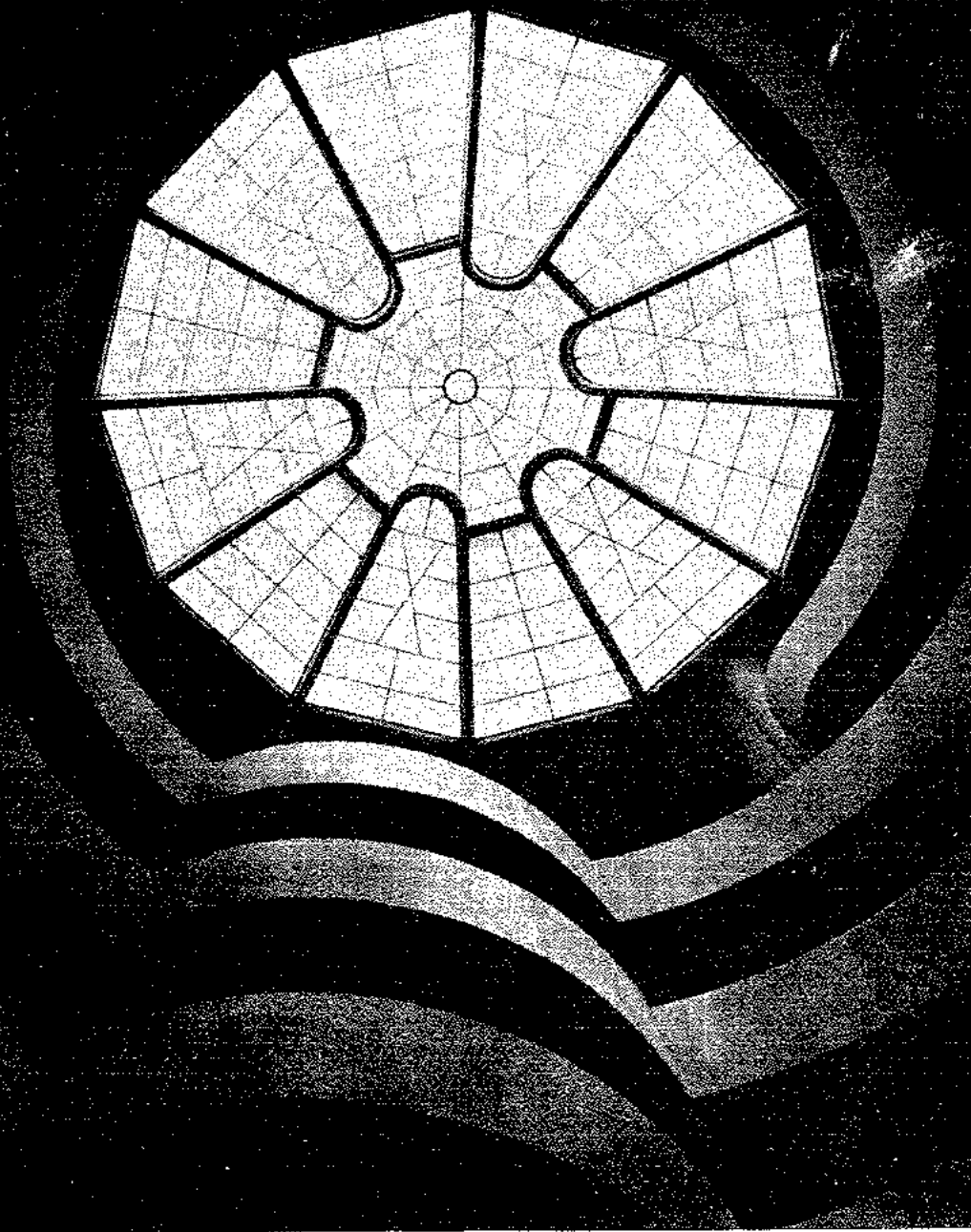
그는 여름이면 위스컨신주의 스프링·그린의 텔리에신 별장에서 겨울이면 애리조우너주 페닉스의 웨스트·텔리에신 별장의 연구소에서 일하였다. (텔리에신이란 와이트의 혈통이 웨쉬인이므로 붙인 웨쉬어로서 또한 그의 설명에 의하면 드루이드승으로서 아-서왕의 원탁기사의 한 사람이며 6세기의 서정시인으로서 미술의 영광을 노래한 인물인 텔리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며 웨쉬어로서의 그 뜻은 빛나는 눈썹이라는 뜻이다)

그는 자유스러운 평면을 거의 창안하였는데 그것은 〈외부가 점점 실내로 밀려들어와 내부가 바깥쪽으로 노출해가는〉 것이다. 그는 강직이라는 말 대신에 〈섬세와 유연〉을 강조하였다. 그는 중력난방법, 바닥난방, 간접조명과 이미 세계에 널리 퍼진 〈코너윈도우-각창〉을 사용하였다.

그는 〈내가 어떤 사물을 구상하여도 구상대로 사물이 될수는 없었다. 공간해방이라는 것도 구조라는 의미를 전혀 해방시키는 즉 건축물의 이념을 근본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 대신에 창을 해방시키는 데 끝났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는 세번이나 결혼하였다. 건축에 대한 수많은 저서가 있으며 또한 여러권의 자서전을 썼다.

건축의 장래에 대해서 와이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현실성에 대한 새로운 의식, 성공에 관한 전혀 다른 이념, 보다 깊은 사회의식, 개인이 지니는 보다 훌륭한 전일성-그들 민중 전체와 토지, 즉 자연과의 통일을 완성시키는데 건축의 장래는 달려있다.〉



유기적 건축의 언어

후랭크 · 로이드 · 화이트

유기적(본질적) 건축은 이상적인 사회의 자유로운 건축이다. 나 자신이 건축한것,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써온 것을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아홉개의 단어사전을 첨가해두겠는데 그것은 현대의 이 시기에 있어서 필요시 되고 나아가 세계에 통하는 말이다.

단 어

1. 〈자연〉. 이 말을 왜 문제삼는가? 일상적인 용법에서도 그렇지만 이 말은 무엇 보다도 남용되고 있어 정정할 필요가 있다.
2. 〈유기적〉. 유기적이라는 말의 무지한 용법과 그 한계에 대해서.
3.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표어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불합리한 양식의 건축이 시도되고 있다.
4. 〈로맨스〉. 이 말의·용법중에 이러나고 있는 보편적변화. 이 변화는 유기적 건축 그것이 발생케 한 것이다. 이미 감상은 아니다.
5. 〈전통〉. 이 말에 대해서 모든 선량들 특히 비평가들이 지니고 있는 관념의 혼란.
6. 〈장식〉. 건축의 선물, 혹은 해악, 과거 오백년 동안 그것은 아꼈리찌었다.
7. 〈정신〉. 전문가들이 조장한 소위 국제적인 양식이라든가 유행에 의해서 이 단어가 받고 있는 왜곡 혹은 전도에 대해서.
8. 〈집착원〉. 어떤 점에서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 이 단어가 근원적이었던가 라고 하는것.
9. 〈공간〉. 양식으로서의 유기적 건축이 그것을 발견하는데 기여한 바 새로운 한 요소.

내가 여기에 든 이 아홉개의 단어를 하나로 종합해 보면 (실제로 때때로 그렇게 되고 있으나) 근원적인 형태와 목적의 어떠한 생명력도 버티어 놓을 수 없는 지 근원적인 타락의 현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부담이 지어져 있으므로 민주주의 문화에 있어서 근본인 건축의 근본적 이념이 도달하는 장소는 다만 지 빈민굴과 같은 것이 눈에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념은 만약 그것이 이해되고 올바르게 실행되기만 한다면 현대의 위대한 건설적·창조적인 철학이 될 것이다. 확실히 그 철학은 우리에게 선일적문화 즉 민주주의적 문화의 문제를 이루는 것이나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유기적 건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자각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국민이 될때 비로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아홉개의 단어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이 단어들은 모두 건축과 사회의 분계에 개입하는 말들이다. 오늘날의 표준화된 교육은 짧은 생명을 점차 불모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일반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기계화에 가장 잘 봉사하는 것 같은 상투어에 의해서 창조적 능력들이 배제당하고 있다. 평범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에 힘이 되고 있다. 기계화는 평범한 인간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국제적 양식으로 향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유기적 건축을 타락시킬뿐 아니라 마침내는 단테서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창조적 건축가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정 의

1. 〈자연〉이란 구름·나무·폭풍·땅위의 동물들과 같은 문 밖의 것을 의미할 뿐만아니라 배경이나 자료가 되는 자연이란 점에 대해서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성질 즉 외도, 감정의 본질, 혹은 도구가 지니고 있는 본질까지도 의미한다. 자연은 인간과 인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부로부터〉 있는 것이다. 대문자로 쓰여진 내적자연, 내재하는 원리.
2. 〈유기적〉이라는 말은 건축에 있어서는 고기간에 걸쳐있는 것과 같은 것, 두다리로 걸어다니는 것과 같은 것, 눈과 발에서 재배되는 것과 같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실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마도 〈전일적〉, 〈본질적〉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좋은 용어일 것이다. 건축에서 원래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유기적이란 부분과 전체, 전체와 부분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유기적〉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와 같이 전일적인 것으로서의 실체이다. 본질이라는 것.
3.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것은 대단히 남용되고 있는 표현이다. 형태가 기능을 따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얕은 수준에서 쓰여질때에는 건축의 형태가 버티어져 있는 토대를 지시하는 것으로서만 이 말도 유용하다. 결국이 인간의 형태의 중국이 아닌 것 처럼 문법도 시의 형태는 아니다. 건축적 형태와 기능과의 관계도 그것과 동일하다. 덜거덕 거리는 뼈대는 건축이 아니다. 외형이 질을 규정하는 표준은 못 된다. 형태는 기능에 의해서 설명되어 있으나 또한 시적 상상력이 소멸함이 없이 그것에 함께 하고 있는 한에서 형태는 기능을 초월하는 것이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하는 표현은 정신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관용어구다. 〈형태와 기능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아가 그렇게 쓸때에만 그 슬로간은 의미있는 것이 된다. 현재에 있어서 그것은 불모한 것에 대한 암호가 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그러하다.

4. <로맨스>. 나는 발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질을 의미한다. 그 찬탄할 만한 그러나 지금은 감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말도 비평가나 일반 저술가들이 그 의미를 반동적으로 쓰고 있기때문에 그 의미가 혼란되어 있다. 유기적 건축은 현실화를 인간의 창조적 행위에 비장된 로맨스로 본다. 그러므로 로맨스는 새로운 현실성이다. 창조력이 이것을 예감한다. 어떠한 단체작업도 그것을 상상할 수는 없다. 협력적조직만이 영감을 받은 개인으로부터의 선물로써 그것을 받아들일수 있다. 유기적 건축의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상상력은 생각이 없는 건물의 정면을 고안하거나 엉터리 건물을 만들거나 하는 태도에 형태라는 인간에 어울리는 표현을 창조해야 한다. 형태의 시가 건축에 필요한 것은 알이 나무에 꽃이 화초에 혹은 살이 뼈에 필요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 인간적 요구가 감상에 홀려 부정적 정신이 이제 혼미하고 있다하여 그것이 사물 그것을 사물의 남용과 바꾸어도 좋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기때문이다. 건축법이 기계화되어 창조적 건축에 봉사하게 되고 그 역이 안될때까지 우리들은 위대한 건축을 전혀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5. <전통>이 여러가지 전통을 가지는 것은 진리가 여러가지 진리를 갖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들이 유기적 건축의 진리를 말할때 우리들은 유로서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새>라고 하는 유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치 변화가 무진한 새가 되어 날아가 버릴 것이나 그것은 모두 하나인 것으로부터의 파생물이다. 그러므로 전통에 대해서 말할 때도 나는 그 말의 유의 규정으로써 쓰고 있는 것이다. 유로서의 전통에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치 각양각색의 전통으로 그것은 때를 지어 날라갈 것이다. 모든 것은 파생에 불과하므로 아마도 누구를 막론하고 근원적인 창조력을 지니는 자는 없을 것이다. 모방을 또 모방하는 것이 전통을 파괴한다. 진리는 건축에 있어서의 신성이다.
6. <장식>. 건축의 전일적 요소로서의 장식이 건축에 대한 관계는 개화현상과 수목 혹은 초목과의 관계와 같다. 그것은 사물에 내속하는 것으로서 사물에 부속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정서적인 것으로서의 장식은 -올바르게 이해되기만 하면 -다만 시 뿐 아니라 구조의 특질이 제시되어 그것이 마법으로서 끌어내어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건축은 장식에 의해서 파괴된다.
7. <정신>. 정신이라 무엇인가? 유기적 건축의 언어에 있어서 <정신적인것>은 일종의 조명으로써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사물의 생명 그것으로서 사물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정신은 내부에서 상승하여 외부로 확대되어 간다. 정신은 위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하늘로부터의 매달리거나 고리에

- 지주로 버티어 받혀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보통 언어에서는 거의 모든 단어에 이중의 용법이 있다. 유기적 의미에 있어서는 여하한 명사도 외적 실체는 아니며 내적 실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쓰여지고 있다. 이를테면 자연이라는 명사는 복직에 이르는 질료적 수단 즉 물질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처럼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동일한 말을 정신적 의미로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를 이와 같이 유기적 의미에 있어서 설명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의 모든 용법에 있어서 단어의 정신적 의미가 먼저 가슴에 떠오르는 것이다. 령
8. 〈삼차원〉. 보통의 신념과는 반대로 삼차원이란 두께가 아니라 깊이다. 유기적 건축에서 〈삼차원〉이라는 단어는 사물에 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속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저 깊이의 감각을 지시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삼차원으로서의 깊이는 건축물에 본질적인 것으로서 존재한다.
 9. 〈공간〉. 연속한 생성. 모든 운율이 거기서 흘러나와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원천. 시간 혹은 무한을 넘어서. 유기적 건축이 건축에 임하여 그것을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새로운 실재. 예술작품의 호흡.

내가 건축을 주제로 하여 쓴 책이나 내가 지은 560책나 되는 집들중의 하나일지라도 만약 이 아홉개의 단어사전울 옆두에 두면서 연구한다면 추단, 모방, 회의 및 편견이 번무하는 저 남용과 너무나 없는 마명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을 불모로하고 상업화된 과학에는 아마도 이익이 되겠으나 위대한 건축예술에 있어서는 유해한 것이되는 편의주의의 유행과 대결해야 한다. 만약 유기적인 건축이 오래 보존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들도 진정한 문화로서 결코 오래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건축은 창조적 예술로서 우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연후에 널리 세계에 퍼져나가야 할 것이다.

미술관의 잔심부름꾼, 위원회의 위원, 대학의 이사들이 땀을 흘리면서 일한 백만장자의 유산을 소비하기 위한 구실로 삼고 있는 저 교육에 있어서 현대적경향이 내가 이제 논란한 것과 반대와 방향에 너무 지나쳐 있기때문에, 또 국제주의자들이 말하는 국제주의 양식의 유행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널리 세계에 있어서까지도 우리들은 위대한 건축가와 건축의 종말을 보게될 것이다.

우리는 기계화된 범용성, 제발되는 정신이 아닌 조건지위된 정신을 지옥으로 쳐 넣어야 한다.

협회기사 · 회원동정

円熟한 建築士 黃鍾淳氏를 찾아서

비내리는 南쪽 港都인 麗水市에 黃先耆를 찾아 人事를 드리고 얻은 생각나는 일이 월타·그로파우스(86세), 미-스(83), 르·콜비지에(78세), 라이트(95세)들과 같이 八十이 넘은 경쟁한 世界的인 建築家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82세인 現役建築家가 補助員도 없이 홀로 온돌방에 앉아 設計를 하고 계시니 五十年代인 나의 建築製作의 前送가 창창히 길게 보이는 듯도 하고 젊은 사람들의 獨善, 또는 世代交替主義가 가소롭게도 느껴져서 하루밤을 時間가는지도 모르고 酒杯를 기울이며 先生의 生涯를 더듬으며 지새웠다. 先生은 二十代때(旧韓國時代) 土地調査局 技手로 全國을 測量하며 解放前 日人の 工務店에서 土木 建築設計를 배워 解放後 麗水市 都市計劃에 從事하신후 約三十年前부터 故鄉인 麗水에서 建築設計業을 始作하신후 現在까지 두살 위이신 婦人과 같이 하루도 취지않고 묵묵히 建築設計 事務所를 해 오셨다. 지금도 건강하시니 젊은이 못지 않고 약주도 오히며 우리보다 더 센것을 보니 아직 二十年은 더 設計를 하실 수 있지않나 보인다. 건강의 비결을 물으니 그저 젊어서부터 登山을 좋아하시며 무리가 없는 생활이라 하시며 四名 밖에 없는 麗水分所の 총무도 겸

하시며 建築設計에만 餘念이 없으신인지 老人들 親旧는 한분도 없애 늦게 사무소를 退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分所會員 設計事務所의 同僚(사실은 孫子輩)를 찾아 약주를 드시니 어느 支部, 分所에서도 보기 드문 會員들 끼리의 友好를 느끼게 하였던 일도 感銘깊었다. 모든 世上事, 특히 藝術的인 分野에까지 깊이가 있는 建築設計도 둥글둥글 원숙하고 친절한 設計를 하고 계시는 그 人格도 나이와 같이 여든 感이었다. 先生을 뵈옵기 前만해도 나는 自己를 建築界의 老壯으로 착각하던일이 부끄럽고 우스꽝스럽기만 하다. 나보다도 三十年을 더 研究하시고도 設計를 直接하시는데 나는 젊은 사람들을 가리킴네하고 부러만 먹고있던 일이 建築家 黃鍾淳氏를 만나고 나는 나의 作品生活은 勿論 나의 人生觀마저 先生께 많은 배움을 받은 셈이다. 후랑크·로이드·라이트가 八十五才가 넘어서 참 원숙하고 훌륭한 作品을 낸것이 새삼 생각난다. 黃先生도 지금부터가 정말 좋은 作品이 나올 년령이신데....., 너나할것 없이 黃先生을 앞장으로 좀 겸허한 마음으로 좀더 길게 建築界를 살어 갑시다. 그리고 黃先生의 좋은 作品을 기대하며 黃先生 内外분의 건강과 長壽를 빕시다.

一九七〇. 七. 十六

姜 明求



협회기사 · 회원동정

제 21회 정기 이사회

(1970. 6. 24. 본회 회의실)

결의사항

- 경기지부 김 동진회원 윤리위원회에 회부기로 함.
- 서울지부 영등포 분소 설치 승인.
- 박 영만 회원을 특별회원으로 추대기로 함.

제22회 정기이사회

(1970. 7. 8. 본회 회의실)

결의사항

- 사무처는 각 지부에 대하여 년 2회 사무감사를 실시기로 함.
- 보수기준 개정안 7월11일까지 건설부에 재 제 출하기로 함.
- 3. 4 반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함.
 1. 건축사법 개정
 2. 보수기준 개정
 3. 세무대책
 4. 1971년도 예산 편성
 5. 제 규정 제정
 6. 건축사 시험에 대비한 강습회 개최
 7. 농어촌 및 서민주택 작품 전시회 개최 준비

제 2 회 윤리 위원회

(1970. 7. 14. 본회 회의실)

비위원회 3 명에 대한 징계 여부심의 관계 회원을 출두게하여 종결기로 함.

7. 15. 강 명구 회장 전남지부 출장.
여수 황 중순 고령회원 (만80) 예방

본 협회 강원도 지부가 바라던 독립 사무실을 가지게 된것을 축하합니다.

강원도 지부의 더큰 발전을 바랍니다.

대한 건축사 협회 강원도 지부

주소 춘천시 조양동 98번지

전화 2442

지부장 손 준섭

신입회원

- 방효훈(제일건축설계연구소)
서울성동구무학동 2 52-9397
- 박춘상(박춘상건축설계연구소)
중구소공동44-1 22-1433, 23-9191
- 이형재(시민종합건축연구소)
성북구성북동 161-3 92-8978
- 오재영(성도건축설계사무소)
종로구종로 2가 5 74-2095
- 윤여봉(정아건축공사)
서대문구응암동 2-1 38-3339
- 임성순(홍일건축설계사무소)
성동구무학동11 52-2740
- 김연우(우전건축연구소)
인천시중구대동 203

사무소 이전

- 정도영(유림건축연구소)
서대문구합동11 74-5764
- 유성중(유성중건축연구소)
종로구사직동 332 74-5628
- 정대식(신광건축사무소)
성북구성북동 178-24 93-0134
- 한완수(일체건축연구소)
성북구삼선동 5가 298-3 93-8405
- 이호진(삼원사건축설계사무소)
종로구전지동85-4 74-3813, 3814
- 김용주(동진건축설계사무소)
동대문구신설동 103-3 53-2068
- 양대원(양대원건축설계사무소)
마포구동교동 173-14 33-4891
- 김혜진(신일건축연구소)
종로구수송동48 72-1119
- 임상익(이전사)
중구저동 1가90-2 23-9711
- 제용운(한양건축설계사무소)
중구다동 190(종원빌딩 802호실) 28-6697
- 김용인(건미공사)
중구을지로 3가 295-4 26-3914
- 최영훈(주식회사광진종합설계공사)
종로구당주동 18 74-6303

협회기사 · 회원동정

김희중 (삼우건축연구소)
종로구세종로 93 73-1201
김추환 (대일건축설계사무소)
마포구마포동 155-1 33-7044
연전명 (연일건축연구소)
영등포구봉천동 7-75
강기정
제주사 1도2동 1104번지

상호변경

차경순 (주식회사) 서울건축사합동기술공사) 前 차경순건축
이명훈 (주식회사) 서울건축사합동기술공사) 前 이명훈건축
이봉로 (주식회사) 서울건축사합동기술공사) 前 한국건축
이규복 (주식회사) 서울건축사합동기술공사) 前 신한종합건축
김관풍 (주식회사) 서울건축사합동기술공사) 前 김관풍건축
김지태 (주식회사) 서울건축사합동기술공사) 前 삼아건축
이동환 (주식회사) 서울건축사합동기술공사) 前 동광건축
이명환 (주식회사) 서울건축사합동기술공사) 前 유신건축
이춘상 (주식회사) 서울건축사합동기술공사) 前 신양건축
신현대 (주식회사) 서울건축사합동기술공사) 前 신현대종합건축
신종순 (주식회사) 서울건축사합동기술공사) 前 신종순건축
신정철 (주식회사) 서울건축사합동기술공사) 前

충구 다동 131 삼덕빌딩 901~910

28-8362 28-0693

22-9082 23-2569

김응연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장원선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김중희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심희권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김양규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김남규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박창준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김일호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김기배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김정수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고종욱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허 집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김연우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이병무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이익수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문수일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송영민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최창영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송기준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심창구 (인천지구 건축사연합사무소)

인천시 중구 신포동 23번지

2-1271

3-0243, 3439

박원일 (고려건축설계사)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351-15 3-2486

김인호 (대원공무소)

부산시부산진구대연동 1344번지 25동 5번

강대기 (산천포종합설계사무소)

최갑열 (")

김재진 (")

경남삼천포시동금동 416-3 전화 130

■ 발행소 /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가 25번지 정양빌딩 601호 실 / 전화 28-9802 · 22-2617
■ 발행인 겸 편집인 / 강명구 ■ 인쇄처 / 대한공론사 ■ 등록일자 1967년 3월 23일 ■ 등록변경 / 1970년 1월 8일 ■ 등록번호 / (제타-1251호) ■ 인쇄 / 1970년 7월 24일 ■ 발행 / 1970년 7월 25일 ■ 월간
■ 인쇄구좌 / 한은무교지점 1955호

새로운 場 · 第三世代 ① 로 말도 · 지울골라

中世의 都市

百濟의 建築

空間으로서의 建築

現代建築의 古典 ① 라 · 두렐

삼일로빌딩
장충동 S씨집
광주성당
정동교회

스탠다드빌딩
마네스만빌딩
타이버아일랜드
아란학생관
유니버살 오일프로덕트
테임스미드

구조이론의 기원
ACI code가 의미하는 것
평지붕의 처리
UIA뉴스
국내건축정보
해외잡지초
서평
자재분석표

5 × 7 倍判, 120페이지, 8월15일 발행, 정가400원

발행 한국건축가협회 총판 서울 용산구 용문동 8-109 42-1225

서울 서점, 각대학 건축과, 도시계획과,

지방 서점, 각대학 건축과, 건축사협회지부, 건축가협회분소

7월호 발매중 총판 서울 42-1225

建築上 · 建設技術者 · 其他試驗의 應試者를 위한

建築 텍스트 북

☐ 建築技術 / 材料 / 構造 / 力學 / 施工積算 / 建築法規 / 設計製圖 / 計劃原論 / 設備 / 鐵筋
콘크리트 / 鐵骨 / 分野의 문제집.

☐ 8月初旬 發刊豫定

☐ 其他는 學會事務局 (22-5866, 23-4809)에 問議要望

大韓建築學會事務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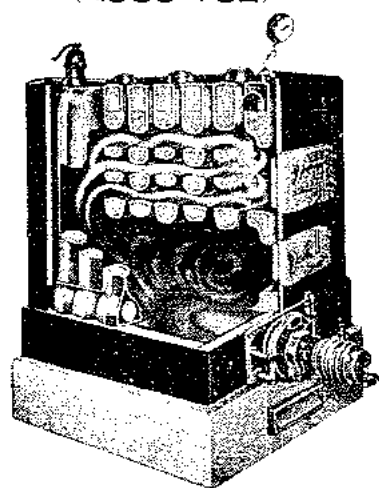
서울特別市 中區 明洞 2街 2의7

電話 卽命 서울 中央 2684番

카나다발명 특허 (카나다 No. 811463)

東震ZZ型보이라

(대통령령상 수상품)



五細性六五〇耗 KS 表示
許可 第217號 獲得

◆ 製品案内 ◆

- 低壓 색쇼날 보이라
- 高壓 보이라
- 各種 放熱器
- 콘덴세이션 펌프
- 回轉式 蒸汽釜
- 眞空暖房 펌프
- 콘벡 타
- 電氣 호이스트 크레인
- 住宅用 溫水 보이라
- 로-타리 오일 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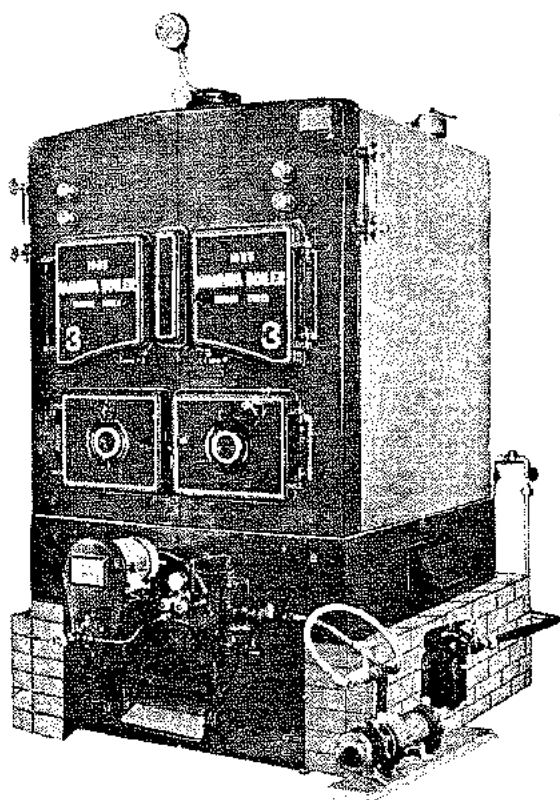
東震鑄物製作所

서울特別市 龍山区 元曉路1街43

TEL. (交) 42-2221~5 番



오일바-나 사용 보일러 OIL BURNING BOILER



실용신안 등록특허 제 3579 호



특상 우수상에 빛나는 만화보일러

가정용 온수보일러



만화주물공업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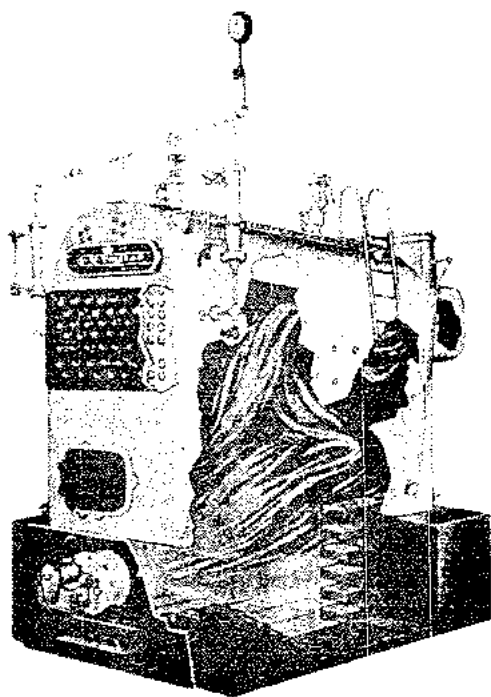
본 사 : 인천시 남구 송의동 349
 인천 (2) 0930, 3491 (3) 1156, 1157
 서울연락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48의 3
 (22) 3716 (24) 1316 (28) 7716

便利하고 合理的인!

一實用新案 特許

第2845號 一

東光 DW 型 水管式 보일러



用途

政府廳舍、빌딩、호텔、病院、食品工場、
化學工場、製藥工場、纖維工場、沐浴湯、
機械工場、洗濯所 等 其他。

〈受賞種別〉

- 第一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서울 特別市長 優秀賞
- 第二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大韓建築士協會長 優秀賞
- 1967年度優良工產品生産獎勵會에서 優秀賞
- 第七回全國商品會에서 內務部長官의 優秀賞
- 第八回發明品展示會에서 國會議長의 最優秀賞
- 第九回發明品展示會에서 大法院長의 最優秀賞
- 上記展示會에서 商工部特許局長의 優秀賞
- 科學의 날 優秀한 機械 工產品의 發明으로 科學技術 振興한 功勞로 韓國 科學技術總聯合會長으로 부터 表彰狀을 받음.
- 原動機 技術賞審査委員會의 審査에서 特殊水管式보일러部門의 技術 開發과 振興에 寄與한 功勞로 國立工業研究所長 으로 부터 技術開發賞을 받음

主要納入處

大韓住宅公社
시은제과 Co.
自由선 타
産業銀行
大田皮革 Co.
서울여자學院
韓一染色 Co.
世宗호텔
中央産業 Co.
釜山鐵道廳

三岡産業 Co.
仁川園藝組合
國防部建設本部
春川聖心大學
美八軍洗濯所
大韓體育會
大韓重石 Co.
宇盛化學 Co.
東洋紡織 Co.
首都醫附屬病院

大韓染織 Co.
同和藥品 Co.
柳韓洋行 Co.
韓國유리 Co.
韓國나일론 Co.
大韓물크 Co.
清溪商街아파트
大韓造船公社
울림포스호텔
웅당산호텔

호수호텔
韓獨商社 Co.
聖바오루病院
大興섬유 Co.
聖心綜合病院
大韓生命保險
公務院訓練院
林業試驗場
南大門警察署
大韓産業

京畿農産 Co.
廣日별딩
韓國洋灰
麗水觀光호텔
第一病院
自動車保險
새한별딩
江原道庁
韓獨産業
韓國산토리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會社

代表理事 朴 鍾 泰

本社：서울特別市龍山區交培洞14의 1

電話 (42) 1673 (42) 9775-6

工場：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2番地

미국특허 # 505 - 863

새로운 건축자재의 혁신!
구미 각국에서 각광중인 内, 外装,
표벽재료 드디어 한국에 出現!

DECOR-CEM

(덱콜-셈) 을 소개합니다



덱콜셈시공 광경

어떠한 벨딩과 아무리 古屋
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금이
가지 않으며 다양한 색채로
매끈한 혹은 거친 디자인으
로 새롭게 완전방수 표벽화
합니다.

※ 防水, 방화, 방음, 凍結, 結
氷, 恒久性を 보장하며 쉽게
청소됩니다.

미국에서 建築業으로 전통과 기술을
자랑하는 ILLINOIS Rockford 에 있
는 U. S. DECOR-Cem inc 와 동남
아 특약과 기술제휴.

木 社: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가 20 의 3
(성산빌딩 203 호)

TEL. (54) 7569

工 場: 서울 용산구 한남동 504 의 1

전시장: 서울 동대문 신명화상가 2층

TEL. (54) 7111 - 5 (16번)



美덱콜-셈韓國支社

DECOR-CEM INC.